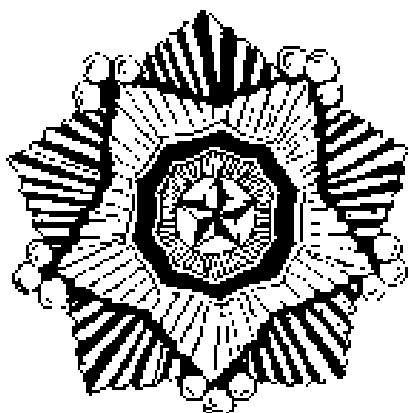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6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6호

(루계 제 644 호)

차 례

산촌의 물소리	4
명언해설	14
6 월이여 너는 무엇을 새기었던가	14
6 월의 충성	15
불길	15
동지	16
위대한 정치가 낳은 20 세기의 기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17
6 월 19 일에 대한 생각	22
소원	23
그이는 10 대의 소년이였다.....	24
병사의 사진	24
오늘의 자력갱생의 의미를 진실하게 보여 준 인상 깊은 형상.....	25
백날에 백장을 쓰자!.....	28
바다가에서	29
안경	31

나의 아버지	32
심장의 노래	33
인생의 꽃.....	33
고향속의 조국, 조국속의 고향을 응시하며.....	34
나는 과학자이다	41
주로우에 새긴 자욱	42
새벽	53
스물한발의 《포성》	54
북두칠성	62
이모님은 오십니다.....	70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71
건강상태의 자체검사법	79
이것이 미국이다	80

산촌의 물소리

리정수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가고 있었다.
장군님의 숙소는 깊이를 알수 없는 고요속에 묻혀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맞은편 응접탁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이곳 지방당일군인 김진섭의 모습을 점도록 바라보시었다.

힘껏 떠박질러도 끄떡 없을 장신의 체구에 얼굴이 너무족한 그는 장군님의 휴식시간을 빼앗는 것이 송구스러워 가끔 도수 높은 안경테만 만지작거리었다.

《이야기를 나누자고 남으라 했는데 그런 모양새로 있으니 어디 말이나 붙여 보겠소.》

우선우선하게 울리는 장군님의 말씀에 진섭은 어쭙은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장군님, 밤이 꽤 깊었습니다. 래일 현지지도일정이 복잡한데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떠듬떠듬 울리는 진섭의 말을 빠른 손짓으로 자르시며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었다.

《내 걱정은 마오.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소. 자, 앉아서 우리 이야기나 나누지요.》

잠시 주저하던 진섭이 서슴서슴 자리에 앉자 장군님의 눈가엔 따뜻한 빛이 어리시었다. 만나 불수록 반갑고 믿음이 가는 일군이였다. 가식이 없고 당에서 바라다면 모래만으로도 집을 지어낼 사람이였다. 장대한 체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큼직큼직하게 해놓고는 장한 일을 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듯 한 표정으로 벌썌벌썌 웃으며 나시던 그가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것을 보니 고지식한 그의 성격 일면을 새롭게 보는것 같아 속으로 웃음이 나가지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행군》 시기 어느 곳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북부산간지대인 여기 형편은 더욱더 어려웠다. 적은 경지면적, 많은 공장들로 하여 조밀한 인구...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함께 오만해 질대로 오만해 진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책동에 연합세력을 이루었다. 《봉쇄》, 《압살》, 《자연재해》... 이러한 낱말들은 이미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새로운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다. 이러한 때에도 여기 사람들은 주저와 비판을 모르고 자력갱생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정신과 일본새를 창조하였다. 사품쳐 내리는 산골물을 막아 발전소를 세워 공장을 돌리었고 짐승도 발을 붙이

기 저어하는 험한 산릉선을 일구어 뽕밭을 만들었다. 룬전기재를 돌릴 기름이 없으면 등어리가 터져 나가도록 등짐을 지었고 어깨에 썩살이 박히도록 보습을 끝었다. 식량이 부족하여 운신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을 눕혀 놓고 일터로 달려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 조국이 겪는 시련을 한 가슴에 부여 안고 끝까지 이겨 승리자로 되려는 이들의 필사의 노력은 노예로 되느냐 자주적인 인간으로 사느냐 하는 판가리 싸움이었다. 오랜 세월 내려 오던 《농사꾼은 굶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라는 격언이 《우리는 굶어도 설비만은 배고 죽는다.》는 여기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로 현실화되었다.

바로 이 투쟁의 앞장에 김진섭이 서 있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하며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그의 소행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대견하시여 여기에서 온 나라에 지퍼질 새로운 불길을 마련할 결심을 지니시었다. 이런 일군들과 인민들이 있는 곳에선 반드시 기적이 일어 나는 법이다.

살림이 넉넉치 못한 자식에게 더욱 마음 쓰게 되는것이 부모 된 심정이여서 장군님께서서는 그간 여러차례 험한 령을 넘어 여기에 찾아 오시여 뚫고 나갈 앞길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였을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깊은 은정과 뜨거운 사랑을 돌려 주시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오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산천을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제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 가는 이 고장 일군들과 인민들의 남 다른 기백과 기질을 느끼시었다.

오늘도 만부하를 걸고 생산정상화에 들어 간 공장, 기업소들과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보아 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시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었다.

더우기 그이를 기쁘게 해드린것은 이 지방 경제의 일익을 담당한 녀성일군들의 일본새였다. 식료가공부문과 피복, 상업부문 등 여러 단위들을 맡은 녀성일군들은 이악하고 끈진 일숨씨로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정을 가진 녀성의 몸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남 모르게 헌신해 온 그들이 미덥고 대견하시여 오늘 저녁에는 일찌기 현지지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 와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하였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의 뜻을 받들고 아글다글 애 쓴 동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변변치 못하지만 저녁식사라도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불렀소.》

감격에 겨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손수 축배잔까지 찼어 주시던 그이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지 자주 주위를 둘러 보시었다.

진섭이 걸으로 다가서자 그이께서는 나직이 물으시었다.

《왜 창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윤정금동무가 보이질 않소?》

진섭은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당황해 하는 표정, 허둥거리는 몸가짐...

언제나 여유작작한 몸가짐에 자신만만해 하던 그였다. 진섭의 표정에서 말 못할 그의 복잡한 심중을 읽으신 그이께서는 더 묻지 않으시고 녀성일군들쪽으로 돌아 서시며 잔을 높이 드시었다.

《자, 우리는 힘들게 헤쳐 온 이 길에서 미래를 위해 바친 우리의 공지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밤은 깊었다. 돌아 가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며 바래우신 장군님께서는 작별의 인사를 올리는 진섭의 팔을 따듯이 잡아 이끄시었다. 그의 얼굴에 비졌던 그늘이 마음에 걸리시었던 것이다.

지금도 어쭈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예감이 옳았다는 확신이 드시었다.

《진섭 동무, 말해 보오. 그새 무슨 일이 있었소?》

수첩을 꺼들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리던 진섭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한 빛이 어리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늑갯혀 주려는듯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허허. 그러지 마오. 우리가 어디 한두해 함께 일했다고 그러오. 우리사이에 무얼 감출게 있겠소. 그래, 정금동무가 오늘 왜 오지 못했소?》

진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그이의 앞에서는 어쩔수가 없었다.

《장군님, 사실은 정금동무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의혹 어린 눈길을 드시었다.

진섭은 버릇처럼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주저하였다. 더 독촉을 앓고 언제까지라도 기다리려는듯 조용히 앉아 계시었다.

한동안 바재이던 진섭은 자세를 바로 하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었다.

《장군님께서 창하협동농장을 다녀 가신후 감사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금동무가 그때 말씀 올린 그만한 량의 수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정금동무는 장군님께 무엄하게 담보 없는 말씀을 올린것도 죄이지만 이제 장군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뵈겠는가고 가슴을 찼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우려로 하여 오늘 장군님앞에 높은 사업성과를 안고 나서는 일군들과 함께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진섭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침묵이 흘렀다. 어느 공장에서인지 밤교대로 출근하는 종업원들을 맞는 구내방송소리가 아슬푸레 들려 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자세로 앉으시여 칠보산풍경화가 걸려 있는 맞은편 벽을 응시하시며 의자팔걸이에 얹혀 진 손가락을 천천히 다독이시었다. 한동안 지나서야 혼자 말씀처럼 조용히 되이시었다.

《그래서 정금동무가 오지 못했구만.》

그러시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여시었다. 습기를 머금은 밤기운이 방안에 스며 들었다. 하늘이 높이 들린 가을철의 밤이어서 별들은 유난스레 밝았다. 앞 등성이의 이깔나무에 걸린 하현달은 성근 나무우듬지사이로 수만가닥의 은실을 풀어 키 낮은 정원수가 다복다복 서 있는 프락을 비쳐 주고 있었다. 하현달인데도 추석을 넘긴 달이어서인지 보름달 못지 않게 밝았다. 유정한 밤풍경을 보시느라니 언제나 일감을 안고 모지름 쓰고 일을 위해 태어난듯 싶은 윤정금을 만나시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무뎡해 지시었다.

...어디를 보아도 눈, 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승용차를 모시었다. 간밤에 내린 많은 눈은 산골길을 형체없이 덮어 버리었다. 일군들은 장군님께 눈을 친 다음 떠나서야 한다고 간절한 청을 드리였으나 그이께서는 오늘중으로 평양에 들어 가야 한대시며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었다. 현지지도과정에 료해하신 많은 문제들이 그이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던것이다. 차를 몰아 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뒤좌석에 앉은 진섭을 돌아 보시며 앞쪽을 가리키시었다. 옆으로 가지친 길에서 내려 온 두줄기의 발구자리가 앞으로 뻗어 있었다. 밤새 내린 눈우에 난것으로 보아 발구도 새벽에 떠난 모양이었다.

《우리보다 먼저 숫눈길을 헤친 사람이 있구만.》

장군님께서는 발구자리가 귀중한 자욱처럼 여겨지시여 지워 지지 않게 그 사이로 차를 모시었다. 마치고 인적 없는 심심산골에서 친근한 길동

무를 만나 나란히 가는 기분이었다.

고개말에 이르러 산굽이를 돌 때였다. 장군님께서는 《저런.》 하고 외마디 말씀을 하시며 차를 멈추시었다. 길옆에 번져 진 밭구를 보셨던 것이다. 한 녀인이 밭구를 바로 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급히 그리로 다가가시었다.

《자, 함께 바로 잡지요.》

고개를 쳐들던 녀인의 눈이 확 밝아 졌다.

《장군님!》

그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 했다.

《장군님, 어지럽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종이자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자, 어서 힘을 쓰시오. 진섭동문 이쪽을 잡소.》

밭구가 바로 잡혀 길우에 올라 서자 장군님께서는 눈을 한웅큼 쥐고 얼굴을 비비시었다.

《어, 거뜬하군. 아침운동은 이래서 좋은거요.》

그러시고는 나래와 박막으로 뽕뽕 여며 놓은 짐을 보며 물으시었다.

《그런데 이진 뭐요? 짐을 풀고 바로 잡으면 쉬웠겠는데.》

깊은 산골에서 장군님을 뵈운 감격으로 가슴 들먹이고 있던 녀인은 그 불미한 짐때문에 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한것이 죄스러워 고개도 들지 못한채 말씀 드리었다.

《종자감자입니다. 풀어 놓으면 열것 갈아서... 우리 농장에서도 감자를 심어 보려고 천곡에서 구해 가지고 오던 길입니다.》

《어느 농장이게?》

도안의 관리위원장들을 다 알고 있는 진섭이 장군님께 창하협동농장에서 30년나마 관리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는 윤정금이라고 소개해 드리었다.

《창하라면 여기서 100리도 넘는 길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윤정금의 얼굴을 다시 보시었다. 동실한 얼굴과 추위로 하여 발갛해 진 두볼이 선고개를 뚫 넘겼을 녀인을 생기 넘치게 해주었다.

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이께서는 부쩍 흥미가 동하시어 정금을 차로 이끄시었다.

《자,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해 보지요.》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정금은 너무도 놀라 밭구채를 잡으며 몇걸음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군님의 바쁘신 걸음에...》

《아니, 밭구는 저 뒤차가 달고 오게 하면 되오. 눈길이면 아마 잘 끌려 올거요.》

그이께서는 다가온 수행원들에게 밭구채를 넘겨 주시고 정금을 승용차에 이끄시었다.

승용차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자리를 뜨자 그이께서는 옆에 앉은 정금에게 물으시었다.

《그래, 감자를 심어 보았소?》

《처음입니다. 터밭에서는 더러 심어 보았는데...》

《처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심자고 하오?》

정금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얼굴을 붉히며 무릎우에 포개 엮은 두손만 비틀뿐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시었다. 녀성의 몸으로 100리가 넘는 길에 밭구를 끌고 나선 그가 여간 이악하지 않다고 생각되시었다. 감자의 유익성에 대하여 당에서 가르치니 그것을 심어 보지 못한 자기 농장에서 해보라고 나섰을것이였다. 그런 각오면 얼마든지 해낼 것이였다. 아무리 처음 해보는 일도 각오만 든다면 방도는 얼마든지 생기는게 아닌가.

장군님께서는 감자농사혁명에 펼쳐 나선 저런 일군들을 위하여 텔레비존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에서 감자에 대한 최근 과학기술통보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문건들이 쌓여 있는 의자등받이뒤 창턱에서 책 한권을 집어 드시었다.

《이건 감자재배방법에 대하여 쓴 최근 과학기술자료요. 첫 새벽길에 만난 길동무에게 기념으로 주지. 책을 보며 잘해 보오. 지금은 감자를 통알로 싹 틔워 심는게 추세요. 전작으로 심는 감자인것만큼 여기 산간지대에서도 잘만 하면 두벌 농사를 할수 있소. 농사군은 땅을 묵이지 말아야 하오. 농사군이 땅을 묵인다는건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굶기는거나 마찬가지요.》

그러시면서 두벌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었다.

창하농장으로 들어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 승용차는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정금의 손을 잡아 주시며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길동무가 좋으면 천리도 지척이라더니 벌써 왔구만. 자, 우리 후에 다시 만나지요.》...

그때로부터 반년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강하천기슭을 따라 뻗어 간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였다.

아침이슬이 내려 앉은 토사도로는 금시 살수가 지나간듯 차분하고 청신했다. 도로와 나란히 뚝뚝히 뻗어 간 랑림산줄기는 갈수록 높고 기복이 심했으나 그 기슭에는 하얀 회벽에 빨간 기와를 얹은 단층 문화주택들이 동화세계의 아름다운 꽃집처럼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로는 산릉선을 깎아 층층 쌓은 다락밭이 오선지모

양의 장식띠처럼 길고 긴 산허리들을 휘감았는데 시퍼렇게 거름독이 오른 강냉이포기들이 그우에 무겁게 실려 싱싱 자라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뽕나무밭이다. 깎아 지른듯 솟아 오른 산봉우리 밑까지 뻗뻗하게 심은 뽕나무들이 화살을 날려도 빠질틈 없게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달리는 차창밖으로는 모살이를 끝낸 벼포기들이 자라는 논벌이 길옆에서부터 문화주택앞뜰까지 부채살마냥 펼쳐져 있다. 어디를 보아도 빈 땅, 빈 구석이 없다. 이 땅을 가꾸느라 땀 흘린 사람들의 수고가 력력히 느껴 지는 풍경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에서 잠시 눈길을 떼고 곁에 앉아 있는 진섭을 돌아 보시었다.

《좋은 고장이요. 누가 일하는 농장인지 숨씨가 있소. 통이 크고 알뜰하고...》

《장군님, 여기서부터 창하협동농장입니다. 지난 겨울에 만나 보신 윤정금동무가 관리위원장으로...》

《아, 밭구를 끌고 100리길을 나섰던 동무 말이시?》

장군님께서서는 반가운 안색으로 다시 차창밖을 내다보시었다.

산굽이 하나를 돌아 불시에 차안이 환해 지는 것 같았다. 산릉선을 따라 층층 올려 지는 온실 창유리가 금시 솟아 오른 아침해살을 받아 번뜩인다. 그 금빛후광이 누리를 눈 부시게 한다. 온실앞에 펼쳐진 포전에는 금시 수천수만마리의 나비가 내려 앉아 팔랑이듯 하얀색, 연보라빛의 꽃잎들이 가벼운 미풍에 춤을 춘다.

《저게 감자꽃이 아니요?》

장군님께서서는 차창턱에 몸을 실으며 가벼운 탄성을 올리시었다. 후날 대충단에 들어 가시여 볼 줄 알았던 감자꽃이었다. 그런데 적지도 아닌 이곳에서 벌써 보게 되다니. 감자꽃이 피자면 좀 더 있어야 했다. 더우기 눈 내린 새벽에 뜻 깊게 날라온 감자에서 피여 난 꽃이라는 생각이 드시자 그냥 지나칠수가 없으시었다.

《진섭동무, 우리 저 포전에 잠깐 들렀다 가지요.》

차는 농장으로 가는 길로 꺾어 들었다.

포전에 비쳐 드는 밝은 아침해살, 신록이 짙어 가는 산천, 그림처럼 아름다운 창하마을... 그 모든것이 하얗게 피여 난 감자꽃에 묻혀 있는듯 싶었다.

《산천에 감자꽃이 꼭 어울리누만. 한쪽의 그림 같소.》

포전머리에 서신 장군님께서서는 감자꽃향기라도 맡으시려는듯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었다.

이때 윤정금이 머리수건을 벗으며 황황히 달려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그새 잘 있었소? 이렇게 또 만나누만.》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반가우시여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 주시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차돌처럼 단단하고 웅이 진 손이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래 이 밭에서 어떻게 벌써 감자꽃을 피웠소?》

정금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인사의 말씀 한마디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는데 장군님께서 먼저 치하해 주시니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어 모두어썩 머리수건만 만지작거릴뿐이었다.

그는 곁에 있던 진섭의 귀뺨을 받고서야 서둘러 장군님께 말씀 올리었다.

《높은 산지대이다 보니 봄무우를 내고 감자를 심자면 생육기일이 꼭 한달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온실을 짓고 한달동안 싹을 틔운후 포전으로 내왔습니다.》

《온실에서 한달을 키웠단 말이지. 그거 참 기발한 착상이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주위의 일군들을 둘러 보시었다.

진섭이 한결음 나서며 정금이 감자농사를 위해 애쓰던 일들을 말씀 올리었다.

《모자라는 생육기일을 맞추자니 역시 한달안에 온실공사를 끝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 두었다가 다음해부터 하자고 했으나 정금동무는 이 고장에서도 두벌농사를 할수 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관철을 미룰수 없었습니다.》

온 농장이 펼쳐 나섰습니다. 창하천에 나가 돌을 채취하여 벽체를 쌓기도 하였는데 어쩌나 땅땅 얼어 붙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언 흙덩이를 돌인 줄 알고 품에 싸안고 달려 왔습니다. 마감 단계에 이르러서는 밤새 얼었던 벽체가 낮이 되면 녹아 내려 몇번이나 다시 쌓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나래를 덮어 벽체를 굳히었고 나래가 모자라면 입었던 솜옷을 씌워 가며 공사기일을 보장했습니다. 마감 단계에 이르러서는 밤새 얼었던 벽체가 낮이 되면 녹아 내려 몇번이나 다시 쌓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너인의 몸으로 그 한달을 위해 자연의 횡포를 굽혀 내고 아름다운 감자꽃을 피웠다는것이 대견하시었다.

《그러니까 그 한달이 정금동무의 의지를 시험친 셈이구만. 일두 참, 동무에겐 운명적인 한달이었겠소. 하하...》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포전에 울려 퍼지었다. 그 웃음에 이끌리어 정금은 어려움도 있고 혼자 속을 썩이던 고충까지 그이께 말씀 드리었다. 땅에 감자를 박고 키우는 일은 자신 있었는데 온실을 짓지 못해 제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어쩌나 하던 걱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벽체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앞이라는것도 있고 왕왕 소리 내여 울던 일, 그러는걸 당비서가 등뒤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삽자루로 콧 질러 주어서야 정신 차리
던 일을 비롯하여 그 기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화들을 말씀드리었다.

《그러니 무대에서 실수한 배우에게 연출가가
막뒤에서 귀뜸해 준격이구만.》

그이의 말씀에 또다시 즐거운 웃음이 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금에게 다정한 눈길을 주시었
다.

《남자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용케 해냈소. 이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용단을 내릴 일이 아니요.
정말 많은 일을 했소.》

그이의 거듭되는 치하에 정금은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말씀 올리었다.

《장군님, 이젠 저희들이 생각한것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찬눈길을 헤치시며 최전연무대를 찾
으시여 보아 주신 온실농사를 텔레비존화면을 통
하여 보고서야 계절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
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들이 감히 어떻
게 그런 생각을...》

정금은 불뭉치 같은 뜨거운 걱정이 솟구쳐 올
라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아니, 자그마한 창발성도 피 타는 연구가 없
이는 안되는거요. 일에서 주인답지 못하면 아무
리 좋은 방안을 대주어도 못하는법이지. 하기 싫
은 일엔 오뉴월에도 손발이 시리단격이랄가. 그
러나 일 하자는 사람에겐 언제나 궁냥이 트이는
법이요.》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경제적으로
성까지 가능하듯 포전을 둘러 보시었다. 아침이
슬을 머금고 더욱 싱싱하게 살아 오르는 감자밭,
얼마전까지 이 포전에서는 먹음직한 봄무우가
자랐다고 한다. 밭머리에서 시작된 등성이에는
비탈면을 따라 층층으로 지은 온실이 이 감자밭
의 후견인인듯 무게 있게 틀고 앉아 해빛을 안고
번쩍인다. 보기에다 가슴 후련하다.

그이께서는 엇결은 한손으로 턱을 만지시며 고
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니 이 북부산간지대에서 두벌농사를 지은
셈이구만. 대단하오. 이젠 산간지대농업생산에서
큰 혁명이요.》

그러시고는 정겨운 시선으로 수집음을 타는 처
녀의 두볼처럼 상기된 정금의 얼굴을 바라보시었
다. 바쁜 걸음이었지만 그가 해놓은 일을 다 보
고 싶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르며 오이, 도마
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들이 싱싱 자라는 온
실이며 리미액이 쏟아져 나오는 미생물비료공장의
생산공정까지 일일이 돌아 보신후 창하천가로
나오시었다. 기슭은 바위를 때리며 흐르는 물소
리로 소연했다.

그이께서는 아침대기에 입김을 날리시며 천천
히 기슭을 거니시었다. 내쪽에 심은 콩이파리들

이 무릎노리를 친다. 밟히는 흙도 마치 용단우를
걷는것처럼 부근부근하다. 돌 많은 고장에서 돌
맹이 하나 찾아 볼수 없는 땅이었다. 그 한줄한
줄의 흙에서도 정금의 체취, 그가 이 땅에 뿌린
땀과 열정이 그대로 움아 와 무심히 스쳐 보낼수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얼마간 떨어 저
두손을 모두어 천채 다소곳하고 서 있는 정금을
돌아 보시었다. 별에 타고 흙에 절고 풀물이 들
어 고동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터갈린 손, 문
득 그의 차림새에 주의가 가시었다. 새벽부터 포
전을 돌아 보았는지 짧은 장화와 바지의 무릎언
저리까지 이슬에 젖은 흙으로 매닥질되어 있었다.

달려오면서 급히 내리온 팔소매엔 오래동안 접
히운 자리가 손뽕금의 풍낭처럼 주름 잡혀 있었
다. 바지무릎의 덧기운 자리가 아프게 눈길을 끌
었다. 자그마한 키에 동그스름한 얼굴로 하여 아
련한 감마저 자아내는 그는 한개 농장을 책임진
일꾼이라기보다 해종일 땅을 다루는 평범한 농장
원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가 안은 일감, 그가 걷
는 포전길을 어찌 농장원들에게 비기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위해 무엇인가 도와 주고
싶으시었다.

《정금동무, 무슨 애로되는게 있으면 말해 보
오.》

다소곳하던 정금의 고개가 들리었다. 언제나
눈물이 헤프고 유순해만 보이던 그의 두눈이 섬
광처럼 번뜩 빛난다. 모두어 잡은 그의 두손이
으스스하게 감쳐 진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또박
또박 박력에 넘쳐 있었다.

《장군님, 애로되는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감
만 있으면 됩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면 무슨 일
이든지 다 해내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 멀리 펼쳐
진 감자포전을 바라보시었다. 손과 등여리가 터
지도록 가대기를 끌면서도 더 많은 일감을 찾는
이런 일꾼, 이런 인민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시
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성능 높은 농기계와 기
름을 보내주어야겠다는 절박감을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정금의 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정금동무, 오늘 동무를 보니 정말 기쁘오.》

《장군님!》

정금은 목이 꼭 잡겨 와 말을 잇지 못하였다.
동그스름한 어깨가 가벼이 물결쳤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감
자꽃 피여 난 포전을 둘러 보며 말씀하시었다.

《여기서 감자가 얼마나 날가?》

청신한 아침대기를 쨍쨍 흔들며 유쾌하게 올리
는 그의 음성에 정금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함초롬히 머금은 눈동자에서 밝은 빛이 발산했
다.

《장군님, 저희들이 예상수확고를 잡아 본데 의

하면 정보당 40t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지. 수확을 하면 결실을 꼭 알려주오. 그렇게 할수 있겠소?》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들어 정금의 힘찬 대답에 답례를 보내시었다.

《정말 실농군의 손엔 좋고 나쁜 땅이 따로 없소. 땅이 척박한 여기 산간지대에서 두벌농사를 했다는것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소. 그렇지 않소? 정금동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정금은 얼굴을 붉히었다.

《장군님, 저희들은 그저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엇비듬히 내리그으시었다.

《가르쳐 주어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소. 문제는 사람들, 특히 일군들의 사상정신상태와 각 오정도에 달린거요. 동무는 산간지대에서 두벌농사의 돌파구를 열어 놓았소. 난 동무가 이 진군의 앞장에서 나가는 기수가 되어 주길 바라오.》

장군님께서서는 정금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있기를 축복해 주고 길을 떠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도 크게 자랑할만한 일을 해 놓고도 더 할 일을 못한것만 같아 송구스럽게 서있던 그의 모습을 그려 보느라니 뜨거운 정회가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시었다. 그런 그가 약속한 수확량을 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오늘의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시었다.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인가. 물론 수확량은 산수적개념만은 아니다. 그것은 당과 조국 앞에 한 약속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심은 감자야 계획된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포전에서 어떻게 하나 당의 두벌농사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저들이 애써 심은것이 아닌가.

그 두벌농사를 위해 정금이 바친 땀과 열정이 몇톤의 감자만 못하던 말인가.

정금이 그 가책을 안고 그렇게도 몸부림쳤다는데 사람들의 운명과 지향, 사소한 마음까지도 헤아려야 할 당일군이 어찌면 그럴수 있단 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창밖에서 눈길을 떼고 진섭을 돌아보시었다.

《진섭동무!》 진섭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고뇌의 흔적이 력연했다. 역시 오랜 당일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한마디의 충고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것을 폐부속깊이 느끼고 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더 다른 말씀을 얹으시었다. 느끼면 고치는것이다.

《진섭동무,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래일 아침 정금동무에게 들려 보지요.》

장군님의 뜻밖의 말씀에 진섭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장군님, 제가 앞으로 일을 잘하겠습니다. 정금동무에게도 잘 말해 주겠습니다. 래일 가셔야 할 로정이 멀고 험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섭의 안타까운 청을 못 들으신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를 곁으로 부르시었다.

《진섭동무, 여기에 와서 저길 좀 보오.》

저 멀리 푸릿이 보이는 산골짜기에서 강렬한 용접섬광이 어두운 허공을 찢며 하늘로 치솟았다. 좁전에 구내방송이 울려 오던 공장인듯 싶다.

《얼마나 장쾌하오. 역시 밤을 모르는 고장이요. 나는 저 백광이 당을 받드는 이 고장 사람들의 열정의 분출로 느껴 지누만.》

그이께서는 진섭의 손을 당겨 잡고 그 거세찬 전류의 동음을 들으시려는듯 조용히 서시여 밤하늘로 즐기차게 뻗어 올라 가는 용접섬광을 바라보시다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진섭동무,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진정과 믿음이 아니겠소. 난 요즘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에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에 나가시여 그곳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 하시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국이 겪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하시며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 주시던 일이 밝혀 와 잠을 이룰수 없소. 어려움은 지금도 다름바 없소. 우리는 이속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하오. 많은것이 부족하지만 인민은 당을 믿고 만단을 극복하며 말 그대로 결사전을 벌리고 있소. 한번 믿음을 주면 열, 백으로 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키워 주신 우리 인민이요. 나라고 왜 피곤을 모르겠소. 어떤 때는 실컷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도 하며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오. 그러나 나에겐 그럴 권리가 없소. 당을 믿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구보행군을 하고 있는 인민들의 충직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심정이요.》

《장군님!》

진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저 가슴만 벅차 오를뿐 다른 말씀을 드릴수 없었다.

이른 아침, 승용차는 창하농장이 시작되는 길 어구에 들어 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을 내리우시었다. 산기슭의 아담한 마을들이 엷은 아침안개에 싸여 있었다.

물안개 피어 오르는 창하천가에서 여러명의 청년들이 왁작 떠들며 대며 랑수마찰을 하고 있었다. 무릎 치는 물속에 발을 잠그고 세판게 수건문다짐을 하는데 펑펑 불거져 나온 구리빛 동가슴들이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린다. 거름지게들이 기슭에 주련이 놓여 있는것을 보아 새벽작업을

하고난 모양이다.

한몫이를 돌아 이번엔 처녀들이 나타났다. 물가에서 삽을 씻고 세수를 하면서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마냥 웃고 떠드는데 어느새 머리까지 감은 처녀들은 너럭바위우에 앉아 머리단장에 화장을 하느라 걸 사람 돌아 볼 새도 없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로동의 희열과 생활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싶도록 가슴을 찡 열리게 하는 정경이었다.

그이께서는 어제 밤에 보신 용접선팅에 이어 약동으로 새날을 맞는 농장의 류다른 정취를 느끼자 심신마저 거뜬해 지시었다.

(얼마나 좋은 아침인가. 그런데 정금동무는 어떻게나 하고 있는지.)

그이께서는 이제 만나보셔야 할 정금의 모습을 그려 보시는데 차는 어느새 티 한점 앓을세라 비질을 한 농장길어구에 이르러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 분홍빛, 흰빛, 연보라빛 꽃을 활짝 피운 코스모스가 허리치게 늘어선 둔덕길로 오르시었다. 진섭이 한발 앞서 농장으로 달려 가려 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저으시었다.

《우리 조용히 들어 가지요.》

앞서 걸던 장군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저쪽 창하천가의 파헤쳐진 웅덩이에서 한줄기의 흰 연기가 실실 피어 오르고 있었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가끔 돌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길옆에서 가지쳐 나간 소로길로 들어 서시었다. 아침이슬이 순식간에 장군님의 신발을 적시고 이름 모를 풀씨들이 이슬과 함께 바지자락을 어지럽히였으나 그이께서는 그대로 걸음을 쫓으시었다. 그곳에 한걸음 먼저 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따라 서는 일군들에게 조용하라고 손가락을 세워 입에 대시고는 웅덩이를 내려다 보시었다. 침빙이는 물소리, 떨거이는 돌소리...

웅덩이를 넓혀 나가는 정금의 모습은 일로써 자기의 정력을 탕진해 버리려는 필사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밤새껏 웅덩이를 밝히며 피어 올랐을 모닥불이 하얀 재를 쓰고 마지막실연기를 울리고 있었다.

커다란 돌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려고 허리를 펴던 정금이 일어 붙은듯 한자리에 굳어 졌다. 놀라움에 커지는 눈, 다음은 핑그르르 물기가 어리더니 두손으로 들어 올렸던 돌이 철썹 물우에 떨어 졌다. 튀어 오른 흙탕물이 그의 옷과 얼굴에 총알자국 같은 얼룩을 남겨 놓았다.

《장군님!》

정금은 목 메어 부르짖으며 선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왜 혼자 일하오? 자, 어서 올라 오오.》

장군님께서서는 흙무지에 올라 서시여 헤덤비며 웅덩이에서 나오는 정금에게 손을 내미시었다.

《장군님, 손이 어지럽습니다.》

《일 없소. 일하는 손이 그렇지. 자, 어서!》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혀 정금의 손을 잡아 끌어 올리시었다. 어지러운 차림새로 그이의 앞에 서게 된 정금은 몸 둘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정금이와의 상봉은 이렇게 일감을 부여 안고 모지름 쓰는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위해 주고 싶으시었다.

《어서 신을 신소. 산골물이 돼서 발이 시리겠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신발을 신는 정금의 모습을 유심히 살며 보시었다. 땅내가 후끈 끼칠만큼 정력적이고 단단하던 체구가 어딘가 모르게 꺼져 내린 것처럼 탄력이 없어 보였다. 밤 새워 일한때문인지 눈언저리는 검스레해 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짜릿한 아픔이 가슴 한귀를 짊으며 지나가는 아픔을 지그시 누르시며 웅덩이를 굽어 보시었다.

《그런데 이젠 뭘 하자고 하오?》

정금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옷매무시며 씻지 못한 손과 발을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몰라 거북스레 나서며 대답을 올리였다.

《우리 농장 남새밭은 이 강하천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슭을 따라 내려 가며 물웅덩이들을 만들어 놓으면 부족되는 관을 보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새밭 관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을 벌려 놓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래쪽에 파놓은 웅덩이들을 보시었다. 그곳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소형발동기의 동음이 울려 왔다. 그걸 이쪽에 옮겨 오면 관을 늘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새포전을 적실수 있을것이였다. 역시 정금이가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일을 제킨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남새포전을 보고 싶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무 말쑈도 앉으시고 쪽우에 올라 서시었다. 눈부리가 시도록 저 멀리 산굽이까지 펼쳐진 남새밭에서는 통이 크고 실한 가을배추가 자라는데 어찌나 푸르싱싱하고 뽀뽀한지 그우를 밟고 지나가도 꺼져 내릴상 싶지 않았다. 바로 그 남새밭을 강하천물을 끌어 올리는 분수식 관수가 뽀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시원스레 적시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였다.

《포전모습이 또 달라졌구만. 멋 있소. 장관이요.》

그이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뒤켠에 서있는 정금을 돌아 보시었다.

《이 포전이 전번에 감자꽃을 피웠던 포전이겠소?》

정금은 고개를 숙이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은 결의 사람도 겨우 가려 들을만큼 들어 가는 소리였다. 감자라는 말이 복잡한 그의 심중을 다친것이라고 생각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시선을 포전쪽으로 돌리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봄무우를 낸데서 감자를 수확하고 이번엔 가을배추가 자라고 있구만...》

그이의 음성이 불시에 토막쳐 지듯 도간도간 끊기였다.

《이 고장에서... 세벌농사란 말이이지.》

그이께서는 뻐근해 오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관수에 젖어 질척한 포전에 한발을 짚으시였다. 허리를 굽혀 물기 머금은 배추잎을 만지는데 그 산뜻하고 야들야들한 촉감이 온몸을 찌르르 하게 한다.

그이의 눈앞에는 문득 마가을바람에 락엽이 흩날리던 잊을수 없는 명문고개가 떠오르시였다.

...승용차는 천천히 고개를 뚫아 올라 갔다. 높고 험하지만 우리 나라의 서북산지대와 서북저지대를 갈라 놓으며 길게 누워 있는 적유령산줄기를 넘나드는 유일한 고개이다. 전설인지 풍설인지 딱히는 알수 없으나 예로부터 내려 오는 말을 들어보면 발을 붙일수 없게 험한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라 사람들이 애 타할 때 고개를 사이에 둔 한쌍의 개가 서로 이 원시림을 뚫아 올랐다고 한다. 짝을 찾는 짐승들의 정사를 어떻게 알라만 개라도 발을 붙였으니 사람들은 그뒤를 따라 길을 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개 이름을 개고개라고 했다던가. 어쨌든 힘들게 낸 길인것만은 사실이다. 한참 치달아 오른것 같은데 아래를 내려다 보면 아까 지나온 길이 훌쩍 내리뛰고 싶도록 층계 한단사이처럼 보인다. 굽이굽이 돌고도는 길옆에는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들이 우거져 달리는 차창에 늘어 진 가지의 그림자를 얼기설기 던지고 있다. 마가을철이어서 가벼운 바람이 한번 스쳐도 넓은잎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와스스 설레인다.

고개마루에 오른 승용차는 스프르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진회색가을양복을 입으신 아버지 수령님께서 내리시였다. 고개마루의 세찬 바람에 수령님의 옷자락이며 반백의 머리칼이 날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저 멀리 물멀기처럼 치솟아 뻗어 간 높고 낮은 천만산악을 바라보시며 떠날념을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지금 어이하여 고개마루에 서시여 떠나는 고장을 왜 그토록 애 타게 바라보시는지 잘 알고 계시였다.

이번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침식을 잇고 여러 부문, 여

러 단위들을 돌아 보시였고 상점과 집집의 장독까지 열어 보시였다. 인민들은 사람 못살 곳으로

알려졌던 이 고장이 수령님 은덕으로 이젠 부러운것 없이 잘 살게 되었으니 더 마음 쓰지 마시라고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말씀 올렸으나 수령님께서서는 걸린 문제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어까지 가며 마음 쓰시였다. 그중의 하나가 김장용담새였다. 이 고장에서는 김장용담새를 평양을 비롯한 낮은 벌지대에서 기차로 실어다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고작 심는다는것이 봄무우, 양배추, 갓 같은것이고 강을 낀 농장들에서 강역에 가을담새를 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간지대 주민들까지 수요를 채운다는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이 고장 역마다에는 담새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시며 그 광경을 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수첩을 펼쳐 드신채 깊은 생각에 잠겨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 고개마루에 이르러서는 끝내 차를 세우시였던것이다.

서편에 떨어 지는 해가 산봉우리너머로 내려앉자 소슬한 기운은 더욱더 옷깃을 찌르며 감겨들었다.

이 시각도 가을바람을 막아 주는 박막과 나래에 의지하여 역앞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이 고장 사람들을 그려 보시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느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심려가 꼭 자신의 불찰로 빚어 진 일만 같으시여 품고 계시던 생각을 말씀 드리였다.

《수령님, 고개를 내리면 즉시 철도사령을 비롯한 담새생산과 수송을 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긴급생산, 긴급수송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도 좋지. 하지만 해마다 이런 역사를 벌릴순 없소. 산이 많은 고장에 살면서 생활상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김장용담새까지 다른데서 실어 온다는건 말이 되지 않소.》

수령님의 음성은 퍼그나 갈리시였다.

《수령님, 농업과학원에서 강력한 연구집단을 무어 여기에 파견하여 이 고장 기후풍토에 맞는 새 품종의 담새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너무도 절절히 울리는 수령님의 말씀에 장군님께서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대답을 올리시였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일이라면 엄동설한에도 푸른 배추밭을 이 땅에 펼쳐 놓을 결심이시였다...

이미전에 그것은 현실로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세벌농사로 지은 담새풍년작황을 보시게 되니 장군님께서서는 이 고장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 써오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한가득 차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손에 묻은 물기를 털넘 얹으시고
꼭 잡겨 든 음성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이 포전에 우리 수령님을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술술 불어 오던 한줄기의 바람조차도 숨 죽인
듯 주위는 삽시에 물 뿌린것처럼 조용해 졌다.
누구인가 센 바람을 맞았을 때처럼 혁 숨을 들이
긋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자그마한 소음의 끈
이 당겨 진듯 여기저기에서 고르롭지 못한 숨소
리가 높았다. 밀물처럼 차오르는 그리움의 파도
였다. 동안이 지났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돌아
서시였다. 제일 먼저 옥땀히게 입술을 감쳐 문
정금의 모습이 눈에 밝히였다. 물기가 번져 진
눈을 습벅이는 그의 모습은 무어라 입을 열면 금
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릴 형상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다소곳한채 두손
을 맞잡고 오열을 씹어 삼키는 정금의 모습과 밝
은 해살이 퍼지기 시작한 마을들을 둘러 보시였
다. 맑고 푸른 하늘엔 구름 한점 없는데 창하천
에서 끌어 올린 분수식판수의 보슬비로 하여 더
더욱 새파랗게 살아 오르는 남새포전우에 오색
령롱한 무지개가 비졌다. 산기슭의 아담한 문화
주택의 빨간 지붕들이며 온실을 덮은 유리들이
아침해빛을 받고 번뜩인다. 얼마나 아름답고 살
기 좋은 고장인가. 날마다 변모되어 가는 산천과
그앞에 서있는 녀인의 모습이 어찌면 그리도 신
통한 조화를 이루는것일까. 그것은 그가 30년간
이 땅을 위해 바친 피와 땀의 열매였다. 자랑 한
마디 할줄 모르는 저 자그마하고 소박한 녀인의
어디에서 그런 힘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솟구
쳐 나오는것일까. 어찌면 그에게는 녀성들이면
의례히 갖추고 있어야 할 화장품 하나 변변한게
없으리란 생각이 드시였다.

쌍태머리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년간 자
기의 온넛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바쳐 온 윤정
금이... 땅을 걸구어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래워
거두어 들이고 집을 짓고... 언제 터갈린 살갗에
크림 한번 제대로 발랐겠으며 해야 할 일감으로
하여 밤잠인들 편히 자보았겠는가. 그 세월의 돌
기돌기가 그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고 오리오리
흰서리를 내리게 했다. 그러니 가족들과 단란한
휴식의 한때조차도 즐겨 보지 못했을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여기로 올 때 진섭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시였다. 정금에게는 대학에 다니
는 아들이 있는데 회의자로 자주 도에 올라 오면
서도 기숙사에 찾아 가 본적이 없어 아들은 동무
들로부터 이북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집에 내려 온 아들의
불만에 정금이 꾸짖었다는 말은 의미심장한것이
였다.

《지금 한사람의 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어린 학생들까지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자고

그 어린 손으로 거름이며 파철을 지어 나르고 있
다. 그런데 넌 뉘냐. 대학에서 밥을 굶기더냐 잠
자리를 안 주더냐. 이 어려운 때에 나라에서 왜
너희들을 책상앞에 앉혀 놓았는지 알아야지. 이
어머니께 아들들을 주자고 따로 건사한 날알은
한알도 없다.》

그 정금이 그러 지자 눈굽이 저려 나시였다.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과 화목한 가정
의 온기를 부여 주고 싶어 하는것이 이 나라 녀
인들의 심정일진대 은금보화를 준다면 그렇게 자
기의 모든것을 바쳐 일을 하겠는가. 마음의 곡절
도 많았다고 한다. 남들의 비난도 받아야 했을것
이고 말 못할 억울함을 눈물속에 씹어 삼켜야 했
을것이다. 그의 걸음을 따르기가 숨 가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한 관리일군도 있었다는데... 그
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 냈다. 마음의 기둥
이 없어야 몇십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변함 없는
자욱을 찍어 왔을가.

장군님께서는 발에서 나오시여 그에게로 다가
가시였다. 그에게 일을 많이 했다고 치하해 주고
싶으시였으나 말씀은 그렇게 나가지 않으시였
다.

《힘들지?》

《장군님, 제가... 일을 쓰게 못하여 면목이...》

정금의 말마디는 씹어 삼키는 오열로 토막났
다.

《그건 무슨 소리요. 동문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소. 나와 한 약속이야 두벌농사로 지은 감자
이지 그 수확량이 아니지 않소. 게다가 동무는
이 산간지대에서 세벌농사까지 실현하지 않았소.

동무가 한 일은 한생 피 타는 노력으로 땅을 받
들려는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요. 나에겐 그 마음이 몇백만톤의 감자보다 더
귀중하오. 왜냐 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
에 못해 낼 일이 없기때문이요. 난 그 마음을 높
이 사자고 오늘 여기에 왔소.》

《장군님!》

정금은 그만에야 참아 오던 눈물을 쏟으며 고
개를 떨구었다. 동그스름한 어깨가 세차게 오르
내렸다. 남편앞에서는 물론 혼자서도 마음 놓고
터치지 못한 울음이였다.

일하느라면 부닥치는 고난, 겹치는 애로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지만 이젠
그런것쯤은 험하니 웃으며 넘길수 있으리만큼
심장이 커졌다. 그러나 당과 조국앞에 지닌 자기
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할 때 겪게 되
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고충을 우리 장군님 아
니고서야 누가 알수 있을텐가.

진섭은 밀물처럼 가슴 한가득 차오르는 걱정을
안고 해빛 넘치는 포전가에 서계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러 보았다. 어이하여 장군님께서 바
쁜 걸음을 돌려 이른 아침에 여기로 오자고 하셨

는지 체득하게 되자 아직도 그이의 심원한 뜻을 받들자면 멀었구나 하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윽한 눈길로 정금의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분위기를 돌려 세우려고 일군들을 돌려 보시였다.

《여기 처음 온 동무들은 저 온실을 못 보았을 거요. 이 교장에 왔다가 세벌농사의 원종장을 보지 못하면 왔던 보람이 없지. 오늘은 내 안내를 하지. 관리위원장동무, 그래도 일 없겠지?》

정금은 황급히 눈굽을 찌고나서 고개를 들었다. 작업하던중이어서 온실이 어지러울텐데...

《장군님, 온실이 변변치 않습니다.》

정금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어 서둘러 말씀 드리는데 그이께서는 벌써 일군들을 이끄시고 온실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계시였다.

《동무들, 이건 결코 구경이 아니요.》

명쾌하게 울리는 그이의 말씨는 정금의 귀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장군님께서는 창하천다리우에 오르시였다.

아침 물안개를 피워 올리며 흐르는 창하천의 물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바위에 부딪치고 계곡에 부대끼며 쉬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그이의 귀전에는 그 물소리가 이 땅을 가꿔 한생을 즐기치게 살아 온 소박한 산골녀인의 뉘는 피와 숨결, 심장의 박동처럼 들리시였다. 무엇인가 잊은것 같아 돌아 보시는데 저 멀리 농장포전에서 서 있는 정금의 모습이 안겨 드시였다. 그를 금방석에 앉힌들 무슨 아가움이 있으랴만 줄수 있는것을 못다 주고 가는 애모쁜 심정이어서 걸음을 옮길수 없으시였다. 이제 떠나자니 그 생각은 더욱 간절해 지시였다.

그래, 저런 사람들을,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모든것을 당에 바친 저런 사람들을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내세우겠는가. 더우기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의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였다고, 누구보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위해 주었기에 너희들의 래일을 위해 한생을 농장벌에서 보냈다고 알려 주고 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돌려 보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윤정금동무에게 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자고 하오. 그가 한 일을 어떻게 말 몇마디에 다 담을수 있겠소. 그러나 영웅이라는 그 고귀한 칭호가 40년간 이 땅에 바친 그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말해 줄것이고 또... 어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밥 한끼 변변히 받아 보지 못한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무엇을 위해 강보에 싸인 자기들을 업어줄새 없이 일했는가를 알게 할거요.》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다리의 란간을 힘 있게 틀어 잡으시였다. 정금에 대한 이야

기를 하시다니니 누르시였던 걱정이 차오르시였다.

그렇다, 산이 깊을수록 수원은 풍부하다. 하물며 시대가 영웅을 낳는 오늘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받들어 자기 한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 가고 있는것인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언덕도 있었지만 한치한치 툭아 오른 그 자욱자욱에서 사람들은 더욱 억세여 졌다. 강철로 버려진 그 억센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강성대국이라는 존엄 높은 이름으로 새로운 세기의 대문을 열어 제끼려 한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년대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투쟁의 기수가 되어 돌격전의 앞장에 섰던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준엄한 정세로 보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양양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각오로 보나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킨 추동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되었던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이 다시한번 지펴 질 때이다. 이 불길을 지펴 올릴 불씨, 도약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장군님께서는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될 제2차 천리마선구자대회에 내세울 첫 선구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 보시였다.

(그래, 산간지대에서 두벌, 세벌농사에 성공한 정금동무도 당당하게 내세울만 하지.)

그날을 그려 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먼 하늘가로 눈길을 주시였다.

이제 그들은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의 뜻과 의지, 조국의 미래를 소리높이 웨칠것이다. 그리고 자신께서 인민앞에 하시는 약속과 부탁도 함께 전할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심장을 묵묵히 바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였다. 푸르른 하늘이 높이 들리였다. 산발들은 단풍이 들기전의 다양한 색채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군.)

그이께서는 이제 넘으셔야 할 아아한 산발들을 바라보시였다. 그 첩첩 준령들이 금시 갈라 서며 어서 오라 부르는것만 같으시였다. 그 너머에 정금기와 같은 우리 당의 보배들이 또 얼마나 많을것인가.

그이께서는 창하천다리를 건느시였다. 쉬임없이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시였다. 아무리 휘저어도 흐릴줄 모르는 깨끗한 산천의 물이 흐르는 소리였다. 어디 가나 잊혀 지지 않을것이었다. 이제 저 흐름은 대하를 이루어 강성대국이라는 무변 광대한 대양으로 흘러 들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힘 있게 걸음을 질으시였다.

다그쳐야 할 걸음이지였다.

명언해설

《민족자주정신이 없는 민족문학은 마치 뼛을 잃은 육체와도 같은것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민족 문학에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하는것이 그 생명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 건설과 창작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의 문학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요구와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민족의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는 형상을 창조하여야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고 자기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뼛이 없는 육체나 같은것처럼 민족문학에 민족자주정신을 잃으면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6월이여 너는 무엇을 새기었던가

림공식

이제는 멀리 저 멀리로
그날은 흘러 갔어도
못 잊을 6월이여
력사의 그날에 너는 무엇을 새기었던가

우리 당이 환희속에 맞이한
감격의 6월이여
이 가슴에 피줄로 이어 진
추억도 뜨거운 6월이여

아,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
승고한 뜻을 안으시고
당중앙청사에 첫 자욱 찍으신
뜻 깊은 6월이여
영광의 그날에
나는 최전연초소 전호가에서
화선입당을 한 병사

그날에 받아 안은
나의 당원중이여
그날에 어머니모습으로
내 가슴에 새겨 진 6월이여
흐르는 세월속에 력사는 가도
너와 나는 우리 장군님을
그때 벌써 우리 당의 태양으로 모셨어라

우리 장군님 우리 당이여
내 당원중에 날리던 붉은 기치우에
변함없이 백두의 기상으로
우리 수령님의 숨결을 이어 주셨다

그날에 쏟아 지던 햇빛
그것은 그날의 미래인 오늘

최고사령관 우리의 **김정일** 동지를 맞이한
우리 당 우리 인민의 그 영광

그날이 없었다면
내 어찌 나의 당원중에
이렇듯 크나큰 세기를 안았으랴
그날이 없었다면
내 오늘처럼 준엄한 나날에
미제의 총칼앞에 맞서는
조국의 땃땃한 모습을 바라볼수 있으랴

6월이여
너는 오직 우리 당
너는 오직 우리 세상
그 어떤 총칼로도 꺾지 못할
너는 우리의 사회주의 붉은 기치
내 당원중에 변함없이 휘날리는
우리의 피 끓는 삶

아아 6월이여
너는 새겼어라
지울수도 내리울수도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인
백두의 그 모습

그래서 너와 떨어 저 살수 없는
나의 붉은 당원중에
나의 운명으로
6월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새겼어라

6월의 총성

리금주

가난에 짓눌리운 키 낮은 초가아래
가물가물 타오르던 등잔불마저
무거운 한숨에 하나 둘 꺼져 가는
보천보의 밤

멀지 않은 가림천가 황철나무아래
빨찌산대장 김장군 오신것도
모르고 깊어 가는 보천보의 밤

6월의 눅눅한 바람은
황철나무가지를 쥐여 흔들고
장군의 발부리엔 하나 둘 떨어 지는
앞사귀 앞사귀

짓밟힌 내 조국
구원을 바라는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런가
장군의 발목에 휘감겨 매달리는
앞사귀 앞사귀
누구보다 이 밤과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신
우리의 **김일성**장군

잠들었구나
나의 땅, 나의 인민
굶주림을 배고 누웠느냐?

설움의 눈물에 젖은채로 누웠느냐?
억압과 멸시의 골짜기에 묻혀
보천보의 모든것이 잠들었구나

이렇게 잠들면 영영 깨어 나지 못하기에
그대들을 깨우려
어둠에 눌린 이 땅을 일으켜 세우려
우리가 왔다
이 밤을 결단 내려
총대에 불을 넣어 가지고
이 나라 아들딸들이 왔다

이제 그 불을 뿜으리라
잠들었던 2천만 겨레를 깨우며
원쑤의 머리위에 타번지는 불길로
어둠을 태우리라
우리의 새날을 불러

장군은 총을 꺼내드신다
원쑤의 숨통을 방아쇠에 거머쥐고
한껏 움츠린 어둠을 향해
새날을 알리는 퇴성인듯
땅!-
보천보의 밤은 끝났다

불길

홍문수

이제라도 밤이 되면
유서 깊은 이 거리에
그날처럼 화광이 충천하고
흰 옷 입은 사람들
김일성장군 만세 부르며 달려 나울것만 같은
혁명의 성지 보천보의 밤

세월이 흘렀다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잊혀 질 그 밤이라
찾아 들 그날의 그 불길이라

쌓이고 쌓였던
망국의 울분을 가서 준 불길이였어라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 질
새 조선의 모습이 비껴 있던 불길이였어라

짓밟힌 겨레를 생각하시며
수령님 지피셨던 사령부의 등잔불이
맹물을 끓이시던 숙영지의 우등불이
보천보의 하늘가에 옮겨 진 그 불길

그 불길은 민족수난의 그날에
활화산의 분출로 터져 오를
조선의 힘

조선의 의지
조선의 넋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세차게 타고 있는 혁명의 불길이어

그 불길 가슴에 안고
우리 세월을 주름 잡아 왔어라
그 불길로
시련의 찬바람을 가시고
원수들의 준동을 짓부시며
넘어 온 영광의 길
헤쳐 온 곧바른 길

그 어떤 광풍도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

우리의 가슴에서 끝수 없는 그 불길
장군님 총대로 빔내주시어
더욱 세차게 타고 있는 그 불길

나는 보노라
나는 듣노라
조선은 살아 있다 웨치며 솟구치던 그 불길
조선은 죽지 않았다 솟구치며 웨치던 그 불길

천만의 가슴속에 타번저
우리를 불 붙여 가는
아 영원한 조선의 불길
영원한 우리 혁명의 불길을!

동지

박두천

생은 끝났어도
끝나지 않는것이 영생이던가
오늘도 주작봉마루에
열혈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김철주동지

고향 만경대는
여기서 지척이건만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오늘도 붉은기의 언덕을
내려 서지 못하고 계시는가

수령님으로부터
새 임무를 받으시는듯
근엄하신 모습으로 서계시는
그이의 영채 도는 눈빛에선
우리 혁명의 밝은 래일이
빛발치고 있어라

수령님의 친동생이시기전에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였기에
형제의 의리가 아니라
혁명동지의 의리로
삶의 순간순간을
그이는 불같이 살아 오셨다

서계시는 대돌아래선
대전자습격전투의 총소리

오늘도 들려 오고
반일부대 찾아 가시던
그날의 말파리는
오늘도 연길의 험산준령을 넘어
달리고 또 달리나니

6월에 탄생하시어
그 6월에 영생의 언덕인
주작봉마루에 오르신 김철주동지
해마다 그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6월의 동지로 찾아 왔어라

래일도 영원히
그이는 한모습으로 서계시리
만경대가문의 둘째만이 아닌
우리 수령님의 참된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 수령님께 충직했던
혁명동지의 참모습으로

그이의 어깨너머 붉은기 보여 온다
그 기폭의 펄럭임소리는 동지애의 노래
우리 그 노래 부르며
김정일장군님 끝까지 따라 서리
오 우리앞에 기발처럼 영원히 서계실
김철주동지이시여!

위대한 정치가 낳은 20 세기의 기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장희숙

인류의 역사와 운명에 지울수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20세기! 그 20세기도 어느덧 저물고 새 세기의 첫해가 흘러 가고 있다.

허나 우리는 20세기를 평범하게 흘러 간 역사의 한페이지로 가볍게 번져 놓지 못한다. 우리 조국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변과 변혁들을 아로새기었고 창조의 금자탑들을 이 땅위에 일떠세운 세기였던가.

잊을수 없는 추억의 닻을 올려 세월을 거슬러 올라 가면 그 거대한 웅자로 세기의 언덕우에 우뚝 솟은 서해갑문에도 이르게 된다.

은 세계가 20세기의 대기적이라고 경탄해 마지 않는 서해갑문! 사품치는 20리 날바다를 길들이고 거연히 솟아 올라 로동당시대와 조선인민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는 서해갑문의 위용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새로 창작한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서해전역》(박태수)은 사람들모두가 무한한 감회속에 되새겨 보게 되는 이 위대한 창조물이 가지는 거대한 의미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고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1. 위대한 심장에 대한 송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서해전역》은 무엇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심장에 대한 다할 없는 송가이다.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1980년대 초엽은 온 나라가 남포갑문(당시의 명칭)건설소식으로 해가 뜨고 달이 지던 시기였다.

광포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제멋대로 날뛰는 망망한 20리 날바다우에 갑문을 건설한다! 거창한 사변을 두고 사람들은 놀라와도 했고 우려도 했으며 경탄도 하였다. 그런데 더욱 사람들을 놀래운것은 그것을 5년간에 완공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이였다.

수리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수리공학자 로베르 바넬은 조선에서 갑문건설은 적어도 반세기가 걸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설이가 내놓은 20년안도 고무풍선을 타고 별을 따라 가겠다는 어리석은 꾀변으로, 망상으로 받아 들인다.

그런데 5년이란다! 바넬은 하느님만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고 하면서 아예 믿지를 않는다.

그러나 조선은 그의 예상을 뒤집어 옅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위용을 당당하게 펼치며 거연히 솟아 올랐던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사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면서 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데 형상의 기본초점을 돌리고 있다.

장편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가슴 뜨거운 장면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수령님께서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자신의 예견과 너무도 차이나는듯 <무어, 20년?...> 하며 놀라시더니 한참후 마치 남의 소리라도 하는것 같은 서글픈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20년이면 금세기안으로 힘들다는 소린데... 그러니 우리는 그 갑문이 완공되는걸 보지 못하겠구만...>

<!...>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서늘하고 눈앞이 아득해 지는것 같으시였다. 20년안이 자신의 견해는 아니라고 해도 수령님께서 이토록 실망하시니 그이로서는 당혹감과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이 괴롭고 복잡하시였다. 수령님을 이토록 섭섭케 하신 자책도 크거니와 문제의 20년안을 대신할 시원한 대답을 당장 드리지 못하는것이 또한 안타까우시였다. 아, 100만 대적과 맞서서도 죽음에 대해서만은 생각지 않으셨다는 수령님이신데 얼마나 실망이 크면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랴.》

순간이나마 수령님을 섭섭케 한데 대한 장군님의 괴롭고 복잡한 심리세계가 얼마나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평생을 오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만을 위하여 바쳐 오신 수령님이시다.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오직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던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동서해를 하나의 대운하로 련결시킬 대 국토건설을 구상하고 계시였던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숙원이 깃들어 있는 이 국토건설구상이 남포갑문건설이라는 웅대한 대 자연개조사업으로 현실화되었으나 그 기간이 20년이러니...

수령님께서서는 나이야 어떻게 속이겠는가, 그래서 인생길이 급해 졌다고 하시며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셨던것이다.

이런 정황하에서 모든 사색과 활동을 오로지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관철하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다. 당의 결심으로 내밀어 5년만에 갑문건설을 완공하고 수령님께서 꼭 완공테프를 끊으시게 하자!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포성 없는 이 《건설전쟁》의 총사령관직을 스스로 맡으시고 그 진두에 나서시었던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렇듯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류레 없는 기적을 창조한 서해갑문건설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분출된 충실성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심오한 철리로 형상하고 있다.

당의 결심으로 끄떡없이 건설을 내미시는 철의 의지와 산악 같은 배심, 준전시상태의 준엄한 시기에도 갑문건설만은 중단함이 없이 강하게 내미시는 드세찬 공격정신, 건설전투의 중심목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력량을 집중하시는 탁월한 예지와 령도력... 갑문건설과정에 그이께서 발휘하신 이 모든 성격적특질들과 정치실력은 바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활화산처럼 뜨거우신 충실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장편소설에서는 감동 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충실성의 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는 내면심리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특징적인것은 내면심리세계를 투시한다고 하면서 미문장으로 분석하거나 멋을 부리지 않고 소박한 필체로 심리적내용의 기본핵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이 작가의 묘사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하다.

그러면서도 장군님의 심리세계가 극적으로 깊이 있게 안겨 오는것이 인상적이다.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에서 극을 옹게 찾아 쥐고 깊이 있게 탐구하여 들어 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반드시시키고 세계가 믿지 않는 5년간의 갑문건설전투를 직접 맡아 나서는 장군님의 대응단, 이자체가 벌써 극적이며 극적체험세계의 발현인것이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날바다위에 갑문을 일떠세운다는 사실자체가 극적인 사변이며 이 과정에 체험하시게 되는 장군님의 복잡다단한 심리세계야말로 얼마나 강렬한 극성으로 충만된 극적체험세계인가!

작가는 이런 극성에 토대하여 장군님의 심리세계를 진실하게 탐구하여 묘사하고 있기때문에 비록 많은 장면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가 뚜렷이 부각되었던것이다.

세기적창조물을 탄생시킨 위대한 심장에 대한 진실한 노래, 위인찬가! 장편소설 《서해전역》은

감명 깊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이를 확증하고 있다.

2. 위인의 정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서해전역》이 달성한 또 하나의 사상에술적성과는 위대한 정치가, 령도의 거장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성을 훌륭하게 형상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습니다.》

서해갑문이 건설되던 그 시기에는 아직 선군정치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편소설의 폐지를 번질수록 독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그때에 벌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라는 위력한 보검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오시였다는 력사적진실을 가슴 뿌듯이 새겨 안게 된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 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장편소설 《서해전역》에서는 위대한 정치가, 령도자로서의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이 장편소설에서 작가는 우선 세계적인 갑문을 일떠세우신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형상하면서 장군님께서 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게 된 요인에 대하여 깊이 해명하고 있다.

특히 이 장편소설은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하는것으로써 이에 훌륭한 답변을 주고 있다.

소설에도 뜨겁게 형상되어 있는것처럼 건설을 군대가 맡은 이상 해내리라는것, 이것이 바로 인민군대에 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믿음이며 사랑이다.

그러면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무엇을 그리도 믿으셨는가.

장편소설에서는 송철만소장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건설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한 혁명적군인정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고 대답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굳게 믿으시고 그이께서 군인들에게 갑문건설을 맡기셨음을 감명깊이 형상하고 있다.

갑문건설국장의 중책을 지닌 송철만의 형상은 이에 대한 생동한 형상으로 된다.

어제날의 머슴군이었던 송철만, 그는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어엿한 장령으로 자라났으며 오늘에는 갑문건설의 총 책임을 진 국장으로까지 된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전에 의리였으

며 그의 온 생애를 관통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흥정할줄을 모르며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다. 그의 이런 성격적특질은 갑문건설국장의 임무를 받는 장면에서 진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는줄 알고 평양으로 올라왔던 송철만은 뜻밖에도 장군님으로부터 남포갑문건설국장이라는 생소한 과업을 받게 된다.

첫 순간 너무도 뜻밖이고 놀라와 벌떡 일어 서기까지 하였던 송철만, 그의 얼굴은 당황함과 놀라움에 벌겋게 상기된다. 집행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임무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복잡한 내부적심리과동을 이겨 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웅글은 목소리로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당의 신임에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하고.

송철만의 이 대답은 결코 단순하게 접수되고 그 무슨 대책안이 있어서 내려진 결심은 아니었다. 그는 당에서 결심한 이상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 하나로 명령을 접수하였던것이다.

송철만의 성격을 보여 주는 이 장면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고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그 어떤 조건에서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결사의 각오-혁명적군인정신을 투철하게 소유한 우리 인민군 전체 군인들의 정신세계를 일반화한 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송철만소장의 그 각오만으로도 벌써 갑문은 절반이상 건설했다고 그토록 기뻐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굳게 믿으시고 갑문건설이라는 《건설전쟁》을 진행하셨던것이다.

인민군대에 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하여 선군령도의 위력을 보여준 여기에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무게 있게 창조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또한 갑문건설에 바쳐진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을 사실주의적으로 펼침으로써 결출한 령도자, 창조의 영재로서의 풍모를 다면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수령의 위대한 령도풍모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방법으로 풀어 나가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장편소설 《서해전역》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형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이 장편소설의 기본선은 물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선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송철만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갑문건설과정선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면 갑문건설과정선과 장군님의 령도선을

어떻게 튼튼히 맞물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주도적위치에서 뚜렷이 부각시킬것인가? 창작실천상문제는 이렇게 선다.

작가는 이 장편소설에서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창작적요구에 기초하여 실천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여 형상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갑문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시련의 중요계기들과 정황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해결되는 중점적인 대목들을 설정하고 형상의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그이의 령도선으로 구성의 대를 세우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집중적으로 형상한 부분들이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지만 장군님의 령도선으로 작품의 줄거리가 일관성 있게 관통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의 폐지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력을 보여주는 감명 깊은 생활들이 건설과정의 주요계기들마다에 설정되어 집중적으로 형상되고 있다. 첫 계기는 장군님께서 송철만에게 립체전의 공법을 가르쳐 주시는 생활이다.

송철만국장은 각오도 높고 열의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 거대한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제껴야 할지 뚜렷한 묘술을 찾지 못하고 모대기기만 한다. 그가 두려움과 불안감에 모대기며 갈팡질팡할 때 장군님께서서는 빛나는 예지로 립체전의 공법에 대하여 퇴위 주신다.

현대지상전에서 보병과 포병, 비행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하나의 적을 지상과 해상, 하늘에서까지 일격에 타격소멸하듯이 동일한 시간안에 가물막이도 하고 언제공사도 하며 함형부재도 만들어 조립하는 식으로 모든 공사대상을 같이 밀고 나가면서 궁극에는 이동식전진이라는 원칙에 복종되게 작전을 짜는것! 이것이 바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립체적공법의 진수였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갑문건설을 하나의 군사작전대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장군님의 말씀에 송철만은 귀가 번쩍 트이며 무릎을 치고 일어 선다. 군인이었던 그는 갑문건설을 군사작전대상으로 파악하자 벌써 신심이 생겼던것이다.

다음계기는 장군님께서 건설의 기본목표를 정해 주시는 생활이다.

건설과정에 송철만은 립체전을 한다고 하면서 주공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평균주의를 하여 혼란을 조성한다. 일을 벌려만 놓고 어느 부분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민감하게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송철만에게 갑문건설을 하나의 전역으로 본다면 가물막이공사, 물빼기, 갑실, 언제공사가 기본이라고 주공목표를 설정하여 주시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 주신다.

인민무력부와 국가건설위원회와의 협동작전이 잘 안될 때도 당지도소조를 파견하시여 지도력량을 튼튼히 꾸려 주시는 생활, 여러 부문 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의 현장견학을 조직하시고는 그들이 자진하여 갑문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하도록 하시는 생활, 음료수가 떨어 저 군인들이 《소금밥》을 먹는 사실을 대변에 포착하시고 신덕수를 끌어다 음료수로 공급하여 주시는 생활 등 갑문건설의 주요계기마다에서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력은 장편소설의 주선을 뚜렷이 이루면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는 서해갑문건설을 성공시킨 위력한 보검이다. 그 보검으로 하여 서해갑문이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섰으니 위인의 정치는 바로 20세기의 대기적을 창조하였던것이다.

장편소설 《서해전역》은 바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력사가 증명한 이 위대한 진리를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3. 서해의 푸른 물에 새겨 진 영웅들의 서사시는...

장편소설 《서해전역》에는 영예군인시인 김시권이 들끓는 건설현장에서 방송마이크로 격동적인 즉흥시를 읊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

그렇다, 병사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리니
쓰자, 새기자, 여기 바다밑에
조국을 위한, 당을 위한, 수령님을 위한
영웅들의 서사시를!

시에도 노래되어 있듯이 서해갑문건설은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피땀으로 엮은 영웅서사시였다. 건설공사기간 근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이를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장편소설에 형성된 인민군병사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든 인물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전형화된것이다.

서해갑문건설장이 말 그대로 총포성 없는 하나의 전쟁일진대 거기에서 투쟁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성격이 어찌 영웅적이지 아닐수 있겠는가!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수도 있으리라. 물론 옳은 말이다. 환경과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도 있으니...

그러나 장편소설 《서해전역》에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성격을 형상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예술적탐구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그 무엇이 평범한 군인에 불과하였던 군인건설자들을 영웅으로, 영웅적성격의 소유자로 키워냈는가?

《건설전쟁》이라는 비상한 전투적환경인가? 아니면 성격속에 내재하고 있던 영웅적기질의 발현인가?

작가는 소설에서 장령 송철만과 대대장 윤건호, 초기복무사관 박선봉의 성격발전과정선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작품에 형상되어 있듯이 그들은 타고 난 영웅들도 아니며 그 어디서나 흔히 만날수 있는 보통 평범한 군관, 군인들이다.

물론 갑문을 기일내에 완공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데 한 몫하겠다는 각오들은 높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결함도 있으며 영웅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갑문건설을 총 책임진 송철만국장을 보자.

그는 책임성과 집행력이 강한 전형적인 군인이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오랜 건설경험을 가진 일군이다. 그러나 갑문건설을 지휘하면서 능력상의 부족으로 여러가지 오류도 범하고 고민도 한다. 나중에는 국장의 자리에서 물러 서려는 마음의 동요까지도 일으킨다.

그리하여 갑문건설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진우대장은 건설이 진척되지 않자 송철만국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자 심각히 제기한다. 일을 잔뜩 벌려만 놓고 견어쥐지 못하는가 하면 이렇다할 수습책도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것이 그의 론거였다. 이에 대하여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히 생각하신다. 그러시고는 곧장 현장으로 내려 가시여 실패를 료해하시고 송철만에게 공사에서 변혁을 가져 올수 있는 묘술-주공목표타격에 대한 방안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하여 송철만은 그이께서 가르쳐 주신 공법에 의거하여 작전을 새롭게 펴나가며 부상 당한 몸이지만 공사의 마지막까지 담가에 몸을 싣고 전투를 지휘한다. 초기복무사관 박선봉의 형상은 매우 이채롭다.

겉보기에는 싱겁둥이 같은 인상이나 장기명수이며 남달리 승벽심과 자존심이 센 박선봉, 그는 갑문건설장에서 꼭 영웅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영웅주의자》이기도 하다.

남달리 뛰어 나게 일을 하고 소문을 내여 영웅이 되겠다는 조급성때문에 그는 연공으로부터 잠수부가 되겠다고 억지도 쓰며 철배를 손상시키는 등 련속 사고를 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점창고에 화재까지 일으켜 법적제재까지 받는다.

누구나 다 더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보는 그의 운명을 과연 누가 구원하여 주셨는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송철만의 보고를 들으시고 박선봉을 다시 대오에 세워 주시는 대해 같은 믿음을 베푸신다. 그 사랑과 믿음에 목 메여 박선봉은 가장 어려운 잠수부로 복무할것을 결심하고 한몸을 내대여 암초에 걸려 위험할뻔 했던 철배를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무너지려는 제방뚝을 한몸으로 막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는것이다.

대대장 윤건호는 연구사처녀 유정이와의 사랑 때문에 고민도 많고 탐구심도 있는 총각대대장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메마르고 조급하기도 하여 유정이의 공감을 사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군인의 몸이지만 탐구를 거둬들이며 통나무를 쓰지 않는 함형부재를 창안함으로써 부재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킨다. 그리고는 돌이킬수 없는 사고와 희생을 낼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에 자기 한몸을 육탄처럼 내대여 충돌사고를 막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그의 이런 영웅적소행의 추동력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 윤상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 없는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일념이였다.

그의 아버지 윤상설은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찍부터 장군님의 남 다른 신임과 총애를 받아온 일군이였다. 그러나 갑문건설계획작성에서는 장군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본의 아닌 파오를 범한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파오를 비판하는 한편 《처벌》문제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적인 파오보다도 일시적인 착오라고 보시면서 직무에서 떼는 방법으로도 아니라 전공부문인 태천발전소 고문으로 보내어 지도도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배우게 하는 조치를 취하신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갑문건설계획설계를 총 검토하도록 하는 신임을 베푸시며 당지도소조성원으로까지 전전권을 위임하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것이다.

얼마나 변함 없는 사랑과 믿음이신가. 아득히 흘러 간 옛 시절 비단섬에서 첫 인연을 맺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속에서도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대하에 아들인 윤건호가 어찌 한몸을 바치지 않을수 있으랴.

위인의 사랑과 믿음은 시대의 영웅들을 낳는 위대한 품인것이다.

이렇듯 장편소설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성격을 창조하면서 그들을 영웅으로 키운것은 바로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었다는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게 천명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기지는 철학성과 또하나의 사상에 술적성과가 있다.

작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과 벽찬 투쟁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인물들로 개성화하고 있다.

인물들의 개성화에서 작가는 기질적인 측면을 잘 탐구하여 성격적특질을 굴절시키는 수법을 능숙하게 쓰고 있으며 특히는 대조의 수법으로 개성이 강한 인물들의 특질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

송철만국장과 윤상설부위원장의 성격적대조, 박선봉과 장풍산의 성격적대비, 윤건호와 리종각의 기질적대조 등 실례는 많다.

소설에서는 작가적설명보다도 이 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대조시킬수 있는 정황들을 탐구하고 생활장면들에 대한 화폭적묘사로 단번에 개성이 안겨 오도록 형상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단섬에서 장군님을 만나는 정황에서 뚜렷이 대조되는 송철만과 윤상설의 성격적대조, 영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박선봉과 장풍산의 성격적차이, 유정을 놓고 대비되는 윤건호와 리종각의 기질적차이 등은 그 좋은 실례들이다.

여하튼 성격이 파문힐수 있는 대건설장에서의 생산문제를 다루면서 수많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성격을 두드러지게 개성화한 작가의 솜씨는 평가할만 하다.

제나름의 성격과 포부가 있고 사색과 고민도 있었던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피와 땀으로 엮여 진 서해갑문건설의 영웅서사시! 오늘도 서해의 푸른 물결이 전하는 그날의 영웅서사시는 영웅들을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하는 불멸의 서사시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서해전역》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수령형상소설문학의 또하나의 성과작이다.

선군정치, 선군경도의 보검을 틀어 쥐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도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 서계신다. 파도 세찬 서해기슭에 만년대계의 대갑문을 건설하시던 잊을수 없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작가들은 우리 장군님의 이 위대한 형상을 더욱 품위 있고 진실하게 창조하는 길에 온갖 사색과 정열을 다 바치자.

6월 19일에 대한 생각

신경애

밤새 두렵게 깔렸던 어스름이 서서히 옅어 지는 속에 또 하루 새 아침이 푸름푸름 밝아 온다.

아들애의 생일준비로 극성이던 나는 방 안에서 새여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늦잠꾸러기로 매일아침 말썽이던 아들애가 어느새 일어 나 잠옷바람으로 책상에 놓여 있는 탁상일력을 번져 놓는다. 한참이나 들여다 보던 아들애가 누나를 흔들며 깨운다. 그리고는 부시시 눈을 뜬 누나앞에 탁상일력을 불쑥 내보인다.

《자, 어서 읽어 봐.》

《6월 19일 화요일...》

주체53(1964)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

누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애가 으시 대며 말한다.

《봤어. 어때, 내 생일이 멋 있지.》

《응, 정말 네가 부럽구나.》

진심으로 부러워 바라보는 누나의 눈빛과 마주치자 아들애는 일부터 손등으로 코를 뺨 문지르며 더 시뚱해 한다. 장군님 당사업개시날의 의미를 다 알기에는 아직 어린 아들애, 하지만 장군님은 이 세상 제일 최고, 가장 으뜸 가는분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들애인지라 자기 생일이 장군님과 인연을 맺고 있는것이 못내 자랑스러워 온 집안이 떠들썩 경충경충 뛰논다.

애들의 행복스런 거동을 유심히 살피던 할머니는 생일을 맞는 손자애를 꼭 부둥켜 안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야말로 이 세상 복중에 복을 안고 태어난 행복동이로구나.》

복중에 복을 타고 난 행복동이!

좋은 세월속에 태어나 지금껏 알면서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아 안은 사랑이 더 많은 손자애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도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유년시절을 되찾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 어린 진정의 말이다.

그 말을 듣는 나의 가슴은 찢릿해 왔다. 나라 없던 그 세월 가난과 설움속에 태어나 생일조차 모르고 단 한번도 선적 없었던 할머니의 지난 날 이야기가 내 가슴을 파고 든다.

망국의 그 험한 세월 이 땅에 생의 뿌리를 내린 연약한 씨앗, 일찌기 부모를 여의어 의지가 지할곳 없던 씨앗-그것이 지난 날 할머니였다.

봄철의 풀씨마냥 떠돌아 다니던 그 시절 생일 놀이로 법석이는 어느 부자집대문앞을 지날 때

어린 소녀는 생각했다. 나에게도 생일이 있었으면. 과연 내가 태어난 날은 언제이며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어느 보리밭고랑은 아닌지, 아니면 어느 집 처마밑에 내 생일이 있는것이 아닌지...

생일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 생일을 모르는 설움에 어린 소녀는 떠나간 부모를 원망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것을 저주하며 슬개 울었다.

천진스러운 그 시절 가슴속에 어둠만을 안고 산 할머니였기에 해방직후 길가의 조약돌 같은 보잘것 없는 인생, 찢기고 찢겨 멍든 인생을 따 뜻이 감싸주고 보살펴 준 그 품이 고마와 그때부터 오늘까지 당의 젖줄기로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은 날을 자기 생일로 최고 있는것이 아닌가.

남아 준 부모도 딸자식에게 대주지 못했던 생일, 불행으로 엮여 진 생일을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다시 찾은 할머니의 생일.

하나 손자애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 났다.

그것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뜻 깊은 그날에 삶의 첫 출발을 땀으로 얼마나 복 받은 인생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귀중한 사랑의 보육기도 일식으로 갖추어 주시고 갖가지 진귀한 보석들로 《보석주단》을 펼쳐 애기궁전을 꾸려 주신 우리 장군님. 그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세계최상급의 《평양산원》에서 아들애가 고교성을 터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매시각 알면서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은 사랑은 그 얼마인가.

정녕 아들애는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젖줄기로, 자양분으로 하여 세상 부러운것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온 세계를 휩쓴 대정치풍파속에서도, 특히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속에서도 장군님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몇백몇천배로 더욱더 뜨겁게 흘러 들었다. 크나큰 비애속에 잠겨있던 그 7월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피눈물의 바다위에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 주시고 사연 깊은 수박과 포도, 콩우유를 가득가득 실은 차들이 아이들을 찾아 쉽없이 달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심 깊은 사랑,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선군령도의 거룩한 발자국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가장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

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한점 그늘을 몰랐고 조국의 꽃봉오리, 조선의 아름다운 미래로 더 활짝 피어 난것이 아닌가.

세계를 둘러 보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들은 그 얼마인가. 인생의 꽃망울을 터쳤어도 찬눈바람, 비바람속에 속절없이 스러져 처참하고 불쌍한 운명의 희롱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

허나 복을 누리면서도 복속에 복을 모르고 자라는 우리 애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6월 19일!

이날은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치 않은 날이다.

인민 위해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여 한평생 인민에게 행복만을 안겨 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영원토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게 하시려,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수령복을 영원히 대를 이어 지켜 주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오신 력사의 날이다.

그날은 우리의 운명이 지켜 지고 우리 애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약속된 영원한 수령복이 꽃 피난 위대한 날이다.

《어머니, 뭔가 타는것 같아요-》

다급히 찾는 소리에 나는 후닥닥 놀라 손을 재게 놀려 지짐판우의 닭알부침을 뒤적여 놓았다. 마침내 소박한 생일음식을 차려 놓은 나는 창문을 활 열어 제꼈다.

드넓은 전승광장 하늘가에 우리 당기발이 펄럭인다. 마치 그 기폭의 붉은 빛갈로 광장하늘가를 물들이려는듯...

《아, 당기발,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군요.》

언제 피어 보고 말하는 아들애를 나는 높이 추켜 안았다. 그리고 아들애에게 속삭였다.

복 받은 아들아.

오늘은 네가 태어난 날뿐만아니라 너의 희망과 미래까지도 다 약속되어 있는 날이다. 너나 나나 온 식구들, 아니 수령복을 타고 난 **김일성**민족, 우리 인민이 받아 안은 포하나의 생일이요 복 받은 명절임을 부디 잊지 말아라.

소원

권강일

이 땅의 사람들 다름없이
나도 이해에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자랑스러운 일 해놓고 싶어라

맞고 보낸 해들중에도 이해는
우리의 소원대로
아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다그칠
세기의 첫해

내 힘껏 땀 흘리며
일하고 싶어라
전사의 의리를 다하여
이해의 날과 날을 빛내이고 싶어라

아버이장군님
자나깨나 바라시는것은 인민의 행복이어서
올해도 한밤중 그 령시에
수령님과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고
장장 만리 먼 길을 이어 가시거니

헤치시는 그 눈보라를
우리 먼저 다 헤치고
마음 쓰시는 많고 많은 일을
우리 다 헤아려 나르고 싶어라

잠시 휴식도 후날로 미루시는
그 밤 그 길들에
아름다운 위훈의 꽃이 피고
충성의 별들이 빛을 뿌리며

드리고 싶어라 기쁨을
초소도
그이의 뜻대로 다지고 다져
전야도
그이 바라심대로 짝 튀우고 꽃 피워

세상은 바라보리
몰라 보게 변한 우리 조국을
후대들도 이해를 두고
우리 세대를 부러워 이야기하리

내 한생 지은 노래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람스러운 큰 열매를
이해에 주렁 지워 아버지께 드리리

빛내이리
뜻 깊은 이해를
청사에 길이 전할 이해와 함께
아버이장군님을 더욱 높이 모시리

그이는 10 대의 소년이였다

박현철

하늘조차 안 보이는 울창한 밀림속
아직은 한줄기 오솔길도 없었더라
끝없이 가로 막는 진대를 넘어
뒤엎키는 가시덤불 헤쳐야 했던
1956년 6월의 그날...

눈 부신 해벌에 누리는 따스해도
수림속엔 상기도 녹지 않은 하얀 눈
그우에 오금 박듯 발자국을 찍으며
어깨우에 무거운 배낭을 지고
10대의 소년들이 걸고 있었다

오, 대오앞에 붉은기 높이 날리며
유격대의 노래를 군가처럼 부르며
백두산혁명전적지에도
조선의 첫 답사행군대는 이렇게 떠나갔다
6월에도 눈보라 일으키는 밀림의 바다우에
그 대오는 파묻혀 보이지 않았어도
진두에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 서계셨거니

아직은 그 누구도 걸어 보지 못한 길로
첫 자욱을 내시며 열어 가신 길
항일의 전통을 주체의 혈통으로 만대에 이으시려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짊어 지시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력사의 행군길

앞장 서면 어느 때나 고생이 더 많더라
막아 서는 칼벼랑
발목이 묻히는 세월의 묵은 락엽...

우리의 혁명전통 혈통던 종파들인듯
폭폭 밟으시며 앞장 서 넘고 헤치셨나니

자욱자욱 선렬들의 붉은 피 스며 있는
풀마다
이끼마다
나무들마다
소중히 안아 보는 그이의 마음속엔
그날에 벌써 설레이고 있었더라
청봉과 배개봉의 아름다리구호목들
그날에 벌써 그려 지고 있었더라
그옥한 진달래꽃향기에 들먹이는
삼지연호수가의 너전사들 그 군상이...

정녕
항일의 혈전만리 피바다 만리
어버이수령님 헤쳐 가신 발자취 따라
수령님의 천신만고 새기시며 열어 가신 길
그날의 행군대가 지나간 길을 따라
혁명을 생각하며
조국을 생각하며
오늘은 온 나라가 따라 걷는 혁명의 대통로여

하늘도 안 보이는 울창한 밀림속
아직은 한줄기 오솔길도 없었건만
조국과 혁명의 먼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혁명전통고수의 첫길을 여신
아,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10대의 소년이였다
허나 그때 벌써 그이는
조선을 이끄신 장군이시였다!

가사

병사의 사진

리성환

영예관에 나붙은 병사의 사진
고향에도 날아 왔네 경사가 났네
영웅감이 틀림 없다 온 마을이 칭찬하고
모교에도 자랑이라 기쁨 넘쳤네
아 장군님 전사된 영예 떨치는
름름한 그 모습 병사의 사진

앞가슴에 훈장 단 병사의 사진
사랑하는 그 처녀도 받아 안았네
누구에게 보여 줄까 소문나면 어쩌나

그렇지만 가슴속엔 행복이 가득
아 장군님 전사담계 군공을 세운
자랑찬 그 모습 병사의 사진

장군님품에 안긴 병사의 사진
온 나라가 다 보았네 부러워 하네
병사가 간직한 영광의 그 사진
용맹과 위훈으로 불러 준다네
아 장군님 부르시는 결전의 그날
총폭탄영웅될 병사의 사진

오늘의 자력갱생의 의미를 진실하게 보여 준 인상 깊은 형상

김선려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가 밝아 왔다. 시대는 중첩되는 시련을 과감히 뚫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붉은기진군길에 펼쳐 나선 우리 인민에게 삶과 투쟁의 좌표를 새롭게 밝혀 주고 솟구치는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 줄 힘 있는 작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여기에서 의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자력갱생문제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 또다시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 주어야 할 우리 문학앞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의미를 보다 깊이, 보다 새롭게 되새겨 보아야 할 절실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 말하던 자력갱생과 오늘 말하는 자력갱생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의 자력갱생은 어떤 자력갱생인가.

우선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 뒤흔어 진것을 창외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도 아니며 기체가 없으면 맨 주먹으로라도 한다는 식의 자력갱생도 아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대한 기질, 공격정신이 체현되어 있다.

자력갱생을 해도 동면을 위한 소극적인것이 아니라 세계과학기술의 최첨단을 개척하는 근본적인 질적비약의 자력갱생을 한다는 이 벅찬 공격정신이 우리 문학에도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의 자력갱생은 아무것이나 다 제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받아 들일수 없게 된다.

현대공업경제의 특성에 맞게 세계적판도에 진출하여 줄것은 주고 받은것은 받으면서도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궁극적목표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예지, 실리주의적원칙이 놓여 있다.

문을 닫을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열어 놓고 과학기술혁명의 넓은 길을 개척해 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우리 문학의 중심에 뚜렷이 등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얼마전에 발표된 장편소설 《열망》(김문창)의 창작성과를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치고 자력갱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작품이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작품들에서 자력갱생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리 제기되고 해명되어 왔다. 그 어느 시대에서나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인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며 우리 당과 혁명을 수호하였으며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앞날을 개척하여 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 《시련속에서》의 주인공들이 그러하였고 천리마대고조시기 《평양시간》의 주인공들이 그러하였으며 70년대 《불바람》의 주인공들, 80년대, 90년대 로동계급을 형상한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이 다 그러하였다.

하지만 로동계급형상소설에 일관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력갱생문제는 시대적현실과 지향에 따라 언제나 구체적으로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특색있게 해명됨으로써 작품마다 자기의 고유한 사상미학적가치를 체현할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현 시기 자력갱생문제는 어떻게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하는가.

장편소설 《열망》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직 독자들과 심장을 맞대고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시대적높이에서 힘 있게 천명하려는 열망이 작가의 창작적의도였다고 볼수 있다.

작품에는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인 주인공 전영범이 기사장 강형모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다.

《기사장동무... 선압기에 대해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기사장동무는 큰 기업소 책임일군인데 장군님께서 왜 우리 기업소에 선압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셨는지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런 과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모두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짜 자력갱생할줄 아는 사람들로 키워 주려고 그러신것이라고 봅니다.

... 오늘의 자력갱생은 그저 걸리는것을 구멍땀때기식으로 메꾸거나 하면서 단순히 제기되는 난관이나 극복하는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최후승리를 위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는 자력갱생이란 말입니다....》

전영범의 말대로 오늘의 자력갱생은 단순히 엄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동면》이 아니라 강성대국으로의 보다 높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주동적인 공격전인것이다.

여기에 바로 소설이 제기한 날카롭고 심오한 사회문제제성이 있고 생활의 진실을 깊이 있게 보여 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겹쳐 드는 자연재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등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과 난관 속에서 우리 인민이 높이 쳐든 자력갱생의 마치에는 어려울수록 더욱 높은 목표, 더 억센 락관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을 군력에서도 경제력에서도 과학기술에서도 최고의 높이에 이른 강성대국으로 보란듯이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패의 의지와 신념이 구현되어 있는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세계에서 제일가는 강성대국을 건설해서 온 세상에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리라, 바로 이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기에 전영범을 비롯한 희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설계부터 공장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하여 최첨단기계인 선압기생산을 기어이 제 힘으로 해내고야 말았던것이다. 이 과정에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부임되어 온 전영범은 제일 걸린 고리가 지도일군들속에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자력갱생문제를 놓고 기업소의 두 지도일군인 지배인과 기사장이 왜 이처럼 호흡이 잘 맞지 않았는가...

지배인은 나라의 형편이 류레없이 어렵고 간교하지만 신심이 확고하고 과학적실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목표와 지향이 뚜렷했으며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높이 발전하고 비약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는 래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속에서 살고 있었다. 반면에 기사장은 래일에 대한 신심을 잃고 있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수준의 담대한 목표와 지향이 없이 되는대로 살아 가고 있었다. 지배인은 온순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진짜 자력갱생할줄 아는 일군이였다. 반면에 기사장은 큰소리를 잘 치고 주먹이 센듯 하였지만 지난 시기 마구잡이로 해먹던 경험에만 매달리는 일군이였다.

다시말하여 지배인의 자력갱생은 위대한 장군님식의 공격형의 자력갱생이고 기사장의 《자력갱생》은 동면하는 인간들의 방어의 《자력갱생》이였다. 지배인의 편에는 제 힘으로 가열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는 한옥련, 대담하게 선압기생산의 《주공전선》을 맡아 나선 김형우와 우리 로동계급이 서 있다. 그러나 기사장편에는 아무도 없다. 그에게는 과거와 오늘은 있어도 미래가 없는것이다.

어려운 시기 우리는 자력갱생을 해도 세계의 맨 앞장에 나서기 위한 자력갱생을 한다는 긍지

높은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 자포자기하는 비관과 타락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 지고 만다. 이 믿음은 바로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시는것이다.

김형우직장장이 고난의 시기 엄마를 잃은 두 아이와 살면서도 것처럼 주강직장의 자력갱생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희생하고 나중에 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자기결에 제시면서 자기를 지켜 보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아직은 몇개 나라밖에 못 만든다는 그 고도의 최첨단설비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만든다는 드높은 긍지가 있었기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우리 당이 안겨 준 자력갱생의 정신이 창조한 기적적인 현실의 본질에 깊이 파고 들어 가면서 형상의 초점을 당일군, 행정일군의 관계에 두고 조금도 미화분식함이 없이 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합을 내놓고 비판하면서도 비판 그자체를 목적으로 삼은것이 아니라 보다먼저 현실공정의 열정을 안고 긍정적인것, 혁신적인것의 승리를 긍지높이 보여 주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자력갱생문제를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풀어 나가려면 마땅히 지도일군문제부터 풀려야 한다. 그것은 지도일군들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당당히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순결한 지향과 열정을 그대로 불 태워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쫓 피우는 투쟁의 맨 앞장에서 빛이 되고 열이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기계공업부 부총국장 양리찬처럼 나라사정은 어찌되든 인민이야 어떻게 살든 일신의 안락과 공명을 추구하면서 최첨단설비인 선압기생산과제를 우리 로동계급에게 맡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 관철에 투신할 대신 적당히 자리지킴이나 하며 살아가는 일군들이 적지 않은것이다.

현실의 이러한 실태를 뼈속깊이 절감한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서 지도일군들을 결코 리상화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 지배인 최관형, 기사장 강형모들이 다같이 심각한 결합을 가지고 있었고 당비서 전영범 역시 자체로 종합채탄기를 생산하려는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내밀기만 했던 나머지 결국 쓸수 없는 종합채탄기를 만들어 나라의 귀중한 로력을 낭비하였을뿐아니라 진실밖에 모르는 한 기술자의 량심에 마구 칼질을 해대며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들어 준 엄중한 결합도 가지고 있었다. 다시는 그런 파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결심을 안고 공장에 온 전영범은 처음에 내밀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장의 편에 서서 사업을 많이 조직했다. 그러던 그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과정에 실속 있게 일해 나가는 지배인의 일본새가 진짜 자력갱생이며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는것

임을 알게 된다. 기술에 밝은 최관형지배인은 한 가지 일을 해도 실리를 따져 가며 옳바로 일할 줄 아는 유능한 경제일꾼이었다. 관형은 자력갱생이라고 하여 뒤떨어 진 방식으로 재생전국이나 만들어 쓰자는 기사장의 안을 반대하며 수입해서 유리한것은수입해 쓰면서도 현대적인 선압기설계와 제작을 철저히 우리 식대로 실현할 현실적인 안을 내놓는것이다.

이런 지배인을 당적으로 도우면서 전영범은 일꾼들과 노동자들과 합의하여 지배인이 작성한 자력갱생안을 적극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공장에 온 첫날부터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 진 그는 기업소생산단위의 가장 어려운 모퉁이마다에서 대중을 힘 있게 선도하면서 일꾼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 주었다. 간부라고 하여 권세와 특전을 부리고 남보다 더 잘 먹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항상 식구들을 가르치며 명절용부식물도 노동자들에게 차례진것만큼 내놓고 되돌려 보내였고 제대된 아들을 공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가열로, 전기로앞에 내세우고 가열공처녀를 머느리로 삼는다.

아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결사옹위하는데서 온 공장을 그대로 총폭탄으로 되게 하려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 당일군의 이 숭고한 모범이 있음으로 하여 구멍땀때기식으로 망탕 일하던 기사장은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선압기생산에 적극 펼쳐 나선다. 주강직장의 《차단봉》이던 윤병암직장장도 생산현장에서 자신을 뉘우치고 제 힘으로 베트를 비롯한 선압기소재들을 성과적으로 부어 낸다. 당비서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 지배인도 이따금 술을 지내 먹는 결함을 고치며 양리찬부국장도 혁명은 안중에도 없이 제살 궁리만 하던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갱생의 길에 들어 선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는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지도일꾼들이 서 있으며 특히 당일군이 우리 인민이 지닌 열망의 진정한 체현자로 되고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밝혀 냈다.

나아가서 소설은 지도일꾼들이 우리 인민이 지닌 열망의 진정한 체현자가 되고 진정으로 자력갱생하는 일군이 되자면 과학기술을 알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당 과학중시사상을 반영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소설의 중심인물들인 전영범, 최관형, 강형모, 한석민들의 인간관계속에 인간의 운명문제와 결부되어 심각하게 설정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최첨단과학기술분야인 선압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은 우리가 일떠세우는 주체의 강성대국이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강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담대한 신념과 의지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7개 나라에서밖에 못 만든다는 선압기를 우리 나라가 만든다는것, 그것도 《고난의 행군》시기에 만든다는것은 실로 상상키 어려운것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자력갱생은 단순히 먹고 살아가기 위한 자력갱생이 아니라 당당히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나래쳐 오르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비약이며 전진인것이다.

그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 안은 전영범이였기에 기업소적으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리며 생산의 주인인 주강직장장 김형우와 가열로작업반장 한옥련을 비롯한 노동자들속에서 가치 있는 발명과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그는 종합채탄기문제에 대한 자기의 그릇된 처사로 10여년전부터 운명의 곡절을 겪으면서 설계실을 떠나야 했던 한석민을 몇번씩 찾아가 오래전의 잘못도 허심하게 빌고 거듭거듭 일깨워 주어 선압기설계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을뿐아니라 실련을 당하고 어머니에게로 가려고 공장에 내려온 전우의 딸 안명신기사와 선압기 유압변에 대한 사대주의병때문에 연구소에서 혁명화대상으로 락인되였던 강필훈기사를 적극 인입하여 그들에게 선압기의 심장부로 되는 유압계통생산을 대담하게 맡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드는 데서 참된 충신이 되려는 전영범당비서와 최관형지배인들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업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패배주의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고 완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으로 설계하며 창조해 낸 선압기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 나는것이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이 특별히 강한 감명을 받는것은 과학을 모르고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지도일꾼들의 무지가 낳는 결발림의 《열성》이 성실한 인간들의 운명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를 예리하게 밝혀 낸것이다. 이런 《열성》스러운 일꾼들밑에서 한석민과 같은 기술자들의 량심이 짓밟히고 모욕 받고 이지러진 지성의 몸부림속에 귀중한 재능이 썩고 있다. 바로 이것을 가슴 아파 여긴 전영범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한석민을 선압기설계에 인입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정의 운명을 구원해 주는것이다.

그렇다. 이들의 형상은 바로 오늘날 김정일동지와 뜻을 같이 하는 충신은 과학을 알고 과학을 중시하는 실력가라는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과학기술이야말로 가장 어려운속에서 우리 경제가 솟구치게 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닦게 하는 위력한 자력갱생의 무기임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의의 있는 형상인것이다.

소설이 이처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어려웠

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을 전제로 하는 자력갱생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자칫하면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긍정인물들의 형상이 비진실하게 리상화될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소설은 상식을 초월한 형상을 그려 냈다.

누가 조선에서 생존 그자체가 절박한 초미의 문제로 나선 《고난의 행군》 시기에 현대적인 기술개건을 목표로 투쟁한 이처럼 대담한 영웅서사가 펼쳐 질수 있다고 믿었겠는가. 말그대로 기적인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적의 창조자들의 형상 또한 말그대로 영웅적인것이다.

이런 경우 작가들의 붓대가 잘못 흐른다면 독자들은 머리를 흔들수 있다. 《믿을수 없다. 주관이다. 리상이다. 분식이다.》 하고...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그 어떤 의혹도 가지지 않았으며 100% 믿고 100% 공감하였다. 형상은 독자들의 지향과 요구에 그대로 맞았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역시 작가는 진실만을 말하였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자력갱생한다는것이 왜 힘들지 않았는가. 그만큼 왜 동요가 없고 부정이 없겠는가. 더구나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최첨단기술을 정복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높이 비약한다는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하기에 작가가 이런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부정에 대한 비판보다도 긍정에 대한 찬양의 열정을 더 뜨겁게 불 태운다는것은 힘든것이였다. 그것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요구하였으며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더 깊은 파악을 요구하였다.

작가는 부정을 증오하기에 앞서 먼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을 결사옹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우리 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도덕적미에 매혹되었으며 먼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옹호하여 붓을 들었다. 물론 현실공

정의 이 열망은 전형화의 중요한 방도인 예리화의 수법을 요구하였다.

소설에서 작가는 양리찬, 강형모 등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로 하여 성실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운명적인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대담하게 예리화된 인정심리극을 조직하였다. 그것은 나아가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심화된다. 한석민과 전영범과의 관계, 강필훈과 안명신과의 관계, 한석민의 딸 한옥련과 책임비서의 아들 철룡과의 관계, 안명신과 직장장 아이들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인정심리극으로 예리화된 작중인물들의 형상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인민이 체험한 그 모든 심각한 고민과 분노, 기쁨과 행복의 심리극을 그대로 선명하게 그려 주려고 애 쓴 진지한 노력을 찾아 보며 그에 열렬히 공감하게 되며 우리의 자력갱생이 어떤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된다.

장편소설을 보면서 총적으로 느끼게 되는것은 작가자신이 등장인물의 참된 열망의 체현자로서 큰 심장을 지닌 작가이라는것이다. 작가가 장군님의 의도를 뼈속깊이 체현하고 김일성민족, 장군님식솔로서의 열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한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 끄거운 품에 안아 주었다.

작가의 심장속에 이 열망이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어야 오늘의 자력갱생의 정신을 보다 심도있게 밝혀 낸 좋은 성과작들을 창작해 낼수 있다.

또한 이 열망이 현실발전의 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시대를 앞서 가며 선도할줄 아는 높은 실력으로 안받침되어야 거창한 변혁과 창조의 세기인 21세기의 작가로 될수 있다.

자력갱생주체의 작품창작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면 오늘의 자력갱생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오한 사상을 더깊이 연구하고 약동하는 현실속에 더깊이 침투하면서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할것이다.

작가일화

백날에 백장을 쓰자!

송영은 15~16살 중학시절에 문학에 뜻을 두고 붓을 든 그때로부터 생명이 진할 때까지 매우 진실하게, 꾸준하게 창작생활을 하여 왔다.

정열과 노력! 이것이 그의 창작태도였다.

주체47(1958)년 4월 어느 날 송영은 《문학신문》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의 심장이 고동을 치는 한 잠시라도 붓대를 놓지 않고 더욱 기세드높이 전투적으로 창작에 바칠 결심입니다.

하루에 백장을 쓰고 백날을 쉼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장씩 백날에 백장을 쓰자!

나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곤 합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송영은 쾌히 대답했다.

《붓끝처럼 쉽게 녹이 쓰는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당장에 무디어 지고 그것이 오래 가면 영원히 못 쓰게 되는것이 붓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진실하자! 꾸준하게 노력하자!> 하고...》

한류덕

바다가에서

김봉운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물결은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
따뜻한 기슭으로 떠밀고 떠밀어
쌓이고 쌓이는 모래알 모래알...

기다린듯 기다린듯
해빛은 따뜻이 애무하며
알알이 깨끗한 모래알에
밝은 빛을 얹어 주니
저절로 비쳐 지는 내 인생이여

산도 많고 골도 깊은
이름 없는 산골마을 동구길에서
이름없이 뒹놀던 내 인생이
이 모래알은 아니었던가

숫검댕이 게발린 내 손을 쥐어
포근한 요람과 창 밝은 학교로
걸음걸음 이끌어 준 고마운 손길
움 트는 희망의 꽃망울에 해빛을 뿌려
조국의 대지우에 피워 준 운명의 품이여

한번 잡은 그 손길
한번 비쳐 준 그 해빛
내 운명 영원히 이끌고 지켜 주며
빛나는 별을 어깨우에 얹어 주고
내 홀로 순찰의 밤길 걸을 때도
언제나 함께 있는 장군님사랑이여

잊을수 없어라
학창시절 그날을
경애하는 장군님 룡담산에 오르시여
우리모두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자고
내 어깨우에 믿음의 손길 얹으실 때
조선혁명 동 터오던 그 새벽
한별을 우러러 터치던 그 환호
내 심장에도 뜨겁게 메아리쳤거니

세월은 흐르고

내 이제는 군모밀에 머리가 희여 저도
그이께서 이 심장에 심어 주신
신념과 의지는 변함 없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숨 쉬고 사나니

그 신념
그 의지를 생명으로 간직한
나는 수천만 전사중의 한 전사
내 운명의 영원한 태양
그이의 사랑의 손길을 잡고
그이의 믿음의 빛을 안고
영원히 빛내일 내 삶이 아니냐

×

썩-아
소리치며 밀려 오는 파도여
도도히 추켜 든 물 머리
바위도 들이치는 기상이여

산악같이 치솟는 물기둥
하늘을 치받고
땅을 삼킬듯
파도의 이랑이랑 어깨 결고
노도쳐 내닫는 파도여

흠어 졌단 텅굴어 합치며
다시 또다시 바다로 흘러 드는
파도의 갈기갈기
내 얼굴에도 휘뿌려 지는
물방울 물방울...

물방울 네 홀로야
어찌 풀 한포긴들 적시랴
네 홀로야
어찌 바위도 들이치랴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겨
그렇듯 거세찬 파도로 치솟는게 아니냐

바다같이 넓은

장군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내 어찌 계급의 전초병이 될수 있었으랴
인민과 조국의 수호자로
금별의 위훈 떨칠수 있으랴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위대한 그 품을 떠나면
물방울같이 순간에 흩날릴 이 몸
장군님 그 품은
내 운명의 바다

사랑의 바다
믿음의 바다
장군님 그 품에 안긴 너와 나
우리 힘 당할 자
이 행성에 더는 없으랴

아, 백두의령장 **김정일** 장군
바다 같은 그 품에서만
필승의 용맹 떨칠 전사
원쑤의 뼈무리 덤벼 든다면
노도쳐 질풍쳐 갈 무적의 파도우에
나는 첫 갈기 되리라

×

도래굽이 벼랑가에
세찬 바람 맞받아 머리 쳐든
한그루 소나무

이 땅에
뿌리깊이 내리지 않았다면

네 어찌 사나운 눈비를 이겨 내랴
너를 보며 내 가슴에 새겨 진 년륜
사랑의 자욱을 더듬노라

너무도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의 설움에 울던 이 몸이
장군님 펼쳐 주신 사랑의 대지가 없었다면
이름 모를 산기슭에 흠먼지 되었으리

깊은 뿌리 없이야
푸르려 설레이랴 소나무!
장군님 그 품에
내 인생의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내 삶이 있으랴

오, 뿌리 내릴 땅없이
푸르싱싱한 초목을 볼수 없듯
장군님 품을 떠나 전사의 삶
이 하늘아래 없으랴

오, 사랑의 대지
믿음의 대지
내 운명의 뿌리깊이 품어 준
장군님 품이여

그 품에 한번 뿌리 내려
바람에 흩날릴 인생은 없으랴
살아도 죽어도
그 품에 영생의 뿌리 내린
전사의 행복이여

안경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얼마전에 돋보기안경을 한 일꾼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자그마한 고급안경집에서 안경을 꺼내쓰고 최근 내가 읽고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8권의 첫장을 펼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발과 함께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안겨 왔다. 감옥에서 얼마나 뵈고 싶어 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그 얼마나 불렀던가.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던 내 눈은 흐르는 눈물로 안경이 흐려지고 말았다. 간고했던 옥중생활에서 안경과 관련된 잊을수 없는 동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은 30년전 과거로 되돌아 갔다.

내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렇게도 잘 보이던 사전이 글자가 흐려 지며 점차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니 얼마후에는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 도저히 읽을수 없었다. 감방안이 어두워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운동시간에 밖에 나가 사전을 보았으나 여전히 활자가 선명하지 않아 읽을수 없었다.

처음에는 영양실조이겠거니 생각했으나 로안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은 쓸쓸해졌다. 그런데 그 쓸쓸함보다 더 무서운것은 눈때문에 책을 읽을수 없다는 공포감이 몰려드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으니 안경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고독에 대한 공포증은 더해 가기만 했다.

독감방수용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문은 육체적고통이 아니라 고독이다. 이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중의 하나가 독서인데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책이 별로 허용되지 않으니

사전을 뒤져 보며 고독을 극복해야 한다. 책이 없으면 바느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일만 계속하면 싫증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더우기 나처럼 책을 좋아 하는 사람에게 로안이 되어 안경이 없는것은 눈은 있어도 장님이 된꼴이니 고독과의 싸움은 더 고되기마련이다.

이런 고독의 나날이 계속될 때 불행하게도 황태갑동지가 위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태갑동지가 자기가 사용하던 안경을 동지들에게 물려 주고 가겠다는 타전(벽을 두드려서 전달하는 신호)이 전해 왔다.

감옥에서 수용자가 죽었을 때 연고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은 소각처분하는것이 규정이라고 하지만 죽음을 앞둔 동지가 자기의 안경을 안경이 없어 고생하는 살아 있는 동지에게 주고 가겠다는 전달을 받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었다.

그래서 동지들속에서 안경문제가 토론되고 황해도출신인 박정래동지에게 그 안경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며칠후 박동지가 독거운동장(서로 만나도 말할수 없도록 담을 쌓아 한사람씩 들어 가 운동하게 만든 운동장) 3호운동장 왼쪽 모서리에 안경을 파묻어 놓았으니 운동 나왔다가 파가지고 가서 사용하라는 전달이 나에게 왔다.

나는 박동지에게 안경을 받을수 없다고 거절하고 운동장에서 파왔던 안경을 내가 먼저 운동나가는 순서때 그 자리에 도로 묻어 놓고 박동지가 가져 가라고 전달했다.

이렇게 안경이 몇번 오고 가고 했는데 박동지는 자기는 이제 늙은 사람이고 그 안경이

도수가 낮아 맞지 않는다는것과 함께 내가 젊은 사람이고 책임기를 좋아 하는 사람이니 그 안경을 사용할 적임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내가 안경을 받을것을 요구하여 왔다. 사실 안경을 운동장에 파묻어 둔것이 놈들의 감시에 걸리면 압수당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왔다.

방에 들어 와 안경을 끼고 사전을 보니 제 시력보다 안경도수가 좀 높았다. 그러나 안경 없는 나에게 있어서 도수가 높은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다시 책을 읽을수 있어 독감방의 무서운 고독을 면하는 기쁨과 함께 박동지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과 사랑의 감정은 더욱 높아 갔다.

몇년후 박동지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기전에 **《저는 이제 죽음앞에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하게 갑니다.**

동지들! 통일의 그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저의 뒤통까지 목청껏 만세를 불러 주십시오.》 라고 유언했다.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죽어 갔고 그들은 연고자가 없어 감옥묘지에 안장되었다가 2년후에는 다른 유골들과 합장했다.

감옥에서 가버린 동지들은 비문은 고사하고 묘도 없지만 살아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에 돌아 온 저의 기억속에서 그 안경에 대한 추억과 함께 동지들의 이름 석자는 지울수 없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추억도 희미해 진다고 한다.

그러나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속에는 고독한 독감방에서 죽어간 동지들의 얼굴모습이 저 안경너머로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의 아버지

김은숙

아버지!

그렇게도 소원이던 이 땅에
첫 걸음 내짚는 아버지
내 한달음에 달려 가 있어 지며 읊니다

쏟아 지는 눈물속에 어려 오는 모습
백발의 그 모습은
푸르청청 젊은 나이 군복 입고 떠나가셨던
나의 아버지가 뵙습니까

아버지!

그렇게도 애 타게 기다린 50년세월
그 애는 꼭 살아 있을거라고 외우며
늘 아들을 기다리다
등 굽은 할머니는 눈도 못 감고 돌아 가시고
기다리다 남편을 기다리다
타는 마음에 재를 안고 어머니도 가시고

동구길 언덕 넘어 전선으로 떠날 때
어머니등에 업혔던 이 딸도
기다리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이제는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는데...

아버지는 있어도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소꿉시절 옆집 내 동무
그 까치머리를 곱게 빗겨 주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 머금고 그려 보던 나의 아버지

대학졸업증을 안고 기쁨에 달려 와
방문을 활짝 열며
아버지!
나도 몰래 불러 보았습니다
머리 없는 날 첫날옷을 입고 축복 받으면서도
그리워 맘속으론 흐느껴 울던 이 딸...

목이 메여 목이 메여
다시 다시 우러르니
이 딸의 세살적 눈가에 비꼰던 그 아버지입니까
푸르른 젊음을 철창속에 두고
백발을 날리며 돌아 온 아버지

내 묻지 않으렵니다
비전향...

그 한마디를 지켜
살아 들어 가 죽어서만 나오는 감호소에서
역사철사에 묶여 당한
그 아픔 그 고독 그 악형을
어이 다 이겨 냈는가를

아버지의 마음속엔
딸에게 못다 준 사랑이 있어
조국에 바쳐야 할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는 삶은 강하기에
죽을수도 없고 굴할수도 없어
단두대에서 지켜 온 그 지조이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례사로운 나날
평범한 아버지들이 줄수 없는
가장 따뜻한 사랑
아버지가 이 딸에게 주는
가장 값 높고 고귀한 사랑이

아, 나는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 자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불굴의 비전향장기수!
옥중의 당생활나날이 더 긴
조선로동당의 불사조당원임을

허나 백발의 머리를 흔드는 아버지
하시는 그 한마디 이 가슴 울립니다
-딸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켜 주지 못했구나
너와 이 아버지를 지켜 준
민족의 아버지가 계시었으니
그 아버지앞에 나는 달리 살수 없었던다-

아, 수령을 위한 혁명절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와 이 딸은 영원히
만날수 없었으리니
내 조용히 부릅니다
철쇄를 부시고 나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신
위대한 아버지
그 어버이는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라고!

(주체89. 8. 31)

심장의 노래

오필천

못 잊어
그리도 못 잊어
장군님 불러 주시는 이름들을
나는 조용히 부른다
-김인서, 함세환...

절절히
그리도 뜨겁게
장군님 찾으시는 그대 영웅들을
나는 부르고 또 부른다
-김영태, 김선명...

내 다 알고나 불렀던가
그 이름 한자한자에
그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내 너무도 쉽게 불러 왔구나

부르며 찾다가
가족들도 지쳐 잠든 밤에도
우리 수령님
우리의 장군님께서 잠 못드신
그 긴긴 50여년
세월의 반세기를 이루었나니

철창속에 고생하는 전사들생각에
드시던 수저마저 놓으시고
온 나라가 즐기는 명절날이면
캄캄한 철창속에 쓰러져 있을
천리밖 전사들이 더욱 그리워
그 이름들을 때없이 부르시던 우리 장군님

내 다 알았던가
우리를 믿고 한생을 다 바친
그들을 데려 오는것이

우리 당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 하시며
천만금을 얻는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 하시며
철쇄에 묶이었던 그 이름들을
해빛으로 감싸안으신 우리 장군님

10대에 총을 메고
수령님을 받들어 싸운 전사들
이제는 유언을 남길 기력조차 없고
지평이에 의지한 고엽의 인생들
그 마지막전사까지 다 찾아
20세기의 마지막을
동지애의 절정으로 빛내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쉽게 부르지 말라
그 한 전사 한 전사의 이름들을
60여명!
불굴의 전사들을 한꺼번에 불러 오는
인류사의 대경사를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덕망을 다 알기전에는

오, 백두산에서 만고풍상을 다 녹이며 시작된
동지애의 위대한 력사
오늘은 분렬의 장벽을 허물며
그 이름들을 새겨 실고
남해의 한끝까지 도도히 흐르는
우리 당의 동지애의 력사여

끝 없는 연도에 울려 퍼지는 환호성을 다 합쳐
삼천리에 파도치는 걱정을 다 합쳐
내 심장의 노래를 소리쳐 부르노라
위대한 동지애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만세!

(주체89. 8. 31)

가사

인생의 꽃

진춘근

어제날 위훈의 꽃 자랑 마시라
인생의 한길은 멀고도 멀어
한시절 피었다 지고 만다면
그 어이 자랑하랴 그대 인생을

오늘의 위훈의 꽃 자랑 마시라
인생의 한길은 멀고도 멀어

래일에도 그 꽃이 피지 못하면
그 어이 빛내랴 그대 인생을

지는 순간 마감까지 붉게 피여라
인생의 한길은 멀고도 멀어
걸어 온 자욱마다 향기 풍길 때
조국은 추억하리 그대 인생을

고향속의 조국, 조국속의 고향을 응시하며

-시인 박산운의 한생을 회고하여-

김성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시인 박산운의 한생은 외세에 의하여 짓밟힌 고향을 결코 저버릴수 없는 자기 량심과 생의 동우리처럼 간직하고 붓 한 자루에 해불을 켜들고 조국통일의 한길을 꾸준히 답아 온 피 맺힌 탐구의 한생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의 대변자입니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의 대변자로서 박산운은 민족분렬의 아픔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한생을 오직 통일시인으로 살았다.

1. 향토우의 여름나무 그리고 소...

팍팍한 향토바닥에
한치 두치 뿌리를 뻗어 가며
비를 부르는 여름나무들
칼끝에 터지며 하늘을 흘겨 본다
-시 《여름나무들》 주체33(1944)년-

박산운처럼 고향에 정들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련만 또한 박산운처럼 고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우리 없는 새처럼 떠돌아 다닌 사람도 없을것이다.

흙먼지 이는 향토바닥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즙과 호흡을 안겨 줄 비를 불러 하늘을 흘겨 보던 여름나무와 그림에 서 있는 소-이것이 해방전 박산운의 표상이었다.

박산운은 주체10(1921)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박인배... 식자깨나 있다는 할아버지가 한문자로 어질 《인》 자에 곱 《배》 자를 붙이여 남보다 곱절로 인정에 살고 사랑을 받으라고 지어 준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후날 자기의 필명을 메 《산》 자에 구름 《운》 자를 붙이여 《산운》 즉 산정을 휘감은 구름이라고 달았다. 메마른 산골마을 고향의 향토우에, 정에 주린 고향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히 단비를 뿌려 줄 비구름이 되고자...

말그대로 《구름》이어서 그랬는지, 그는 모진 세월의 바람에 날려 한번도 고향의 하늘우에 잡혀 보지 못한채 이리저리 떠다닌 방랑자가 되었다. 17살 애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꾸며 준 솜이불이 든 고리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간 산운은 일본중앙대학 법학부를 다니였지만 외로운 밤마

다 등불가에 찾아오는 리향민의 사무친 정회는 저도 모르게 그의 붓대를 시줄속으로 이끌어 갔다.

확마다 위협적인 《검은 바람》이 이는 《대일본제국》의 막대기 같은 법률조항을 따로 외우고 있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순결했고 다감했었다. 그는 공부를 집어 던지고 붓대 한자루에 온넛을 싣고 현해탄을 건너 조국으로 돌아 왔다.

하지만 고향은 낮 설었다. 떨어 저선 그림다기도 정작 찾아 오니 낮 설어 지는 고향... 먼 곳에 선 그리워 울다가도 그 품에 안겨서는 어리벉벉 눈물도 말라 버리는 그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미친 개가 또 아이들 허벅다리를 물었다
산길은 시집간 딸들이 매양 못 살고 돌아 왔다
술집이 또 하나 늘었다
젊은이들은 징병을 피해 징용을 피해
밤이 오면 바람처럼 달아났다
-시 《고향》 주체32(1943)년-

일제식민지통치말기의 어둡고 스산한 현실을 부여안고 일본에서 류행된 《이메지》시풍의 영상 목록으로 적어 내려 간 그의 첫 시들은 서글웠다. 일제의 총칼에 찢기어 죽은 아들의 주검을 안고 가는 백발의 어버이들을 보며 그의 가슴속에도 피가 흘렀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해도
떠날줄 모르는
피를 머금은 구름송이들
방울방울 듣는 피방울이 옷을 적신다

고향 찾아 돌아 왔건만
청산을 바라보아도
찢기운 가슴에서 피가 멎지 않는다
-시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주체34(1945)년-

그 피방울들이 날말이 되고 시행이 되어 거칠게 얼룩진 시들을 읽노라면 우리는 이 시기 박산운의 심장속을 들여다 볼수 있다. 그는 시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수난민족의 비극을 피 터지게 읊조리는 불운한 향토시인이었다. 《검은 바람》속에서 끝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그의 처녀작은 어떠했던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다만 알고

있다. 그것은 가슴 설레는 청춘시절의 꽃다운 꿈이 비낀 《고운 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바람》을 맞받아 나가며, 피 젖은 머리칼을 흘날리며 수난에 우는 민족의 호곡이었다. 후날 시인 자신이 이렇게 쓴바 있다.

…내가 썼던 처녀작이여
네속엔 없었다 첫 사랑의 달밤도
기다림에 지쳐 한숨 짓는 달콤한 애수도
꽃구름 떠도는 인생의 푸른 하늘도

다만 네속엔 울리고 있었다
피끓는 노래 아닌 칼바람소리가
사람들의 특골과 팔다리를 짓모는
잔악한 총탄과 야구방망이소리가
야밤에 대문을 걸어 차는 군화소리가
-서정서사시 《10월의 불길》 주체78(1989)년-

해방된 조국에서 창작년도가 《1945. 8》이라고 밝혀진 서정시 《버드나무》에서 희망과 환희의 선물이 단 한번 그의 시에 비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 게다가 대신에 고향땅을 짓밟는 미군의 군화짝이 그의 시줄도 디디고 지나갔다. 그의 가슴을, 그의 심장을 짓밟고, 짓이기고 지나갔다. 《남의 나라》-그는 이렇게 자기 고향땅을 부르며 눈물 지었다.

이때에야 그는 자기의 지난 날과 지난 시들을 돌이켜 보았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시에는 통곡은 있되 희망은 없고 수난은 있되 향거가 없었다.

한광마울에 틀고 앉은 어느 회사의 사무원질을 하며 외로운 《산길에 우는 작은 새》가 되어 눈물짓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도리머리를 지었다. 그리고 제 고향사람들을 새삼스런 눈으로 살펴 보기 시작했다. 《소》!-그렇다. 황토우의 소, 등어리에 채찍자리만 지고서도 텅 빈 하늘을 향해 뿔을 쳐들고 소리 없는 울음만 울던 소!… 아니다, 소야. 이제는 너도 뿔을 낮추라! 뿔을 낮추라!

낮 설은 들판에 멀리 끌려 가
고향벌을 그리며 목이 썩 소
달 뜨는 저녁이면 달에서도 울려 오는
정다운 풀피리소리에 눈물 짓던 소

한자리에 머물러 움머움머 울다가
목덜미에 채찍자리가 남은 소-
순하기만 하던 눈에 불을 켜들고
오늘은 하늘을 가리키던 뿔을 낮춘다
-시 《소》 주체35(1946)년-

그 뿔이 드디어 내가 사는 《남의 나라》 하늘

을 울리 받았다. 서울에서 《현대일보》, 《문화일보》 등의 편집사업을 하면서 열혈의 애국시인들이였던 유진오, 김상훈, 리병철, 김광현 등과 함께 그가 발간한 《전위시인집》[주체36(1947)]시에는 벌써 반미구국항쟁에 일떠선 민족의 피 맺힌 절규가 기세차게 터져 나오고 있다. 쓰러진 려사들의 시체앞에서 《소의 마음》은 불길이 되어 솟구친다.

……
너무나 원통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너무나 많은 피가 흐르고 있다!

산하여!
너의 메마른 젖줄기를 빨며 자란
저 아들들의 피를 멈출수 없다면
저 어머니들의 통곡을 멈출수 없다면
차라리 무너지라! 무너지라! 무너지 없어 지라!
-시 《산하여》 주체36(1947)년-

이것이 주체35(1946)년 10월항쟁을 목격하고 그가 쓴 분노의 노래이다. (이 항쟁에 대해서는 40여년 세월이 지나 서정서사시 《10월의 불길》에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게 된다.)

그때문에, 그 정의의 웨침때문에 그 《소》는 검질긴 《백정》들-반동테로단의 추적을 받게 된다.

이 시기 박산운은 늘 가슴속에 단도를 품고 다녔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 한몸을 지킬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한자루의 검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반동테로단에 쫓기여 한칸 세집마저 빼앗긴후에는 해가 지면 갈데가 없어 시우들의 집을 찾아 다녀야 하는 제 집속의 방랑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자주 신세를 진 선배시인 리용악은 주체37(1948)년 년두시에서 《해가 지면 갈데가 없는 산운이도 좋은 글 쓸수 있는 새날이여 어서 오라》고 읊었던것이다.

과연 어디로 갈가? 《소》는 뿔을 가다듬고 항쟁에 나선 인민들속으로 갔다. 그는 소뿔처럼 버린 붓끝에 항쟁영웅들의 애국의 피를 찍어 불길 같은, 서리발 같은 시를 고향의 하늘에 썼다. 《산길에 우는 작은 새》는 사라졌다.… 《무우밭》[주체35(1946)], 《가자 총을 잡고!》[주체37(1948)], 《항쟁의 어머니》[주체37(1948)] 등에는 예전과 다른 역센 박산운의 모습이 보이고 거칠게 웅글어진 그의 목소리가 울린다.

어찌 더 참으랴
이발에는 이발로!
피는 피로!
놈들의 총을 빼앗아

눔들의 가슴을 뚫자!

-시 《가자 총을 잡고!》 주체37(1948)년-

전위시인 박산운은 이렇게 투사가 되고 그의 시는 이렇게 불 붙는 창검이 되었다.

운명은 그를 고향이 있는 남쪽으로가 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는 평양으로 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민이 주어진 새 세상을 세워 주신 꿈 같은 이야기에 심취되어 남의 집 처마밑에서도 북두칠성만 헤여 보던 박산운은 드디어 참된 고향, 참된 조국을 찾아 주체37(1948)년 7월 공화국북반부로 넘어왔다.

대번에 그의 온몸, 온넛을 휩싼 자주의 해발! 마음 놓고 아무데서나 애국을 웨치고 주저없이 아무 집이나 제 집처럼 열고 들어 가도 반기는 곳-여기가 바로 그의 진짜 고향이었다.

2. 기러기는 엄마를 불렀다...

기럭기럭 기러기야
가을밤에 기러기야

달만 혼자 남았는데
누집 소식 전하러니

락동강 보거들랑
내 목소리대로 울어 다오

-엄마야 아들 낳고
나는 평양에 사노라!...
-시 《기러기》 주체46(1957)년-

아이들의 동요인가? 아니다. 어머니앞에서는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인 장년시인의 노래이다. 《엄마야...》-유년기의 살뜰하면서도 애절한 이 부름이 저도 몰래 터져 나올 때 박산운은 벌써 한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엄마》는 원한의 분계선이 가로 막은 천리밖의 고향-남녘땅에 있었다. 오직 기러기만이 자유로이 오가는 분계선을 앞에 두고 시인은 목이 메도록 그리움의 노래만 불렀다. 이때부터 그의 시의 기본주제, 그의 인생의 기본주제는 오직 《엄마》-고향으로 되었다.

고향을 부르면
어머니가 대답한다
어머니를 찾으면
고향이 나타난다

이 땅 아들들의 고향이 있는
이 나라는 정다운 어머니나라

둘이 될수 없는
어머니나라

이 나라 그 어느 고향으로 가도
어머니가 있기에 내 나라 아들을
하나인 나라 위해 목숨 던져도
어머니의 품속에서 고이 잠든다
-서사시 《내 고향을 가다》, 주체79(1990)년-

박산운에게서 고향은 그자신이 쓴것처럼 《생활과 조국을 가르친 엄한 아버지였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어머니》였다. 사람에게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둘이 될수 없는 어머니나라》가 지금은 허리가 동강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 어머니를 부여 안고 목 메게 터친 노래가 끝날줄 모르고 반세기이상 흘러 박산운의 호호백발 한생이 되었다.

서사시 《내 고향을 가다》를 펼쳐 본다. 이 서사시는 구성과 내용에서 이채로운 작품이다. 4개장, 44개 절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그가 왜정말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향과 어머니를 주제로 하여 쓴 수십편의 서정시들을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묶어 놓고 있다. 다만 매장의 서시들과 맺음시들, 군데군데 몇개 절만이 새로 쓴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없이 엮여 저 하나의 완전한 서사시로 되었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시인자신, 주제는 통일에의 비원, 창작기간은 반세기도 넘는 60년!

한때 피레가 극시 《파우스트》창작에 60년이 걸렸고 그것이 그의 기나긴 한생의 탐구의 력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첫 구상이 번뜩인 대학시절부터 계산한것이고 1부가 나온 때부터 2부가 나온 날까지 30년의 빈 공간에는 완전히 다른 작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산운은 그 60년의 어느 한해, 어느 한달, 어느 하루도 이 주제에서 리탈한적 없었다. 말그대로 한생을 이 하나의 주제로 가득 채웠다. 한생토록 이 서사시 한편을 썼다.

이 서사시의 4장 9절에는 이미 50년대말에 우리 앞에 나타났던 시 《미국병정》[주체48(1959)]이 들어 있다.

《유. 에스》투구아래
항시 무엇을 질근거리는 아가리
부승부승 누런 털이 난 손등으로
흘러 내리는 코를 훔치며
눔은 저렇게 보초막앞에 섰다

이따금 드러내는 이바디사이로
포만해 가쁜 숨소리를 내쉬며

집승 같은 악취를 뿜어 내더니
 늙은 또 할 일없이
 제 호주머니를 열심히 들추고 있다
 ...

더 인용하기조차 피로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미국병정의 이 물결은 박산운이 한생토록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매일같이 눈앞에 보지 않으면 안되는 통일의 원쑤였다. 고향의 어머니와 나란히 그의 시에 자리 잡고 매일 매 시각 그의 여린 심장에 칼질을 해대고 노린내를 들쑥우고 눈물을 짜내고 피를 말리우던 양키- 그래서 그의 시는 사랑과 증오, 눈물과 웃음, 불과 얼음의 두 극단을 오가며 양상의 강렬한 대조로 특징적이다.

그렇수밖에! 이제부터 그의 시에는 판이한 두개의 현실-북과 남, 낮과 밤이 함께 자리 잡게 되었으니 낮에는 북에서 해빛, 웃음, 무르익은 파원의 열매를 노래하고 밤에는 남에서 어둠, 눈물, 피 젖은 황토의 곡성을 노래해야 했던 통일시인이 박산운이었다.

그가 한생 가고 간 고향길에는 《저무는 들길을 가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석양에 술렁이는 황금나락을/ 어린 팔을 뻗쳐 덥석 잡아 본/ 무연한 고향별》이 있었고 《원쑤들과 맞설 때면/ 넘어져도 돌을 거머쥐고 일어 서는/ 그 성깔 자랑하던 옛동무들이》 있었다. 하기에 그는 저 남녘에서 들려오는 겨레의 가느다란 한숨소리에도 노한 바다가 되어 화답했고 철 없는 어린것들이 미군막사의 철조망밖에서 서투른 영어 뜯개말을 번지며 코 큰 병정들과 《아는체》를 할 때 《우리들이 그러했듯/ 아버지들의 술한 피를 보아야만 할/ 고향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의 소나기되어 팔을 뻗었다.

그의 시집 《내가 사는 나라》의 《어느 벗에게 대답하여》 편에 실려 있는 시들은 눈물없이 읽을 수 없다. 고향의 황토우에 단비를 뿌려 주는 《메구름》(산운)이 되고저 했던 시인은 우뢰를 떨치며 번개를 내려 치는 분노의 《소낙구름》이 되어 《어머니》(주체51(1962)), 《해를 이고 살기에, 별을 이고 살기에》(주체79(1990)), 《고향길》(주체69(1980)), 《정다운 고향 찾아 가노라면》(주체69(1980)), 《비가 오나 눈이 오나》(주체76(1987)),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를 찾아》(주체77(1988))... 등 피줄이 터져 나가는 시를 썼다. 《엄마》를 부르는 기러기의 울음엔 피가 맺혔다.

남녘에 부친 그의 시들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뚜렷이 떠오르는 작품은 《청계천에 부치여》(주체49(1960))일 것이다. 이 시는 같은 해에 쓴 시 《보통강기슭에서》와 쌍을 이루어 그의 온 심혼을 다 터쳐 놓은 필생의 력작중의 하나이다.

이 시와 관련하여서는 특이한 일화가 얹히어

있다. 소재도 주제도 완전히 다른 두개의 시를 한책상에 나란히 펼쳐 놓은 원고지우에서 동시에 창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해빛과 환희의 노래, 다른 하나는 어둠과 분노의 노래... 서로 상극인 감정의 분화구에 한붓을 찍어 쓴 두개의 작품...그러자면 시인의 심장이 얼마나 크고 억세야 하겠는가. 박산운이 바로 그러했다.

이 시기 그는 자주 보통강기슭에 나갔다. 버림받은 인민들이 의지가 지할데 없어 차디찬 땅바닥에 등을 대이고 아침저녁 자고 있던 토성량, 무덤 아닌 산 자의 무덤들이 웅기종기 비좁게 틀고 앉았던 보통강반-

이 나라 하늘을 곱게 수 놓던
 아름다운 새벽노을도
 네 기슭에 머물기 저어하고
 가벼운 아침바람도
 네 기슭을 넘기 서슴어 했더라
 -시 《보통강기슭에서》-

이 시구절이 눈에 밟힐 때 그의 뇌리에 사무친 것이 어제날의 이 보통강반과 닮이 없는 오늘의 서울 청계천이었다.

청계천 청계천
 네 이름 그리도 맑고 깨끗한데
 네 모습 어이 그리 흐리고 어두우냐
 네 기슭 어이 그리 더럽혀 졌느냐

바람을 가리우려 네 기슭에
 웅기종기 둘러 앉은 판자집 판자집
 한층우에 두층 두층우에 또 한층
 층층이 포개여 진 판자촌의 네 기슭
 더러는 레이선콕이 지붕으로 되었구나
 -시 《청계천에 부치여》-

시인의 눈앞에는 황홀한 락원의 강반 보통강이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어두운 지옥의 락류 청계천이 있었다. 그는 울었다.

수천년 길들줄 모르던
 사나운 생활의 물줄기를
 우리 인민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스리게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선 오늘도
 우리 인민의 진두에 높이 서계시나니

푸른 록지와 화강암을 안고 도는
 보통강의 새 흐름이여
 우리 인민의 첫 사랑의 강이여
 -시 《보통강기슭에서》-

그의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지구절이
세차게 굴뚝대며 태어나고 있었다.

끓어 올라라 더 세차게
모든 오물들과 검부레기들을
깨끗이 깨끗이 가서 버리는 날
그럼던 밝은 해는 솟아 오르리니

서울의 청계천이여 그날을 위해
너의 기슭 너의 흐린 물살을 보고
서울이 더 크게 노하게 하라
온 남녘이 더 뚜렷이 제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이름대로
네 기슭이 아름다와 질 그날을 위해!
-시 《청계천에 부치여》-

락원과 지옥의 두 기슭을 동시에 딛고 서서 웃
으며 울어야 했던 박산운의 심장은 돌이 아니라
역시 하나였다. 조국이 하나이듯이, 태양이 하나
이듯이, 민족이 하나이듯이...

그는 70고령기에 들어 서서 《이 시를 남녘땅
어머니들에게 바친다》는 부제를 달아 서사시 《두
더지고개》(주체 79(1990))를 썼다. 서사시 《내
고향을 가다》가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통일비원의 시라면 《두더지고개》는 위대한 민족
의 태양을 주러려 참된 삶과 투쟁의 좌표를 찾은
고향의 벗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열정적인 찬가
이다. 이 두 서사시를 통하여 시인 박산운이 자
기가 한생을 두고 거의 유일주제, 유일묘사대상
으로 삼았던 고향안의 조국, 조국속의 고향, 어머
니와 아들, 민족과 인간의 운명문제를 총화하였
다.

아들이 없이는 어머니란 없는것
아들이 있고서야 어머니가 있는것
...

그러기에 이 땅 어머니들
육신을 태우는 불속에 들고
풍파 사나운 물속에 들어도
아들만은 두손에 받들어 올렸더라
-서사시 《두더지고개》 주체 79(1990)년-

박산운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있고야 아들이 있
다는 논리는 이렇게 반전된다. 아들이 없이는
어머니가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아들들이 아들
답게 살고 아들답게 어머니를 받들어야 하는것이
다. 불속에서 물속에서 어머니들이 받들어 올린
아들이 이제는 불속을 헤쳐 물속을 헤쳐 어머니
를 받들어 올려야 하는것이다. 서사시 《두더지고
개》의 주인공 전위투사 리재훈이 그러했고 서정
서사시 《10월의 불길》의 주인공 젊은 시인 리산
하가 그러하였다.

산운은 어머니조국을 위해, 고향을 위해 죽음
의 길을 웃으며 간 용감한 아들들의 전형을 창조
하면서 40년대로부터 50년대, 60년대... 90년대
에 이르는 영웅들의 모습을 그려 냈다. 그 맨 앞
자리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가 있었고 또
그모두와 함께 자신이 있었다.

3. 시인의 생명

...비록 백발이 성성하다 하라
나는 더 늙지 않을것이다
나는 더 앓지도 않을것이다
내 얼굴 알아 볼 마지막사람인
아우의 나이가 특십을 넘었음에
-시 《해를 이고 살기에, 별을 이고 살기에》
주체 79(1990)년-

박산운은 《백발의 아이》로 오래 살았다. 가지
못한 고향, 만나지 못한 100살도 넘었을 어머니
를 두고는 더 늙을수 없었기때문인가. 그의 생명
의 진정한 근원은 무엇이었던가.

박산운이 생존시에 자기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런 글을 써보낸적이 있다.
아직은 그 어느 지면에도 소개된적 없는 그의 마
지막절필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더듬으며 이제 그
몇대목을 추려서 그대로 적으려 한다.

《내가 살아 본 낯은 세계, 낯은 사회에서는 <
미인박명론>과 함께 <시인단명론>이 하나의 사
회적통념으로 되고 있었습니...

일제시대를 두고 보면 시인 리상화와 김소월도
30대가 고작이였고 시인 윤동주는 20대에, 리록
사는 30대에 일제의 감옥에서 각각 순절하였습니
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함께 사회
정의와 불의에 대해 민감한 시인들의 운명은 해
방후 남조선에서 더욱 처절했습니다. 꽃나이 24
살에 리승만일당에 의해 총살 당한 전위시인 유
진오를 비롯한 유명무명의 시인들이 혹은 형장의
이슬로 혹은 장기수로 철창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헌데 낯은 세계는 비단 시인들의 육체적생명만
을 앗아 간것이 아니라 시인들을 시인으로 되게
한 시정신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되어 청와대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
람들은 술에 취해 금지된 노래를 고래고래 목이
터쳐라 부르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
떤 사람들은 정신황폐증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썩고 병든, 그러나 시인들의 목숨을 짓씹기에
는 아직도 든든한 이발을 가진 그 사회에서 시의
길을 걸어 온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뿐아니
라 80고개를 바라보며 사는 오늘에 이르도록 손

에서 붓을 놓지 않고 있으니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시인으로서의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인민을 위한 참된 문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품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답답한 가슴을 술로 달래며 퇴폐적인 시를 읊조리다가 서울 뒤꼍목어느 목로집 문턱을 베고 진작 생을 마쳤을것입니다...》

그렇다. 시인의 생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 안길 때 백배천배 아니 영생으로 이어 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7월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어 공화국북반부로 찾아온 박산운을 따뜻이 품어 주시고 우선 당학교에 보내어 새로운 사상적영양소를 부어 주시였으며 전시에 북과 남 문화단체를 하나로 합칠 때에는 리용악과 함께 시분과 위원으로 사업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했던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년간 당기관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도록 높은 정치적신임을 표시하시였으며 잡지 《통일문학》의 중요기고자로서 한생을 보람 있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직 애국에 살고 통일에 죽으려는 그의 열망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조선혁명가 최영도동지의 추모회, 광주인민봉기희생자들에 대한 평양시추모회, 평양국제문학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시를 읊도록 내세워 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생일 70돐에는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이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겼기에 그는 머리위에 백발이 질어 갈수록 더욱 왕성한 열정과 기백을 안고 시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 올수 있었던것이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비운의 나날에 시인 박산운도 쓰러졌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울에 나가 남녘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조국통일의 대경륜을 펼쳐 주실 력사의 그날을 눈앞에 바라보며 어린애처럼 들떠 있던 그의 심장은 너무도 청천벽력 같은 타격앞에서 더는 견디어 내지 못했던것이다.

의식을 잃은채 병원침대에 누워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시인은 환각속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수십년전 헤여지던 그때처럼 늙지 않은 어머니를... 그리고 정다운 고향산천을...

다시 어린애가 되어 그가 들은 《엄마》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나 알고 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 위대한 당의 손길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 선군혁명령

도의 큰 걸음을 내디디신 그 힘겨운 나날에도 박산운의 병상대를 알아 보시고 그의 소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을뿐아니라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의 꺼져 가던 심장은 그 위대한 어머니의 젖줄기를 물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영생의 주로를 달리고 달려 주체86(1997)년 7월 21일 드디어 고향길에 올라 고향의 품에 묻혔다. 그 고향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이었다.

시인의 생명은 길었다. 고향과 어머니에게 바치는 최후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시인은 아직도 살아 숨 쉰다. 그의 《끝 맺지 못한 시》를 읊어 보자.

내가 자란 고향이여
내 시의 잊지 못할 요람이여
일찌기 너는 나에게 선물했었다
먼 길을 걸어 온 오늘 이때까지
마를줄 모르는 서정의 썸과
너의 얼굴이 비친 거기
때로 감도는 맑은 애수를
너의 원썬들과 맞설제면 휘두르는
예리한 정론과 풍자의 창검과 함께

너는 주었다 나에게
그 모든 귀중한것들을-
...

나는 물려 받았다 네가 준 그것을
할아버지의 메투리에서
아버지의 피나리보짐에서
밤 깊도록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즉나즉 부르던
구슬픈 불레노래와
밤이슬 머금은 풀잎들에 앉아 울던
풀벌레소리에서
나는 받았다 그 귀한 모든것을-
...

용서하라 고향이여
하직인사도 없이 떠나온 나를 용서하라
이날 이때까지 아름다운 노래 하나
너에게 바치지 못한 나를 용서하라
그러나 기다리라 내 시의 살뜰한 요람이여
깃뽀하고 뜰기운 너의 산과 들에도
기어이 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 오리니
그날이면 읊으리라 너에 대한 맺음시
네가 준 목청으로 소리높이 읊으리라
아름다운 새 노래 너에게 바치리라!
-주체79(1990)년-

4. 《참말》만 쓴 시인

빛나는 시를 쓰기 위해 붓을 버리다가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면
혹은 웃는 이도 있으리-
허나 사람들의 심장에 오래 머무는 시는
때로 한생을 바쳐도 얻지 못하거늘
-시 《그의 시》 주체80(1991)년-

박산운은 실로 방대한 창작유산을 남겼다. 시집 《선동원의 목소리》, 《버드나무》, 《강철의 길》, 《내 고향을 가다》, 《내가 사는 나라》 등 8권의 시집들과 서사시 《두더지고개》를 비롯한 10여편의 서사시, 그밖에 장편소설, 산문집까지 합치면 무려 천여편에 달하는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자기 시에서 한생을 두고 아름다운 노래 한편 제대로 짓지 못했다고 고향에 용서를 빌었지만 독자들의 심장에는 그의 시가 불로 지저 지고 칼끝으로 새겨져 깊이 남아 있다.

그 《빛나는 시》의 창작비결은 무엇인가.

시집 《내가 사는 나라》의 머리말에서 그는 자기의 시론을 요약하여 《시는 참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상도 구전민요의 한구절에 있는 《노래는 참말/이바구(이야기)는 거짓말...》을 인용하면서 시인은 자기가 지어 예술적허구는 오직 소설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시에는 맞지 않는 말처럼 생각했다고 썼다. 물론 박산운이 예술적허구와 전형화의 원리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리 없다. 그는 체험의 문학인 동시에 서정의 문학인 시에서 구태여 그 어떤 예술적허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량심으로 시대에 사는 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대로를 깊은 서정속에서 펼쳐 놓으면 그대로 시대의 전형적인 주도적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 줄수 있다고 본것이다. 물론 박산운이 예술적허구와 전형화의 원리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리 없다.

그의 시는 말그대로 《참말》로만 엮여 졌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만 말했고 자기가 본것, 느낀것을 그대로 운율적으로 표현했다.

보통 시인들의 시집을 들추어 보면 시인-서정적주인공을 때로는 노동자로, 농민으로, 때로는 병사로, 기사로 변하면서 자기의 묘사시점을 부단히 바꾸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말하자면 시인이 각이한 인물로 《변신》하여 그의 시점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주정을 토로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시에는 그런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네》 [주체43(1954)]와 같은 몇편의 시들을 내놓으면 천여편의 시들에 일관되고 있는 서정적주인공은 말그대로 박산운자신이며 시에서 그려진 모든 시적세부와 체험세계의 단면들은 다 그자신의 생활체험그대로이다.

한생을 두고 쓴 그의 시들이 사실자료라는 의미에서조차 그대로 그자신의 자서전이며 내면세계의 일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인은 흔치 않을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그의 시에 화폭적으로 그려진 시적세부들의 의미심장한 진실성이다. 그의 시에는 주정토로보다도 화폭적묘사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묘사는 소설의 고유한 특성이고 시는 주정의 문학이므로 묘사가 있을수 없으며 다만 시적 《표현》, 서정토로만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문학발전사를 담은 부피 두꺼운 한 《저서》에서는 묘사라는 낱말이 제거되고 《표현》, 《토로》라는 낱말로 모조리 바뀌어 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에도 묘사는 있다. 그것도 지극히 구체적인고 또 심오한...

박산운의 시에서는 때로 단 한마디의 주정토로도 없이 그저 시적으로 묘사된 화폭들만이 펼쳐진 채 끝난 작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것이 이미 레증된 시 《미국병정》일것이다. 그러나 물론 시는 시인것만치 그 화폭들이 시인의 깊은 체험과 사색에 굴절되어 서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집안에 늙은이가 없어서
소작살이땅이나마 떼울가 겁이 나서
들판에 나갈 때면 짐이 되는 어린것을
집기둥에 처매놓고 뒤돌아 보며
남편을 따라 허둥지둥 집을 나서던
가난한 아낙네들이 많이 살던 마을

...
벌써 너댓살이 되면 험이 들어
일 나가려 서두는 어머니를 보면
제 손으로 띠를 안고 아장아장
기둥으로 다가가 작은 등을 돌리며
어서 처매달라고 어머니를 쳐다보면
그 아이들이 많이 자라난 마을

-시 《울지 않던 아이들》-

이 황토 산기슭
어지러진 무우밭을 보아라
천대 받는 인민의 충직한 아들 하나
맴시 있게 제껴 쓴 모자 비스듬히
날랜 걸음 자랑하며
휘파람을 불며불며 뼈라를 불이기도 하더니

...
항시 삶의 기쁨이 빛나던
지혜롭고 다정한 눈동자
구만리 장천에 새겨 둔채
총알에 꿰뚫린 가슴으로 땅을 밀며 밀며
마지막아픔에 못 이겨
함부로 뽑아 제껴 놓은

이 무우밭-

인민의 원쑤들이여
우리는 너희들을 잊지 않으리!

늦은 가을해살이 조용히
그우에 내려 앉은
이리저리 함부로 뽐혀 있는
피에 젖은 수다한 무우들
아, 이 무우밭에 난데사람을 넣지 말라!
-시 《무우밭》 주체35(1946)년-

례를 들자면 그의 시집을 다 옮겨야 할것이다.
시인 박산운은 추상적인 웨침이란 몰랐다. 언
제나 생동한 사실적화폭과 구체적인 생활적표상
에 기초하여 의미심장한 시세계를 이끌어 내군
하였다.
하기에 그의 시는 웨침으로, 문구로, 표현으로

가 아니라 산 화폭으로 우리 심장속에 그려 간다.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참말》만 쓰려는 그의 시정신은 그의 시를 민
족적인 색채로 짙게 물 들이고 있다. 그의 시어
의 민족성은 향토색이 짙은 정경묘사에 스며 있
고 민요풍의 운률과 민족생활의 화폭에도 담겨
있다.

《고향과 어머니》의 주제를 기본으로 한 그의
모든 시편들이 독자들의 가슴을 꼬집고 눈굽이
후덥게 하는것이 그속에 내 나라, 내 민족의 생
활감정이 그토록 또렷이 살아 있기때문인것이다.

그대는 시인으로서 행복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시인은 대답할것이다.
행복했다. 그러나 분렬의 슬픔만을 노래하며
고통스러웠다.

그대는 시인으로서 몇몇했는가?

이 물음에만은 단마디로 대답할것이다.

그렇다. 나는 《참말》만을 노래했다!

나는 과학자이다

리진철

나는 과학자
이름 모를 풀 한포기에도 사색을 얹어
탐스런 열매 주렁지우고 싶고
길가의 돌맹이 하나에도 탐구를 바쳐
귀한 보석으로 다듬어 내고픈

나는 과학자
창조의 낮과 밤속에
기쁨을 찾고 행복을 알던 나
오늘 여기서 똑똑히 알았노라
민족의 원한 서리어
해빛마저 차거운 여기 신천에서
과학자의 사명감을 두고
과학의 본분을 두고

걸음걸음 가슴엔 바위가 앉아
무거운 침묵속에 화약창고 지나고
들고 온 꽃송이 떨리는 손으로 놓으며
잔디마저 창날 같은 무덤들을 지나고...

나는 끝내 걸음을 멈추었다
박물관의 진렬장앞에서
유리장안엔 못이며 톱, 낫...
착실한 살림군의 공구함에 있어야 할
이런것들마저 살인흉기로 되었던 말인가

오오, 적수공권의 사람들앞에서
도끼며 낫, 톱을 찾아 쥔 악마들
그것들에겐 눈에 보이는 손에 쥐여 지는

그모두가 살인흉기였던 말인가

그러자 탕!-내 머리를 때리는 목소리
흙속에서도 두눈을 부릅 뜬 신천의 령혼들
산 자의 가슴을 치는 그네들의 웨침이여
-그놈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쥐여 주어 보라
그러면 그 꽃조차 피 묻은 살인흉기가 되리

파피와 살륙의 역사를 프랑카드로 내건
피 흘리며 흘러 간 세기들의 웨침이여
야수들에 의해 흔적조차 없어 진 창조물명세를
기소장으로 펼쳐 든 고결한 학자들의 웨침이여

인류의 문명을 위해
과학은 태어났건만
야만들의 손에서
무참히 유린되고 짓밟힌 과학
문명도 그 과학이 세웠고
파피도 그 과학이 아니던가

오 나는 지금 생각한다
야수들을 두고서는
과학으로 이룩한 우리의 창조물이
언제 재가 될지 모르리라는것을
내 바치리라
과학자 나의 사색, 나의 녀를
야만들의 손에 더는 통락되지 않는
우리의 창조물을 과학으로 담보할
나는 과학자이다

주로우에 새긴 자욱

강성일

1

시창밖으로는 목화송이 같은 뭉게구름이 층층이 겹을 이루고 꿈속에서처럼 떠흐른다. 부풀어 오른 솜뭉치마냥 탐스럽고 폭신해 보이는 구름더미들이 끝간데없이 펼쳐 저 동화세계마냥 신비스러운감을 자아낸다. 그우로는 온 하늘을 짙 채운 푸른 빛...

두눈을 가느스름히 좁혀 뜨고 아득하니 비껴간 푸른 하늘을 낚아채 바라보던 성옥은 별에 취한 사람처럼 머리를 살살살래 저으며 눈을 감았다. 눈시울째로 스며 드는 푸른 빛살, 그 푸른 빛을 배경으로 무수한 동그라미들이 맴돌며 날아오르는 풍선마냥 솟구쳐 오른다. 무지개빛으로 아롱진 그 동그라미들은 쌍겹을 짓기도 하고 외겹으로 끝없이 잇달리기도 하다가 문득 하나로 합쳐 저 엄청나게 커지면서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다가 슬며시 눈을 떠보면 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눈앞에 가득 안겨 드는 파아란 하늘, 끝없이 펼쳐 진 구름바다... 여름하늘가에 차넘치는 푸른 빛이 시원스레 안겨 오며 가슴이 확 열린다.

성옥은 그 하얀 구름장에 실려 푸른 하늘 저 끝까지 둥 떠가는듯 한 환영에 사로잡혀 눈을 스르르 내리감았다. 이제는 멀리 흘러 가버린 어린 시절의 일들이 문득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 진다.

...푸른 잔디가 덮인 나지막한 언덕, 아이들이 한발 덮여 벽적 뚫는다. 떠들어 대는 그 소리를 타고 수많은 연들이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 오른다. 저마끔 기세를 올리는 총각애들속에 처녀애들도 가끔 섞였다.

별의별 연이 다 날고 있다. 네모난 연, 세모진 연, 앞머리가 뾰죽한 연, 외꼬리연, 세꼬리연, 무려 다섯개씩이나 되는 꼬리를 욕심스레 무겁게 드리우고 깨꾸막질을 하는 연, 꼬리가 서로 엉키고 엇감겨 떨어 지는 연...

앞머리에 공화국기를 그린 성옥의 연이 제일 높이 떴다. 계집애가 무슨 연놀이냐고 놀려 대던 사내애들 보란듯이 바람을 타고 훨훨 잘도 솟구쳐오른다. 성옥은 신바람이 났다. 연줄을 풀어 주며 내닫는 그의 두볼이 앵두빛으로 빨갛게 익었다.

...운동장이다. 성옥은 뒤따르는 동무들을 모두 떨구고 맨 앞장에서 달린다. 저앞에 흰 회가루로 표시해 놓은 《결승선》이 보인다. 그옆에 호각을 입에 문 체육선생님이 긴장한 눈길로 초시

계를 들여다 보며 서 있다. 동무들의 가쁜 숨소리가 뒤를 바싹 물고 따라 온다. 아니, 지면 안돼!

성옥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힘을 다 짜내며 내달린다. 드디어 《결승선》에 성옥이의 작은 발이 맨 먼저 닿았다. 그 순간 허공을 가르며 《정성옥 1등!》 하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요 이악쟁이 같은것》 하며 자기 허리에도 안 오는 어린 성옥을 번쩍 쳐들어 안고 빙그르르 돈다. 좀 어지럽긴 했지만 성옥은 그것이 좋아서 맑은 소리로 깔깔 웃었다. 흰 구름 등실 뜬 파아란 하늘이 빙빙 돌아 간다. 가없이 펼쳐 진 푸른 하늘가 멀리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지저귐과도 같은 성옥의 웃음소리...

성옥의 눈앞에 못 잊을 정다운 얼굴들이 계속 떠오른다. 인민학교시절, 그때 총각이던 체육선생님의 여드름 많던 얼굴이며 울대뼈가 유묘하던 목 그리고 선생님의 흰 이발에 물려 있던 닳아서 반들거리는 노란 구리호각이며...

《륙상선수는 누구나 주로우에 찍어 나가는 자기 발자국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새겨 볼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 목소리는 체육학원 강좌장선생님의 목소리이다. 엄격하면서도 인정 많은 선생님...

그때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온 겨레가 지금도 통분해 하는 63년전의 그 비극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여 주셨지...

...수백키로메터를 줄창 쉬임없이 달려 온 렬차는 그만에야 지쳤는지 한숨이라도 내쉬듯 폭-식 폭-식 김 빠진 소리를 게홀리며 느릿느릿 역구내에 들어 와 멈춰 섰다. 무변광대한 씨비리의 광야를 밤낮없이 내달리는 무묘한 렬차러행에 언더리가 난 렬객들은 차가 홈에 멎어 서기 바쁘게 옆지른 광주리에서 사과알 쏘아 지듯 쏘아 내렸다. 맨 마감으로 훈련복을 갈아 입은 일본마라손 선수들이 내렸다.

《렬차는 이 정거장에서 급수, 급탄을 해야 하기때문에 40분간 정차한다. 훈련을 해야겠다.》

교수염을 종긋거리는 사또감독을 흘겨 보는 승룡의 불깃한 얼굴에 불만이 어렸다. 기정은 그저 덤덤히 서서 감독의 말을 들을뿐이었다. 인총이 불비는 속에서 역 봉사원들이 홈의 여기저기에서 갖가지 음료와 과실들을 팔고 있었다. 기정은 북적대는 사람들의 곁을 지나가면서 홈 건너편 화물렬차에서 포장을 벗기고 있는 선반들을 바라보았다.

《손형, 저 선반기가 바로 최신 <데. 이. 빼>선반인데 그 자호의 의미는 <따라 잡고 앞서라>입니다.》

대학생인 승룡은 번쩍거리는 선반을 가리키며 기정에게 알으며 주었다.

《거 이름이 좋군요. <따라 잡고 앞서라>, 마라손정신인데요.》

기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시선으로 역구내에서 봄비는 로씨야사람들의 활기 띤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흰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가 난팍 찍힌 기정의 훈련복을 흘려 보는 로씨야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에 가까운 랭담이었다. 이때 사또감독의 가시 돋친 호령이 채찍처럼 울렸다.

《<마라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승룡의 매운 눈찌가 사또의 이마뺨을 향하여 총알같이 날아 갔다. 기정은 치밀어 오르는 분을 꼭 참고 물었다.

《어디로 달리잡니까?》

역구내에는 달려 본만 한데가 없었다. 구내에는 바래고 맞는 사람들과 소풍하러 쏘아 나온 러객들이 서로 비좁게 뭉켜 돌아 가고 있었다.

《가만, 이 철길레루를 따라 달리자.》

《여기로 어떻게 달린다고 그러니까?》

승룡이가 참지 못하고 내쏘았다.

《야! 왜 못 달린다고 그래. 베를린까진 아직 열흘도 더 가야 하는데 그냥 건들거리자는건가?》

《아무리 그래도 침목을 밟고 달리다가 발목이라도 상하면...》

《싫으면 그만두라. 경기에서 패하면 너부터 시작해서 모두 배 찢고 죽어야 한다!》

칼질하듯 하는 그 목청에 소름이 끼쳤다. 이국 땅에서 받는 수모는 갑절이나 통분했지만 칼자루 쥔 놈과 맞설수는 없었다. 기정은 속으로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누르며 입을 꼭 다물고 레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뒤로 일본선수들도 따라 달렸다.

《앵이, 사또 개자식. 우리가 톱줄 빠지는걸 보지 못해 죽어 가는 놈이니까. 현대 손형, 그냥 이렇게 뛰자우?》

뺨이 곤두선 승룡은 묵묵히 달리기만 하는 기정에게 화풀이를 하듯 두덜거렸다.

《남형, 베를린까지만 참읍시다. 모든 분풀이는 주로에 나신 다음... 그 다음에 회계합시다.》

승룡은 더는 말이 없었다. 기정과 승룡이가 앞에서 달리고 그뒤로 일본선수들이 따라 왔다. 그들은 훈련때이건 경기때이건 언제나 두 선수의 뒤로만 따라 달렸다. 조선선수들에 대한 멸시와 《내지인》으로서의 우월감은 이룰데 없었으나 그들의 실력에 놀리워 어쩔수 없이 추종하는것이고

또 자기들의 주법은 두 선수에게 로출시키지 않고 그들의 주법은 모조리 파고 들겠다는 자기들 대로의 타산도 있었던것이다.

《스포이!》(첫!)

난데없이 짹 소리를 지르며 불쑥 뛰쳐 나온 쏘련경비대원이 시퍼런 총창을 그들에게 겨누고 무섭게 육박해 왔다. 쪽배같이 생긴 모자를 빼투름히 제껴 쓰고 뚜벅뚜벅 다가오는 껍두룩한 병사의 기상은 자못 험악했다. 기정이네 뒤에서 멀찍이 따라 오던 두 일본선수는 비실비실 뒤걸음질 하더니 급기야 줄행랑을 놓았다.

《아니 남형, 이 쏘련병정이 왜 이럴가요?》

기정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의 기름한 얼굴에 먹구름 같은 공포가 비졌다. 승룡이도 창황중에 당한 일인지라 어쩔바를 몰라 했다. 좀 떨어진 곳에 보초막이 있는것을 보면 이곳이 위수구역이거나 금지구역이 아닌지. 보초병은 쇠된 소리로 무엇이라고 계속 욕질했다. 승룡과 기정은 잘 돌아가지도 않는 허를 까부려 가며 발은 외국어 지식을 총 발동하여 의사소통을 해보려 했으나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무가내로 포승 끈을 꺼내더니 기정이부터 묶으려 들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릴 묶는거요?》

급해 난 기정의 입에서 조선말이 튀어 나왔다. 기정이 손짓, 몸짓을 섞어 가며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것을 알리려 하자 보초병은 총탁으로 기정의 어깨를 내리 쳤다. 순간 날쌔게 승룡이가 그 총탁을 붙잡았다. 그때 보초막에서 호각소리가 나더니 평상모를 쓴 군관이 뛰어 왔다. 께께거리던 보초병은 큰 공이라도 세운듯이 등등해서 기관총을 뱉다 쏘는듯 한 빠른 말씨로 군관에게 보고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 들을수 없는 그 귀따가운 사설중에 승룡은 《일본놈》이라는 말과 《간첩》이라는 로씨야말만은 가려 들었다.

《우린 일본간첩이 아니요. 조선사람이란 말이요. 손형, 이 로씨야병정이 우릴 일본간첩으로 오해하고 있소.》

승룡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하게 소리쳤다. 기정의 낯색이 시커매 졌다.

《우린 조선사람이요. 간첩이라니. 오류에 참가하는 체육선수란 말이요. 우린 일본간첩이 아니요.》

기정은 서투른 영어로 이것저것 주어 섞였으나 보초병은 주먹을 쳐들며 당장 쥐여 박을듯이 위협하면서 그들이 레루우로 달린 사실과 침목, 레루의 폭과 길이를 재고 있었노라고 지휘관에게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방대한 변방을 그리안고 새로운 대전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예감하고 있던 쏘련은 만단의 림전태세의 일환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철도규격과 완전히 다른 특수한 규격의 레루를 제정하고 엄격한 철도경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정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자기들의 훈련복 가슴복판에 붙어 있는 일장기를 가리키며

적의가 번뜩이는 눈으로 위협하는 보조병의 시선에서 사태를 일주 짐작할뿐이었다.

《예익, 이따위 같지 않은...》

기정은 당장 잡아 뺄듯이 혼련복의 일장기를 비틀어 쥐었다.

그러던 기정은 살모사처럼 소리없이 다가와 도끼눈을 하고 선 감독을 알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렬차는 계속 달렸다. 창밖에는 씨비리의 울창한 수림이 끝 간데없이 펼쳐 지고 있었다. 간단없는 렬차의 진동에 몸을 맡긴 기정은 시름겨운 표정으로 창밖만 묵묵히 내다보고 있었다. 수영선수 히데코가 상냥하게 웃으며 그를 위로했다.

《기정씨, 너무 상심 말아요. 신경이 예민해 진 로씨야사람들이 지나쳤군요. 참, 책을 보시겠어요? 기꾸찌 깡의 소설이에요. 꽤 재미나요.》

기정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 기정씨, 예선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승한 기정씨에게 꽃다발을 주던 일이 생각나요?》

기정은 또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의 험결한 체격을 탐내는듯 한 히데코의 은근한 시선이 알곡에만 느껴 졌다.

《하긴 그때 꽃다발을 들고 달려 나갔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여야지요.》

히데코가 애교 있게 빙그레 웃자 웃입술에 가리워 저 있던 뺨뺨이 곱게 드러나며 반짝거렸다.

용모는 그리 빼여진데 없어도 매력적인 미소로 인상적인 처녀였다.

기정은 바투 깎은 머리를 몇번 손가락빛질로 쓸어 넘길뿐 응대를 않고 있었다. 별에 그슬린 그의 기름한 얼굴은 무표정했다. 방금전에 있던 사건으로 울적해 진데다가 좌중에 가득 찬 일본 선수들의 배타적인 심리를 피부로 감각하고 있어 모든게 귀찮았다. 히데코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기정의 무릎을 살짝 건드리며 또 말을 걸었다.

《기정선 어쩌면 그렇게 잘 달려요? 난 매번 경기때마다 보는데 확실히 기정씨의 주법은 특수해요. 비결이 있겠는데...》

기정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승룡은 자꾸 기정의 울화만 덧드리는듯 싶은 히데코를 아니꼽게 흘겨 보았다. 그럴수록 히데코는 짜장 교양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승룡은 동네집 해출레미를 어르는듯 한 눈길을 그에게 건넸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기정의 건너편에 런닝그바람으로 앉아 곱의 배허벅 같은 털부숭이가슴에 활활 부채질을 해대던 서양격검선수가 새암바리같이 심술 부린다.

《히데코양, 그 비결은 내가 잘 알지.》

무엇을 말하자는지는 몰라도 눈알을 뽕뽕 굴리는 그자의 발은 미간을 보며 기정은 발치의 뺨을 보는데 한 씨늘함을 느꼈다.

《당신이 뭘 알겠어요.》

《알지. 그 비결이란 아주 심오한거야. 혈통문제이거든. 히데코양, 경성 가봤어?》

《아니.》

《못 가봤어? 하, 그럼 그 유명한 본정거리도 못 봤겠군. 유감인걸. 서울 가면 인상적인 첫 특징이 뭐고 하니 인력거 많고 배달부 많은거야.》

무슨 개수작이 나오겠는지 바짝 긴장해 진 기정과 승룡은 온몸이 귀가 되어 듣고 있었다.

《...어둑새벽부터 거리는 달음박질하는 인력거 군들과 배달부들로 부산스럽지, 그런데 그 인력거 군들과 배달부들은 직업상 하루종일 내달리고 있으니 그 심장이 말심장이나 갈다 그거야. 하하하, 그래서 그중에 마라손선수가 많이 나오지. 손군은 아마 서울태생일테지. 그러니 모름지기 손군의 조상들이 인력거군이거나 손군이 배달부였거나...》

기정의 얼굴에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확 몰려 들며 시뻘겋게 물들었다. 어찌나 힘 주어 어금이를 앓다물었는지 턱뼈가 금방 부서져 나갈것 같았다.

(이 쪽발이새끼야. 난 평북 의주출신이다. 배달부가 아니라 당당한 중학생이다.)

기정은 너털웃음치는 그자를 태워 버릴듯 한 시선으로 쏘아 보며 주먹을 쥐고 일어 났다. 그러자 그 격검선수도 해보자는듯 마주 일어 나며 선반우에서 격검채를 나누어 들었다. 거의 동시에 승룡이도 자리를 차고 일어 서는데 격검선수를 꾸짖는 히데코의 목소리가 맵싸게 울렸다.

《그건 모독이에요. 스포츠를 비속화하고 마라손을 모욕하는 비렬한 중상이란 말이에요. 현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남작이나 명성 높은 폴스또이백작도 마라손애호가였어요. 무식한 소리 말아요!》

히데코는 당장 무슨 일을 치고야 말것 같은 둘사이에 도담하게도 가로 막아 나섰다. 이때 차칸문이 잡아 채듯이 벌컥 열리더니 썩 바람을 일구며 사또감독이 들어섰다. 당장 누구라도 잡아 먹을듯 서슬이 퍼렇다.

《여, 손기정. 남승룡!》

(이놈은 왜 또 끼여 들어?)

기정은 분김에 머리조차 돌리지 않았다.

《야, 너희들 로스께아오까(로씨야경비대원)에게 하던 수작 다시 해봐.》

처음엔 어안이 빙빙했다. 이건 또 무슨 생트집인가 했더니 아뿔사, 차츰 짙어는데가 있었다. 사또가 입을 옥물고 독을 쓸 때마다 검정 모직천을 오려 붙인듯 한 코수염이 접혔다 퍼졌다 하며 스산한 음영을 남긴다.

《뭘. <우린 조선스포츠요. 일본놈간첩이 아니요> 건방진 자식.》

사또는 기정의 귀통을 불이 나게 번쩍 갈겼다.

《너 같은 조선거지가 누구덕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양? 그따위 비국민적 발언을 다시는 용서 안한다!》

기정은 눈앞이 아득했다. 모멸의 감정에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사또가 찢어 발길듯이 희번득거리며 나가버리자 《틸부승이》도 득의양양해서 《조선스포츠? 주제에...》 하고 제 자리에 들어 앉는다. 기정의 온몸이 솟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는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도로 뛰쳐 나갔다. 그뒤로 승룡이가 온몸을 화들화들 떨면서 따라 나왔다. 켈차승강대 복도에 서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기정의 순한 두눈에 피여오르는 그렇그런한 눈물에 이국의 하늘이 비껴 흐른다. 눈곱에 가득가득 차오르던 그 눈물방울은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부서져 내린다. 가슴속에 타다 남은 울분의 재무지에서 꾸역꾸역 끌어 나오는 내굴이런듯 단내 서린 한숨을 두서없이 토하던 승룡은 눈곱을 주먹으로 뺨 닦고나서 기정의 잔등을 터져라 내리쳤다.

《손형, 우리 허를 가로 물고 죽더라도... 죽더라도 달리고 또 달려... 우리 조산사람의 이름에 온 베를린이, 유럽천지가 진동케 합시다!》

피를 뿜는듯 한 절규이다. 기정은 주먹으로 눈곱을 닦았다. 그 눈에 새파란 불이 펄펄 인다.

억눌린 분노는 파렬구를 찾아 소용돌이치는 용암마냥 사납게 매상쳤다.

《기어이 족발이들을 눌러 놓을테요. 다시는 조선거지라는 악다구니질 못하게 자갈을 물릴테요.》...

2

세빌랴는 폭양에 시달리고 있었다. 싱싱하던 가로수들도 굵은 물에 데쳐 낸 쫄나물처럼 휘줄근해지고 반반하던 아스팔트도 지글지글 녹아 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륙상선수권대회가 진행되는 도시는 거리로 펼쳐 나온 사람들의 열기로 더욱 끓어 번졌다. 피부색과 언어를 달리 하는 세계 각국의 각이한 인종이 이 도시에 한꺼번에 쏟아져 와 제각각의 기분과 흥에 떠서 제 나름의 목소리로 떠들어 대고 있는것이다. 거리에 불비는 인종의 물결속에 여러 나라의 기발들도 언뜻언뜻 보인다. 단색기가 있는가 하면 삼색기도 있고 또 성조기를 가지고 있는대로 옷을 지어 입고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도 있다.

창밖을 내다보던 성옥은 왜선지 속이 메스거리는감을 느끼며 창가에서 물러 섰다. 형태와 색조에서 혼탁함을 자아내는 가구들과 방안장식,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여러가지 색을 마구 뒤섞어 발라 놓은듯 한 《미술작품》, 방안을 감도는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냄새... 며칠째 계속되는 무더위와 입에 맞지 않는 호텔식사로 하여 식욕도 떨어 지고 정신적

으로도 도무지 안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래일은 경기이다. 이런 상태로 경기에 나간다면?...

성옥은 탁자우에 놓여 있는 가방안에서 자그마한 사기단지를 두손으로 살며시 꺼내어 쓰다듬었다. 손바닥을 통하여 매끈하고도 산뜻한 기운이 옮겨 와 기분마저 상쾌해 졌다. 단지가녀에 푸른줄, 누른줄이 무늬를 짓고 엇갈려 넘어 갔는데 그 아래 금빛 테두리안에서는 곤충색으로 그려진 잉어 두마리가 서로 꼬리를 엇말아 감고 굽니는 물결속에 노닐고 있다. 푸들쩍거리며 꼬리로 차올린듯 한 푸른 물방울이 단지의 아구리에까지 튀어 난 것처럼 재미나게 그려진 캄찍스러운 그릇이었다. 성옥은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가슴이 쨍 열리는듯 한 청신하고 감미로운 향취가 풍겨 나와 서서히 방안으로 퍼져 나갔다. 아직 익숙되지 않은, 아니 익숙될수 없는 이국의 정서와 풍미가 끈끈이 내배여 있던 호실방안에 고향집 부엌에서 옮겨 온듯 한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다. 성옥은 눈을 꼭 감고 게걸든 사람처럼 그 향기를 정신없이 들이 마셨다. 토장의 고유한 특한 냄새에 고소한 깨잎냄새, 잘 다져진 마늘과 이겨진 생강의 씹싹하고 알싸한 냄새...

단지안의 기름기 도는 고추장의 표면에는 잘게 찢어 우려서 버무려 넣은 더덕뿌리가 비죽비죽 박혀 있는데 희끗희끗한 그 뿌리들이 신비로운령약처럼 느껴 지는것이였다. 성옥은 손가락으로 먹음직스러운 더덕뿌리 한개를 끄집어 내어 군침 도는 입안에 넣었다. 꿀맛인들 이에 더 할가. 어린시절 운동회가 끝난 뒤 연거퍼 들이키던 고향의 달디단 웅달샘 물맛과 원족을 떠날 때면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려 주던 떡에 바른 꿀맛,

이동훈련의 나날에 맛 보던 황주의 달콤한 사과맛이 어석어석 씹히는 한뿌리의 더덕맛에서 다 떠오른다. 정신이 번쩍 든다. 코마루가 싱긋거리고 눈뿌리가 열리는것 같다. 온몸에 생신한 활력이 뿜어 나가는것 같았다. 성옥은 어린애같이 손가락으로 고추장을 한번 푹 찍어 허끝에 댔다. 잘 조화된 갖가지 양념과 조미료의 감미로운 맛을 낱낱이 갈라서 맛 보며...

떠나기전에 고향에 내려 갔을 때 이 고추장단지를 안겨 주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린다.

《성옥아, 내가 무엇을 더 말할게 있겠니. 내 마음이야 너도 잘 알겠지. 너야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달리지 않나...》

성옥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 났다...

둥그런 아치형 창문으로 희블해 지는 동천하늘이 보였다. 밤을 새우며 울분을 토하던 승룡은 바닥이 난 술병을 집어 던지며 푸념조로 말했다.

《손형, 이거 고추장생각이 못 견디게 나누만요.》

기정은 피곤이 실린 눈으로 승룡을 얼핏 쳐다

보고나서 손가락빛질로 발은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나도 토장국을 꼭 끓여 먹고 싶군요. 현대 이 베를린에서 그걸 찾는건 바다에서 후추를 찾는 격이지요.》

승룡은 침대우에 벌렁 나가 누워 녀성의 육체부분을 형상한 천정장식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이때 손기척소리가 났다. 기정이라도 승룡이도 응대를 앓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척이 없어 방문자는 슬며시 방문을 열더니 스스럼없이 들어 서는것이였다.

《안녕들 하오?》

뜻밖의 조선말소리에 두사람은 머리를 돌렸다. 커다란 가방을 둘러 메고 색안경을 낀 사나이가 그들앞에 서 있었다.

《누구신지?》

《불청객》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기정과 승룡은 동시에 환성을 지르며 손님에게 덮쳐 들었다.

《권선생님!》

《손군, 남군!》

권태하는 10차올림픽때 마라손에서 9위를 한 사람이였다. 그는 그때 비록 높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뛰여 난 실력을 보여 주어 룡상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룡상을 지망하는 조선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사람이였다. 그는 이번에 베를린에 온 두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얼마간의 돈까지 마련해 가지고 먼 길을 찾아 온것이다.

《선생님, 정말 눈썹 사나운것도 많고 비용을 감당하기도 가쁘고 음식도 맞지 않아 고생이였는데 감사하기 그지 없소이다.》

승룡은 권태하가 꺼내준 고추장단지를 받아 들더니 즉석에서 유지를 벗기고 폭 퍼서 한술 입에 넣었다.

《선생님, 우린 두끼나 굶었습니다.》

《왜?》

권태하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보이포트를 하자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우린 경기참가를 그만 둘가 합니다.》

《그만 두다니. 그게 무슨 수작인가!》

태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승룡은 고추장단지를 한권으로 밀어 놓고 머리칼을 싸쥐었다. 기정은 그간 있던 왜놈들의 비렬한 책동에 대하여 날날이 발가 놓았다. 세명이상 참가할수 없게 되어 있는 올림픽 마라손경기에 조선선수가 두명이나 기본선수로 출전하게 된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본 룡상련맹측은 조선선수를 어떻게 하나 한사람 빼고 대신 일본선수를 넣으려고 갖은 술수를 다 써가며 베를린에 도착한 다음에도 4번이나 출전예선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매번 1, 2등은 기정과 승룡이였다. 어제 있던 마지막 20마일경주때 감독은 일본

선수들인 시오아꾸와 스즈끼를 800m 나 잘라 먹고 도중에 끼여 들게 하였다. 그러나 허를 깨물고 달린 두 선수를 이길수는 없었다. 경기가 끝난후 격분한 승룡은 일본선수들을 차례로 뺏다 쫓았다.

《개새끼들아, 너따위도 선수야?》

그리고는 혼련을 포기하고 호실로 들어 와 술을 퍼마시며 밤을 새운것이였다....

태하는 침중한 표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없이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끓여 오르는 분을 식일수 없어 거친 숨을 몰아 쉬는 태하의 눈곱에서 물기가 번쩍이는것을 띄여 본 기정은 창출간에 몸둘바를 몰라 하며 말 없이 천정만 바라보았다.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이 어델 가겠소. 그러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보이포트한다고 해서 정녕 복수가 되는것도 아니지 않소. 비록 가슴에 단 기발은 원수의 기발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다리에, 심장에, 온몸에 뛰는 피는 겨레의 피가 아니요! 그대들의 뼈와 살은 민족이 준것이 아니란 말인가. 꼭 참가해야 하오. 참가해서 일본선수들을 눌러야 동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대들의 승리소식에 동포들이 만세를 부를 때 그것이 곧 독립정신의 또 한 웨침이 되지 않겠소.》

태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였다.

...한나라 원제시대에 왕소군이라는 관녀가 있었는데 경국지색이라 일컬을만 한 가인이였다. 그때 원제는 궁녀들의 초상그림을 보고 후궁의 궁녀들을 총행하고 있었다. 소군은 자신의 미모에 자신이 있었으므로 왕모연수라하고 하는 화공에게 퇴물을 먹이지 않았다. 왕모연수는 우정 소군을 추하게 그려 임금에게 올렸다. 소군은 끝내 임금에게 불리울 기회를 잃었다. 후에 한나라가 흉노와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궁녀 하나 바치기로 했는데 《못 생긴》 소군을 바치기로 했다. 드디어 소군이 흉노로 떠나는 날 원제는 그때에야 비로소 소군의 미모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이미 일은 결정된 뒤인지라 어쩔수 없이 소군은 흉노에게 가버리고 말았다....

《무릇 사람이 성공하려면 재주만 가지고도 안되고 자존심만 세워도 안되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면 그뿐이고 운수가 좋아도 그것을 탈 나름이요. 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에게 먹혔지만 재주와 용기야 왜 일본보다 못하겠소? 세상 잘 났다는 사람들이 다 참가하고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대국들이 다 참가한 이 제전에서 자네들이 축잡힐가보아 같지 않은 꼴로라도 이렇게 찾아 왔소. ... 10차올림픽때 내가 일본선수에게 원통하게도 뒤져 필생의 한을 남겼는데 자네들이 제발 내 복수를 좀 해주오. 내 그대들에게 끓여 앓아 빌겠소!》

《선생님!》

두사람은 권태하의 무릎아래 엎어 지고 말았다. 탁상위에 땀그라니 놓인 고추장단지가 세사람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3

고무바닥의 룡상주로는 수십명의 여자마라손 선수들이 나와 서서 출발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형경기장 내부의 돌레를 빙 돌아 가며 배열된 좌석들에 빼곡이 들어 앉은 관람자들이 와와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에서 휘파람소리가 간단없이 울린다. 곤청색의 간편한 경기복을 입고 주로에 나선 성옥은 발끝을 모두어 붙이고 몇번 굴신운동을 하고나서 허리를 쭉 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멋진 경기복을 떨쳐 입고 룡동적이고도 유연한 몸짓을 하는 선수들모두가 성옥이보다 머리 하나씩은 더 큰것 같았다. 저저마다 의기양양하여 보란듯이 늘씬하고 미출한 다리들을 이리저리 놀리면서 어깨를 으쓱거린다. 선수들의 경기복 가슴부위에 뚜렷이 찍힌 국기들을 보는 성옥의 가슴 한구석에는 죄스러운 감정이 밀물처럼 넘쳐 났다.

오늘 아침 성옥은 단장에게 복장에 국기를 달지 않고 출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뭘요?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동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성옥은 머리를 쳐들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단장동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치렬할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겠습니다. 위성으로 실황중계하는 보도진은 직승기를 동원하여 공중촬영까지 한다는데...》

성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만약 천번중 한번의 실수라도 하여, 우연적인 돌변사고라도 일어 나 도중에 제가 쓰러지더라도 한다면...》

《혹시 동문... 신심이 없어 그러는게 아니요?》

단장의 눈에 의혹이 가득 실린다.

《저의 신심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평가하여 주십시오.》

성옥의 태도는 침착하고도 결연했다. 단장은 무엇인가 더 말하려고 하다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신념과 맹세로 번쩍이는 성옥의 슬기로운 눈빛에서 모든것을 다 읽었던것이다...

출발시각이 다가왔다. 선수들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긴장하게 출발자세를 취했다. 심판의 손에 들린 신호권총이 입을 벌리고 허공을 쳐다보았다...

...

《탕!》

신호총성이 울렸다.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베를린 주경기장을

빠져 나온 선수들은 거리를 따라 계속 달려 나갔다. 세계 각국에서 엄선되어 온 50여명 마라손 선수들의 역센 다리마다에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기개를 떨치려는 각오로 약동하는 힘이 차고 넘쳤다.

기정과 승룡이는 서로 발을 맞춰 가며 달리었다. 《일본의 준족》이라고 하는 시오아꾸선수를 경기시작 10분만에 멀찌감치 떼팽개쳐 버린 그들은 선두그루빠에서 계속 힘 있게 달려 나갔다.

베를린의 거리거리를 돌고돌아 끝없이 뻗어 간 주로는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 들었다. 화장석으로 포장한 도로의 량켄에 술한 관중이 몰려 서 환호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코를 맞댄 건물의 창문마다에 《만》지가 그려 진 나치스기발들이 주련이 내걸렸는데 어떤 기폭은 어찌나 큰지 축드리워 달리는 선수의 머리에 닿을 지경이었다. 가끔 오류이 새겨 진 올림픽기발도 보인다. 베를린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저희 선수들을 응원한다. 중학생들은 꽃보라를 뿌려 준다.

《손형, 나를 보지 말고 채오!》

《알겠소. 남형, 귀환점까지는 조절하십시오.》

기정은 속력을 내어 앞으로 쭉 빠져 나갔다. 온몸에 땀이 물처럼 흘러 내린다. 작열하는 태양이 정수리며 목덜미며 얼굴이며를 사정없이 지저댄다. 하늘에는 버선짝만 한 구름조각 하나 없다. 두주먹을 부르친 기정의 량팔굽이 기관차의 피스톤처럼 박력 있게 왕복운동을 한다. 저 멀리 귀환점이 바라보였다. 앞에는 아직도 10여명의 선수들이 달리고 있다. 맨 앞장에는 선수권보유자이며 가장 유망한 우승후보자인 아르헨띠나의 자바라가 달리고 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고향소리가 들려 왔다.

《손기정, 앞을 보라. 잡아라!》

귀환점 가까운 인도로에서기다리고 있던 권태하가 소리쳤다. 태하를 알아 본 기정은 주먹을 쳐들며 벌쭉 웃었다. 그는 《자바라》의 이름을 대주는줄 알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맞받아 소리쳤다.

《잡으라!》

《자바라인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 잡으란 말이야. 4분이나 뒤졌어!》

태하는 벌쭉 어성을 높였다.

《좀 더 두고 보십시오.》

그의 여유 있는 표정에 다소 안심된 태하는 주로에 뛰어들어 함께 달렸다.

《기정, 문제 없다. 이길수 있어.》

《물론입니다. 권선생, 자신 있습니다.》

《물 마시겠나.》

태하는 큼직한 물병의 마개를 뽑았다.

《마시지 않겠습니까. 끼얹어 주십시오.》

증기가마에서 썰넌것 같은 기정의 온몸에서 내

뽀는 후끈한 열기가 태하의 몸에까지 미쳐 왔다. 태하는 기정과 함께 달리며 그의 머리와 목에 물을 끼얹어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자리에 떨어 졌다. 승룡을 기다리는것이다.

(권선생,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정은 더욱 속력을 높였다. 귀뿌리로 바람이 휘휘 소리를 내며 지난다. 그는 헐썩거리며 달리는 자바라의 곁을 비호같이 내달아 앞으로 쭉 빠져 나갔다. 어느새 쫓아 왔는지 권태하가 자전거를 끌고 기정을 따라 달리며 소리쳤다.

《잘한다 잘해. 이젠 하버를 제껴라!》

그 찰나 자전거가 어디에 걸체였는지 태하의 몸이 콘크리트바닥에 공중제비로 나가떨어 졌다. 무릎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태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고 기정에게 고함쳤다. 태하는 얼른 일어 나 절룩거리면서도 자전거를 대충 손질해가지고 다시 올라 탔다.

승룡은 아직 중간대렬에서 달리고 있었다.

《승룡, 기정을 따르라. 기정이가 자바라를 앞섰다!》

《알겠습니다. 권선생, 안심하십시오.》

승룡의 목소리는 여유작작했고 호흡상태도 아주 좋아 보였다.

《남승룡, 이제 비스마르크언덕에서 모두 잡아 제껴라!》

드디어 승룡이가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귀환점에서 24번째이던 승룡은 비스마르크언덕에서 13명이나 뒤떨구어 버렸다. 태하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 달리면서 《좋다. 또 하나 떨구었다. 다시 하나 더 제껴라!》 하고 목이 터지게 웨쳤다. 버림 받은 식민지의 청년들, 가없는 자기의 후배들이 강대국의 최우수선수들을 하나하나 제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하는 태하는 미칠듯 한 환희로 날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럴 때 보면 그는 명색 없는 한낱 려행자가 아니라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용장인듯 싶다. 그는 불품없이 우그러든 자전거이건만 준마의 고삐를 틀어쥔 심정으로 곁에서 번쩍거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외국감독들을 눈아래로 내려다 보았다.

승룡은 맨 앞장에서 달리는 기정을 알아 보고 무적의 힘이 용솟음침을 느꼈다. 승룡은 필사적으로 내달아 선수권보유자인 자바라를 뒤떨귀 버렸다.

《남승룡, 잘한다. 계속 앞으로!》

태하의 열에 뜬 목소리가 간단없이 채찍질한다.

(손형, 고맙소. 손형의 덕분이요.)

활기에 넘친 승룡의 얼굴에는 일본에서 올림픽 선수선발예선경기때 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때 일본륙상련맹에서는 룡상의 정수라고 하는 마라손에 조선사람이 둘씩이나 선발되는

것을 꺼려 벌의벌 흥책을 다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손기정의 절대실력을 무시할수 없으니 다음가는 실력자인 승룡을 때버리려고 계책을 꾸민것이다.

어느 날 이것을 알아 챈 기정은 승룡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내어 한참동안 머뭇거리다가 이 사실을 알려 주고나서 다음번 예선때 자기가 속도를 조절하겠으니 승룡은 최대마력을 내라고 말했다. 기정의 꾀를 알게 된 승룡은 단박 기절했다.

《손형, 난 개평군이 되고 싶지 않소.》

《남형은 내 심정을 몰라 주누만요.》

《손형, 그러지 마오. 이젠 스포츠정신에 어긋나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시오.》

《남형, 스포츠정신에 어긋날지는 모르겠소. 그러나 왜놈들이 조선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한사람이라도 때버릴러구 획책하는데 우린 머저리라구 가만 있겠소? 제발 노엽게 생각지 말고 내 말대로 해주시오. 조선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참가해야 할게 아니요. 예? 남형, 제발 부탁이요.》

불집게같이 달아 오른 승룡의 손이 기정의 뜨거운 손을 짝 그러 잡았다. 이리하여 승룡은 신기록보유자인 기정을 이기게 되었고 일본륙상련맹은 그를 베를린행렬차에 태우지 않을수 없게 되었던것이다....

승룡은 지금 5등권에서 달리고 있다. 기정은 영국선수 하버를 뒤떨구고 맨 앞장에서 달린다. 이번 올림픽개최를 위해 도이칠란드가 품 들여 일신시킨 베를린의 호화로운 거리들이 나타난다.

폭넓은 아스팔트길의 양쪽에 주름장식을 한 커다란 흰 대리석원주들이 주련이 세워져 있고 대기둥의 꼭대기에 《만》자마크를 거머 쥔 독수리를 형상한 조각이 놓여 있다. 조형미와 현대감을 나치식식으로 구현한 건축양식이었다.

인도로에 가득 나와 선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환호를 올린다. 기정은 드디어 주경기장으로 들어 가는 코스에 들어 섰다. 주경기장이 가까와옴에 따라 도로주변에 사람사태가 났다. 대회의 절정을 이룬 마라손을 취재하러 각국의 기자들이 파리떼처럼 몰려 든다. 기정은 호화의 극치를 자랑하는 올림픽 주경기장입구에 세운 현판 《세계의 젊은이들을 부른다》를 지나 경기장주루에 들어 섰다. 기정의 억센 두다리가 더욱 기세차게 내닫는다. 기정은 자기앞으로 다가왔다가 자기의 발에 밟혀 뒤로 휘휘 달아나는 주로바닥에서 골수에 사무친 가증스러운 물골들을 찾아 본다. 주로 바닥에 사포의 상통이 새겨 진다. 기정은 그것을 힘 있게 딛고 또 달린다. 격검선수의 랑소가 떠오른다. 그것도 무자비하게 지리밟는다. 민족을 억압해 온 모든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간다. 지지리 억눌려 온 청춘의 가슴에 승리의 쾌감과 희열이 건잡을수 없이 불 붙어 오른다.

하늘땅이 무너져 내리는듯 한 환성, 휘파람소리, 고함소리, 발 구르는 소리, 소고대의 북소리... 공중높이 치솟아 오르는 수천개의 중절모, 부인모... 좌석의 여기저기에서 날리는 오뎅기, 나치스기, 영국기, 프랑스기, 기발, 기발, 기발... 그러나 우리 기발, 조선기발만은...

수만관중이 아우성치는 주경기장은 그야말로 단가마에 물 부은듯이 끓어 번진다. 손에 손에 꽃을 들고 좌석에서 뛰어 내려 마주 달려 오던 수십명의 관중들이 저희 나라 선수가 아님을 알게 되자 아쉬워 하며 물러 선다. 주석단에 앉아 있던 금줄투성이 제복을 반듯하게 차려 입은 《제3제국》의 고관들이 모두 일어 서서 나치스식으로 팔을 앞으로 뻗치며 맨 앞장에서 달려 오는 마라손선수에게 경례한다. 수만의 관중이 불가마에라도 빠진것처럼 울부짖는 절정의 순간 기정은 피 더운 가슴으로 테프를 끊었다.

(아, 끝내 해냈구나.)

기정은 사무치는 감격과 흥분에 몸을 떨며 돌아 섰다. 영국선수 하버와 승룡이가 함께 달려 오고 있었다. 승룡이가 그만 아쉽게도 한걸음 뒤져 3등을 했다.

《남형!》

《손형!》

두사람은 와락 부둥켜 안고 돌처럼 굳어 졌다.

두사람의 눈에서 흘러 내린 쇠물 같은 눈물이 땀에 절어 번질거리는 서로의 볼을 뜨겁게 적셨다. 이때 숨이 턱에 닿아 달려 오던 권태하가 피성을 지르며 곤두박질듯이 덮쳐 들었다.

《권선생!》

《선생님!》

세사람은 한동아리가 되어 경기장바닥에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권태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쳐들었다.

《내 자네들에게... 절을 하겠소.》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정과 승룡은 태하의 온몸을 꼼짝 못하게 붙잡았다.

《고맙네. 세계의 20억이 내세운 선한쌍의 준족 가운데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1등, 3등... 이런 영광이 또 어데 있소. 오늘은 내가 마라손을 한 보람이 있는 날이요.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날이야. 하하. 조선국 만세!》

기정은 땅에 주저앉은채로 동쪽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맨 처음 떠오르는 모습은 어머니... 시골에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매달 꼬박기 보내주던 어머니, 돈이 없어 스무살이 넘어서야 겨우 중학을 보낸 아들의 학비를 대느라 지금 이 시각도 흰서리 내린 머리에 콩나물함치를 이고 땀방울이 내려쬐는 장거리에 나가 앉으셨을 허리 굽은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 저미게 떠오른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십니까. 이 아들은 동양에

서 처음으로 세계마라손의 최정상을 제패하였습시다.)

4

정오가 가까와 옴에 따라 날씨는 더욱 물କୁ었다. 8월의 폭양이 내륙성의 도시 대기를 한껏 달구어 주었다. 도로의 한열에 세운 대형전광판에서 현지시간과 대기온도를 알려 주고 있다. 선수들은 고정코스를 두바퀴째 돌고 있다. 주로의 양옆 인도로에 수많은 도시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나와 염천의 불멸을 이고 달리는 너자마라손선수들을 응원하고 환영하고 하였다. 저희 나라 선수들을 알아 본 관광객들은 소리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무어라고 격려의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안달루시아평원의 력사 깊은 도시 세빌라의 아름다운 거리가 계속 펼쳐 지고 있다. 고대의 그리스와 카르타고, 로마의 유적으로부터 중세기의 이슬람교문화와 근대의 그리스도교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의 전통을 구비하고 그 이질적요소들을 묘하게 결합시키면서도 라틴문화의 본색을 진하게 보존하고 있어 예로부터 유럽의 문호들이 작품에서 즐겨 그리곤 하던 이 도시의 거리를 따라 선수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호흡이 다시 안정되었다. 정신도 더 맑아 졌다.

성옥은 몹시도 피롭던 두번째 극한점을 용케도 넘겼다.

성옥은 지금 선두그루빠에서 달리고 있다. 보도제에서 핑장하게 소개하던 명수들을 죄다 뒤떨고 지금은 맨 앞대렬에서 달리고 있는것이다. 보스톤마라손경기에서 세차례나 우승하여 《아프리카타조》라는 특상선수로서는 전혀 남세스럽지 않은 별명이 붙은 선수권보유자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면서 기온이 더 올라 가는것이 알렸다. 복숭아빛으로 물든 성옥의 달아 오른 두볼과 목덜미로 땀이 물처럼 흘러 내린다.

선수들은 모두 뺨통에라도 들어 간듯 뻘얇게 땀발이 올라 헐썩거리며 달린다. 남성적인 체격을 가진 금발의 씨몬이나 선수권보유자인 로바는 성옥이보다 키가 훨씬 컸고 경기경험과 전적도 우세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두대오에서 함께 달리는 키가 자그마한 아시아선수에 대하여 놀라운 움은커녕 호기심조차 느끼지 않는듯 싶었다. 하지만 성옥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결승선까지는 이제 4km 정도 남아 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이제는 자신심이 굳건해 졌다. 몇몇 보행객들의 박수소리를 들으며 끝내 로바를 떨어 뜨렸다. 긴다리를 성큼성큼 내딛는 씨몬은 지칠줄 모르는 사나이같이 변함 없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옥을 따라 온다. 성옥은 좀 더 속도를 높였다. 군중의 박수소리가 단조롭게 들렸다. 그들은 번호만을 붙인 곤청색 경기복의 동양선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용의주도한 경기태

도에 공감하는것이였다. 성옥은 끝내 씨몬도 떨구었다. 이제는 앞에 한 선수만 남았다. 아까부터 선두에서 성옥이와 함께 달리던 선수이다. 검은 머리칼, 희말간 살색...

성옥은 다시 호흡이 가빠 짐을 느꼈다. 그런데 그 선수는 해반드르르한 얼굴을 곧바로 쳐들고 자세 한번 흐트리는 법이 없이 보란듯이 쪽 빠져 나간다. 성옥은 그의 뒤를 바짝 물고 계속 달렸다. 그러나 따라 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놓치면 안돼.)

숨은 턱에 닿고 다리힘도 진해 간다. 함썩 젖은 잔등으로 땀이 물처럼 흐르고 악몽속에 빠진 듯 의식마저 흐리마리해 진다.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이를 사러 무는데 인도도로에 늘어 선 관광객들이 《이찌하시! 이찌하시!》 하고 소리치는것이 들린다.

(이찌하시? 그러니 일본선수...)

이때 인도도쪽에서 벽력같이 터져 나온 단장의 웨침이 온몸을 잡아 휘두른다.

《성옥아, 힘을 내라 힘을 내! 네앞에 일본선수가 있다. 일본선수!》

(일본선수?)

고막이 징- 울리며 온몸에 찌릿하니 전류가 흐른다.

(또 일본...)

력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세계 백수십개 나라가 참가한 선수권대회의 결승테프를 앞두고 맞서게 된 선수가 다름 아닌 일본선수인것이다. 성옥의 가슴속에서 피가 설레이기 시작했다. 뒤끓는 열정과 격동이 무섭게 교배친다.

《이찌하시! 이찌하시!》

성옥은 숨이 나서 응원하는 일본관광객들의 손에서 필력은 일장기를 보았다.

(일장기!)

성옥은 저도 모르게 이를 사러 물었다.

...기정은 머리를 들었다. 어느결에 그의 머리에 금빛 월계관이 씌여 지고 금메달이 목에 걸렸다.

박수, 환성, 환영곡, 알아 들을수 없는 찬사의 말... 꽃목걸이와 함께 한아름이나 되는 꽃다발이 안겨 진다. 여기저기에서 마그네슘광이 번쩍이고 샤타 떨어 지는 소리와 촬영기가 돌아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정은 엉거주춤하다가 꽃다발을 넘겨주고 부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앞가슴에 커다랗게 찍힌 일장기가 그의 눈을 괴롭힌다. 열결에 머리를 쳐들자 저쪽에서 절룩거리며 이쪽으로 걸어 오는 권태하의 모습이 눈뿌리 아리게 안겨 온다. 기정은 가슴 한쪽이 밑을 뽑아 낸 돌각담처럼 와르르 허물어 저 내리는것 같았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내가 난 사람이요. 현대올림픽력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월계관을 조선사람이 쓸줄

알고 왔으니 난 사람이지.》 하던 그가 줄지에 중늙은이같이 후줄근해 있다.

(권선생, 용서하십시오.)

기정은 시상대의 곁에 서 있는 국제올림픽위원들이 오뎅오뎅 춤 추듯이 계양대에 오르는 일장기를 쳐다보며 중절모를 벗어 드는 모습을 보자 정수리에 한방망이 맞은듯 기가 질렸다. 기막힌 재화를 얼마나 많이 빚어 낸 일장기인가. 2천만 민족을 도란에 몰아 넣고 삼천리강토를 임자 없는 채마밭처럼 짓밟겐 저 일장기, 그 기발을 내가...

격자무늬 캡을 쓴 촬영기자가 짜장 흥에 겨운듯 룰동적으로 몸을 움직여 렌즈를 기정에게로 돌려 놓고 계속 영화를 찍는다. 온갖 꽃으로 장식된 시상대이건만 끝 없는 미궁에 잠기는듯한 환각마저 든다. 일본대사관 서기관이 일장기를 우러르며 못내 감격스러운듯 발뒤축을 버썩 쳐들고 《대일본제국 만세!》를 웨친다. 짹 벌린 입안에 가득찬 금이발들이 야릇한 광채를 뿌린다. 중세기 기사들의 복장 같은 장식 많은 제복을 입고 정렬해 선 취주악대가 금관악기들을 번쩍거리며 일본국가를 연주한다. 시상대앞에 나와 있던 일본선수들과 역원들이 선물에 맞추어 합창한다.

기미가 요와 찌다이 하찌다이...

(임금의 세상은 천대, 팔천대...)

오늘 아침 룩상런맹 서기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룩상은 올림픽의 왕자이고 마라손은 룩상의 제왕이다. 마라손에서 이긴다는것은 올림픽에서 이긴다는것이고 올림픽에서 이기는것은 대일본의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바랄수는 없는 일이지만 천우신조(신의 도움)로 우리가 만약 1등을 한다면 천황폐하께옵서는 제국의 영웅으로 찬양하실것이다.》

멍청하니 서 있는 기정의 옆구리를 선수단통역이 쿡쿡 찌른다.

《저기 <로이터>와 <아바스>통신기자들이 오오. 아까 연습했던대로 빨리 준비하십시오.》

기자들이 왁 달려 와 《동양인으로서는 첫 마라손 우승자》가 된 소감을 말하란다. 기정은 무겁게 머리를 쳐들었다. 사포감독과 룩상런맹 서기장, 털부숭이 격경선수와 일본대사관 관원들, 꽃다발을 들고 선 히데코의 애매몽롱한 표정...

기정은 힘겹게 일본말로 대답했다. 열번도 더 연습하고 겹벌 받은 그대로이다.

《와파구씨와 다이닛본데이교꾸도 단지도시페텐노우헤이가노 다메니... (나는 대일본제국의 남아로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머리칼밑에 뿌직뿌직 땀이 돈다.

(아니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기정은 수그린 머리를 쳐들줄 모르는 승룡의

낮빛이 거뭇게 죽는것을 보았다. 그리고 당장 쭈그리고 주저앉을것만 같은 어깨 축 처진 권태하의 모습도 보았다.

기정은 눈을 꼭 내리감았다.

《...다이트본데이고꾸노 다메니 하시리마시따.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그가 말을 맺기 바쁘게 통역들이 자기 말은 어중으로 번지느라 저마끔 재깰거렸다.

기정은 먹에 칼 박힌 땀수가 마지막으로 피거품을 내부는것 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맥없이 휘청거리며 향방없이 걸음을 내디디었다.

그것은 세계의 패권을 잡은 스물네살의 청춘이 아니라 폐농하고 한지에 나앉게 된 시골늙은이와 같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머리에 쓴 월계관은 식민지노예의 머리에 들썩은 용수나 다름바 없었고 그의 목에 걸린 금메달도 들짐승을 길들이기 위해 매단 영악스러운 목사리나 전혀 다름바 없었다.

기정의 뒤를 따라 오는 승룡이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린다.

《황금의 월계관은 손형의 머리우에 있는데 취주악대는 <기미가요>를 연주하는구려.》

뭇 모르는 놈 장고 들고 상가집에 간다더니 쥐구멍에라도 들고 싶은 기정에게 촬영가가 계속 따라 온다. 어느 부자집녀인이 아낌없이 뿌려 던진거액의 자금으로 《민족의 제전》이라는 제목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영화를 찍는다고 했다.

(《민족의 제전》이라구!... 그럼 난 어느 민족이냐?)

기정은 자기 옷에 그려 진 일장기를 허거프게 내려다 보았다. 어리석은 철부지가 한껏 재간을 피워 보려다가 서툰 제 솜씨를 깨닫고 그만둔것 같은 유치한 도안이 자기 가슴에 박혀 있다. 국내에서 경기를 할 때엔 언제나 모교인 서울양정중학교를 의미하는 영어글자 《Y》를 가슴에 달고 나갔던 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촬영기는 계속 돌아 간다. 기정은 눈을 감았다. 영화화면이 떠오른다. 씨비리출병때 니콜라옌스 크시가와 울라지보스프크의 거리를 《히노마루》가 새겨 진 해군기를 날리며 행진하는 룡전대원들을 찍은 기록영화였다. 씨비리의 대지를 확보하는 《대일본황군》을 선전하는 장면이었다.

(아, 이제 저 필름이 나가면 나는 《동양의 맹주》, 《전 세계를 석권하는 대일본》의 위세를 선전하는 하나의 마네킨으로 되겠구나.)

기정은 눈을 떴다. 여기저기에서 펄럭거리는 오류기에 락조가 물들었다. 붉고 푸른 오색동그라미가 서로서로 련결되어 5대륙을 상징한다는 오류기...

(꾸베르팽선생, 인류정의와 진보에 이바지하리라던 오류에 이런 비극이 있을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기정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미스터 손!》

누군가가 환희에 차서 부르짖는다. 흰 이를 드러내놓고 벌쭉거리며 다가오는 흑인-그는 《베를린올림픽의 꽃》으로 불리우는 룡상선수 오웬스였다. 그는 들고 온 큼직한 꽃다발을 기정의 가슴에 덤썩 안겨 주었다. 종잡을수 없는 감회...

《손, 당신은 정녕 11차올림픽의 영웅이요. 자, 기념수표를 해주시오.》

기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받아 과문을 일으킨 이 명수에게서 과찬을 받으니 좀 얼퍼름해 졌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편뜻 정신이 들어 그가 내민 수첩을 받아 들었다.

(수표하자. 난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이다.)

거리는 명절처럼 흥성거리고 세계가 그에게 축하를 보내건만 기정의 진심이 토로되는 자유로운 《세계》는 손바닥보다 더 작은 이 수첩장뿐이었다.

기정은 비로소 후련하게 숨을 내쉬고 나서 처음에는 조선글로 그 다음엔 영어로 포박포박 써넣었다.

《조선사람, 손기정 1936년 8월 9일》

오웬스의 눈자위가 휩 돌아 간다.

《조선사람? 조선이란 어데 있는 나라요?》

기정은 멍하니 석양 비낀 하늘가를 바라본다.

《나도 잘 모르겠소.》

그러자 가뜩이나 큰 오웬스의 눈이 아예 화등잔처럼 되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기정의 낮빛은 송장처럼 컴컴해 졌다.

《보는바 그대로... 이렇게 못난 놈이요.》

...

(기어이, 기어이 이겨야 한다.)

이찌하시는 여전히 변함 없는 자세와 속도로 앞에서 달리고 있다. 저 멀리에 경기장이 바라보인다. 경기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찌하시를 앞선다는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한걸음 한걸음 내짚는 다리가 천근무게로 느껴진다. 숨이 가빠 나고 자꾸만 눈앞이 흐려 들었다. 마지막까지 견디어 낼수 있을가, 주력에서 딸리지 않을가 하는 위구마저 들었다.

(이래서는 안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 더더욱 가빠 나는 호흡, 경직이 온듯 한 팔다리... 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을것만 같았다.

성옥은 흐려 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 썼다.

문득 그의 귀전에 들려 오는 피를 끓이는듯 한 절규, 저 멀리 우주의 한끝에서부터 거대한 공명을 일으키며 울려 오는듯 한 메아리...

《성옥아, 힘을 내거라.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 조국이, 민족이 너를 지켜 보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 **김정일**장군님!...

지방도시의 평범한 체육소녀였던 나를 이끌어 주고 키워 주시여 오늘은 세계무대에까지 내세워 주신분.

20세기를 뒤흔든 정치적대동란과 칼을 물고 덤벼 드는 형형색색의 악마들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지켜 주신 우리 운명의 수호신.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을 안아 일으켜 세상에서 가장 억세고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 주신 인민의 아버지.

그이의 품에서 우리 조국은 주체의 강국으로 세상에 그 이름 떨치고 우리 인민은 강의한 투사들로 자라났거늘... 나도 그이 품에서 자라난 장군님의 딸이 아니냐.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를 지켜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조국을, 민족을 대표하여 달리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룩상선수권대회 마라손경기의 전열에 조선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나라 없던 그 시절 자기의 진한 땀을 주로 우에 뿌리며 달리고 달려 마라손경기에서 우승하고서도 그 주로우에 민족의 자옥을 남기지 못했다. 민족의 가슴속에 서리서리 얼어 붙은 해묵은 원한을 이 세기에 풀어 줄 운명의 기회는 드디어 왔다. 성옥아, 힘을 내자!

불 붙는 심장의 박동이 흥벽을 두드리며 온몸으로 울려 퍼졌다. 장검과 같이 선드선드하게 버린 투지의 맥박이 뜨거운 피와 함께 혈관을 타고 소리치며 내닫는다.

성옥은 단숨에 이찌하시를 따라 잡고 앞섰다. 기세충천하여 계속 앞으로 질풍같이 내닫는다.

(조국이여, 믿어 달라. 거레여, 기빠 하라.)

마라손은 경기지속시간으로 보나 육체적강도로 보나 가장 힘겨운 경기이다. 그 유래에서부터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라손의 역사에는 100여리구간을 달리는 과정에 너무나도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이겨 내지 못하여 도중에 쓰러지거나 정신이상을 일으킨 수많은 선수들의 비탄의 눈물과 좌절의 회한이 갈피갈피 어려 있다.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심리적고통과 육체적극한이 중첩되는 100여리경주에서 선수는 자기 한생의 희로애락을 다 안고 달린다.

그러나 성옥은 지금 자기의 생애와 함께 조국과 민족이 걸어 온 다난한 역사, 피와 눈물, 투쟁과 영광의 한세기를 다 돌이켜 보며 달린다.

성옥의 눈앞에 백두의 눈보라가 휘몰아 친다.

원썩들을 무찌르며 조국으로 진군하던 항일선렬들의 그 모습이 보여 온다.

성옥의 눈앞에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 다신하신 고향의 어머니, 때로는 아픈 말도 해가며 힘을 주고 고무를 주던 감독동지, 승리하고 돌아오라 손 저어 바래워 주던 정다운 동무들... 역사에 류례 없는 고난을 박차고 나가고 있는 조국인민들, 풀죽을 먹으면서도 자기를 세계무대에 내 세워준 고마운 인민들의 모습을 똑똑히 본다.

비 내리는 만수대언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만 같던 그 나날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다지고 또 다지던 맹세도 돌이켜 본다.

지금 이 시각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쪽잡과 쥘기밥으로 험난한 전선길을 헤쳐 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도 어려 온다.

(경애하는 장군님, 이 딸을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경기장이 가까와 옴에 따라 관중의 수가 부쩍 늘어 나고 환호성도 더욱 고조된다. 그런데 맨 선두에서 달리는 성옥을 호위해야 할 모터찌클은 그냥 뒤에서 달리는 이찌하시의 곁에만 붙어 있다. 로골적인 편심이였다. 이런 편심이 선수에게 주는 심리적타격은 치명적인것이다. 그러나 성옥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좋아, 그럼 내뒤편을 계속 졸졸 따라 와보라.)

성옥은 어느덧 경기장에 들어 섰다. 10여만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고향소리에 경기장이 금방 떠나갈듯 했다. 극적인 결승장면을 고대하며 벌떼같이 일어 나 흥분하여 울부짖는 관중들로 하여 거대한 경기장이 그대로 끓는 죽가마 넘듯 한다.

세상이 뒤집히기라도 한듯 모두 떨쳐 일어 나 북대기치는 그속을 뚫고 성옥은 살같이 날아 들었다. 성옥이가 열어 나가는 결승주로를 따라 각국의 선수들이 줄레줄레 달려 들어 왔다.

(장군님, 성옥이가 앞장에서 달립니다. 세계가 조선을 따라 옵니다.)

술한 기자들이 떨쳐 나서 성옥에게 렌즈의 초점을 맞춘다. 관중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른다.

(그네들중에 나를 알아 보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곧 세계는 세빌라의 창공에 높이 날리는 우리의 기발을 똑똑히 보게 되리라.

김일성대원수님의 나라, **김정일**장군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치를!)

이때로부터 후날 유력한 어느 외신이 《불꽃 같은 속도》라고 평한 성옥의 최후질주가 펼쳐 진다.

성옥의 자그마한 두발이 20세기의 마지막결승주루에 조선의 자옥을 큼직큼직하게 찍어 나갔다.

새벽

고남철

푸름푸름

한물씩 색이 바래는 어둠을

툭 툭 쥐여 박으며 울리는

군화자욱소리-

그 대답처럼 런이은 집집의 대문소리

흙썩 이슬 젖은 군복바지에 눈을 습벅이며

병사들과 걸음 다투며

들로 나오는 분조원들

뜨락또르, 김매는기계 발동소리

들에 마을에 벅차게 울리는 생활의 음향

하얀 안개밭속에

잎새를 번뜩이며 총창처럼 솟구치는

강냉이밭머리우에

펄펄 붉은기 휘날리는

분대장의 얼굴은 얼마나 싱싱한가

저마끔 첫 이랑 다투는

사관장과 봄순이 싱갱이조차 노래처럼 즐겁다

그 모양 보는 박아바이 항아리 같은 웃음은

들끓한 이슬풀 뜯는 등글소 뿔우에 걸리고

선잠 깬 개구린 감자포기밑에서

통방울눈 데굴데굴...

들에 떨기지는 웃음을 싣고

중얼중얼 흐르는 보도랑물소리우에

멋들게 어우러지는 뜰뽕뜰뽕 뜰복새소리

하이얀 민들레도 웃음 이구 한들한들

아 병사들의 발걸음 따라 굽이치는

가슴 벅찬 생활이여

숨결 높은 지향이여

벼 강냉이잎새가

땅에서 싹 트고 펼쳐 진다 하라

땅에 먼저 벅찬 생활속에 큰 움 트고

푸른 냇우에 잎은 질푸르러

웁은 생활을 지키고 걸 바르게 가꾸는

이런 투쟁우에 반들린 이랑은 길수록 좋다

이런 창조가 익힌 이삭은 참으로 눈 부시다

병사와 농민이 한분대 한분조로

첫 이랑에 다투어 손을 뭉는 새벽

류다른 생활이 태동하는 이 여름은

가을앞에

얼마나 많은 고운 이야기할거냐

그 이야기속에 이삭은 얼마나 장할거냐!

스물한발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의 일기중에서-

한웅빈

3. 스물한발의 《포성》

7월 2일

《소대장동지, 저 발과소리가 그 뭐겠습니까.》하고 조차장에서 전교대의 발과소리를 듣던 분대장이 불쑥 소대장에게 말했다. 분대장은 늘 그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내기 좋아 했다. 때로는 무슨 말로 주의를 끌거나 웃길까 하고 연구하는 듯이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다 입을 열 때면 비상한 활기를 띠곤 하였고 그 활기는 곧 분대와 소대에 퍼져 가곤 하였다. 이때도 같았다. 모두다 다음 말을 들으려고 그의 입을 쳐다보았다.

《우리를 맞이하느라고 울리는 레포소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최고의 국빈을 맞을 땐 스물한발의 레포를 쏜다더군요. 우리 막장에서도 꼭 스물한발이니 신통하지요?》

그렇듯 한 말이였다. 분대장다운 발견이랄까. 강정희상등병은 머리부터 맹렬히 끄덕이며 열렬한 찬동의 말을 하려고 입술을 움썹거리는데 소대장은 그 랑만적인 발견에 조금도 감동된 기색이 없이 발과소리가 몇자 머리를 흔들었다.

《신통하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를 국빈으로 맞아주는것 같지 않소.》

《왜서 말입니까?》

《중간에 한발을 불어 버린것 같소. 마른 나무 꺾어 지는것 같은 소릴 냈는데 그런거야 레포로 될수 없지.》

분대장은 얼굴을 찡그렸다.

《막장이 또 찌그러 졌겠는데.》

아닌게 아니라 막장에 들어 가 보니 한쪽 절반은 제대로 나가고 다른쪽 절반은 거의 두뿔정도 살아 있었다. 측벽보조구멍이 불어 버리는 바람에 이런 찌그러 진 막장에 생겨 난것이였다. 충진물다짐을 제대로 못했거나 천공각도를 잘못 잡은때문일것이였다. 지레대를 들고 살아 있는 부분을 탕 탕 쪼아 본 분대장은 침을 탁 뱉었다.

《일하는 꼬락서니들이란! 여- 정대 잡으라구! 빌어 먹을. 우리도 이 모양대로 발과해서 넘겨 주고 말자. 이제 벌써 몇번째야?》

막장을 바로 잡으려면 굴진메터수를 손해 볼수 밖에 없다. 분대장은 계속 두덜대는데 소대장이 무접없이 막아 치웠다.

《쓸데 없는 소릴 그만 두오!》

《예?》

《막장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인계해주어야 하오.》

《아, 그럼 우리 소대만 골탕 먹지 않습니까?》

《동문 그럼 세개 소대가 몽땅 골탕 먹어야 시원하겠소?》

《...》

말이 막힌 분대장은 입맛을 다셨다.

《화김에 한마디 해본겁니다.》

그러나 소대장은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전투장을 무슨 화풀이 해보는데로 아는게 아니요?》

분대장은 어깨를 움츠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대장동진...》

소대장은 흥소리를 냈다.

《너무하다는거요?》

《소대장동지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 압니까?》

소대장은 별로 흥미 없는듯 살아 있는 암반의 불구멍들에 막대기를 찔러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뭐라고들 하오?》

《면도칼이라고들 합니다.》

《면도칼?》

소대장은 불구멍에서 뽑은 막대기를 뽑으로 채여 보더니 픽 웃었다.

《유감이로군. 장검이라면 몰라도.》

《아 거야 날카롭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면도칼이나 장검이나 다 같은 칼이 아닙니까?》

소대장은 막대기를 구석에 집어 던졌다.

《그렇듯 하오. 고양이도 범과 친척간이라니까.》

버럭 실는 곳으로 나가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 보던 분대장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면도칼이나 장검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말을 했다.

《장령이 될 사람이야. 앞으로.》

이것은 소대전체가 인정하는것이였다. 우리 소대장으로 말하면 어느모로 보나 이런 공사를 하는 구분대에 있기에는 아깝다고밖에 할수 없는 지휘관이였다.

우선 대렬동작을 보면 대렬규정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었다. 찌렁찌렁 울리는 구령소리며 다리부터 군화끝이 일직선으로 쭉 퍼져 땅을 탕탕 구르며 나가는 정보행진, 그가 대렬보고를 하려 정보로 걸어 나갈 때면 부지중 그가 지나간 곳에서 발자국자리를 찾아 보게 된다. 아무리 굳은 땅도 그의 발밑에서는 움푹움푹 늘리워 들어 갔을

듯만 싶다. 그의 대렬동작은 중대뿐아니라 련대에도 알려 져 있다. 련대장동지는 《저 소대장이 차렷구령을 치면 급사등이도 허리가 쪽- 꺾일게야.》라고 했다고 한다. 중대의 재담군들은 그 말에 한마디를 더 붙였다. 《절름발이도 정보행진을 할거야.》 하는...

그뿐이 아니다. 격술훈련이나 전술훈련때에는 《우리 소대장은 타고 난 군인이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사격에서는 련대적인 명사수이다.

얼마전에 사령관아바이의 참석하에 있는 련대군관들의 지휘훈련에서는 모든 정황처리에서 강한 《우》를 맞았으며 사령관아바이가 《참모장감이로군.》 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한 소대장은 체격이 그리 다부져 보이지 않는 후리후리한 보통체격이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중 한가지만을 적어 두려고 한다.

몇달전 갱구앞마당에서 5중대의 2소대와 우리 소대사이에 바줄당기기를 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5중대는 우리 중대가 굴진하고 들어 가는 막장을 뒤따라 오며 확장할 임무를 받은 중대였다. 지금은 갱내초차장건설을 끝내고 우리를 부지런히 쫓아 오고 있지만 그때는 이런 공사에는 완전한 생동들이었다 한다.

5중대 2소대의 바줄당기기책임자는 그 소대의 부소대장이었고 우리 소대의 바줄당기기책임자는 소대장이었다. 그 소대의 소대장은 두 중대장들의 이야기에 끼여 있으면서 동무들끼리 하라고 손을 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대의 부소대장으로 말하면 입대전에 중량급력기선수였다는 사람으로 거의 바른 사각형의 체격에 팔은 웬만한 사람의 허벅다리보다 더 굵은 장사였다. 《체중만도 100kg을 훨씬 넘지.》 하고 분대장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매일 볼수 있었다.) 90kg은 훨씬 넘을 요란스러운 체격이었다. 그는 기관차처럼 씨근거리며 맨 앞에서 바줄을 당겼다. 우리 소대의 맨 앞에서 그와 마주 선것은 소대장이었다.

그런데 바줄당기기에서는 우리 소대가 이겼다. 첫번째에 이어 두번째에도 이겼다. 우리 소대는 환성을 울리는데 그 부소대장은 화가 날대로 나서 씩씩거리더니 돌아 서면서 투덜거렸다.

《흥. 바줄당기기를 지휘하는게 소대장인가?》

우리 소대장에 대한 비난이었다.

《상사동무!》

우리 소대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부소대장은 육중한 체구를 천천히 돌렸다.

《왜 그럼니까?》

《바줄당기기를 군관이 지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소?》

부소대장은 차렷자세를 취했다.

《잘못했습니다. 소위동지.》

《사죄는 나에게가 아니라 동무네 소대장에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부소대장은 대원들앞에서 여지없이 손상 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더 요란스럽게 씨근거리더니 레루길에 서 있는 광차에서 바가지를 고정시키는 반 m 길이의 썸을 쪽 뽑아 들었다. 그것은 20mm 철근으로 만든것이였다. 그는 그놈의 랑끝을 잡더니 끄- 하고 힘을 썼다. 그러자 그 굵은 썸이 툭툭 녹 쓴 껍질을 일구며 7자로 구부러 들었다.

우리 소대는 입을 딱 벌렸다.

《림격정이야!》

부소대장은 광차썸을 흔들며 우리 소대를 둘러 보았다.

《친구들! 누구 나하고 팔씨름할 사람이 없소?》

그쪽 소대원들은 그때야야 《팔씨름!》, 《팔씨름!》 하며 다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설 용사가 없소? 너무 조용하구만!》

부소대장은 구부러 진 광차썸을 내던지고 돌아 섰다.

《줄장부들밖에 없군!》

《뭘요?》

우리 분대장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우리 소대에서는 제일 체격이 큰 축이였으나 그 부소대장에게는 대비가 되지 않았다. 길기만 한 막대기였다. 부소대장은 우리 분대장을 아래서부터 우로 훑어 보고는 픽 웃었다.

《친구, 팔씨름은 키로 하는게 아닌데?》

《상사동무 팔씨름을 말로 하오?》

《말로 하는가? 종소. 그럼 행동으로 보여 주지!》

정식으로 팔씨름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고 분대장이 나설 때 우리 소대장이 나섰다.

《상사동무, 나하고 해보지 않겠소?》

《소위동지하구요? 좋습니다!》

부소대장은 은근히 그것을 바랐던듯 했다. 그는 책상우에 팔굽을 올려 놓으며 말하였다.

《소위동지, 전 경기에서는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소? 난 다른걸 알고 있는데 ?》

《뭘데요?》

《경기에선 이겨야 한다는걸 말ियो.》

《어- 좋습니다!》

그런데 첫 판에서는 우리 소대장이 이겼다. 이것은 그쪽 소대는 물론 우리 소대에게도 뜻밖의 결과였다. 이 결과에 제일 놀랜것은 부소대장 자신이었다. 그는 자기의 패전이 자기로서도 믿어 지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 서서 자기 발밑과 소대장의 발밑을 내려다 보기까지 하였다.

《한판 더 합시다. 3판 2승으로.》

《중소!》

두번째에도 역시 우리 소대장이 이겼다. 부소대장은 이번에도 그 결과가 믿어 지지 않는듯 눈이 쾅해 있더니 우리 소대장이 일어 서자 따라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한번, 한번만 더해 봅시다. 예?》

《바다물맛이야 한두모금이면 넉넉하지 않소? 그리고 상사동무, 경기승부는 바줄당기기에서 이미 결정된거요.》

소대장은 돌아 서 버렸다.

《아, 이젠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다니까.》 하고 부소대장은 투덜거렸다. 자기가 모르게 어떤 급소를 눌러 힘을 못 쓰게 피를 부렸으리라는 뜻이었다. 그 투덜거림이 너무도 로골적이어서 우리 소대의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분개한 대원들이 웅성거릴 때 소대장이 땅바닥에서 덩구는 구부러든 광차뼀을 집어 들고 돌아 섰다.

《상사동무!》

부소대장은 흠칫 하며 입을 다물었다. 군관의 날카로운 시선앞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자세를 취했다.

《상사동무 이게 뭔지 아오?》

소대장은 구부러진 광차뼀을 쳐들었다.

《광차뼀이요.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술기재요. 전투기술기재를 이렇게 버려 두는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요.》

하고 소대장은 광차뼀의 랑끝을 잡고 힘을 주었다. 그러자 광차뼀은 그의 손안에서 엇가락으로 변하기라도 한듯 천천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부소대장은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볼뿐 놀랜 소리도 미처 내지 못하더라고 한다. 소대장이 곧게 펴진 뼀을 광차에 꽂고 가버린후에야 우리 분대장의 팔소매를 덥석 잡으며 《여보 중사동무, 동무네 소대장 통빠가 아니요? 웡?》 하였다는지...

《그래서요?》

《그래서? 난 위생지도원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했지.》

분대장의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파장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소대장의 몸에 지칠줄 모르는 무진장한 힘이 잠재해 있는것만은 확실했다.

발파직후에 하는 락석작업만 보아도 누구나 5분이상 하기를 어려워 하는데 소대장은 지레대를 잡으면 마지막까지 해냈다. 그의 지레대끝에서는 암반의 아무리 사소한 균열이라도 건디지 못하였다. 석수를 막을 때 나는 그 힘에 대해 똑똑히 느꼈었다.

나는 한번은 감탄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소대장동진 어떻게 되어 그렇게 힘이 셉니까?》 하고 물은적 있었다.

《힘?》

소대장은 나를 잠시 내려다 보더니 허- 하고 웃었다.

《동무도 소대장이 되어 보면 알게 돼. 소대장은 소대전체의 힘을 합친것만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

더욱 놀라운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소대가 모두 버력투성이 되었을 때도 함께 일한 소대장만은 옷도 얼굴도 깨끗하였다. 마치 그의 옷과 몸은 수은으로 되어 있어 어떤 먼지나 물방울도 붙지 못하는듯 했다. 나는 아직 소대장의 옷이 구겨 져 있거나 무엇에 어지러워 진것을 본적이 없었다.

모든것이 나에게서는 경탄만을 자아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장령이 될거야.》 하는 분대장의 말에 완전히 공감하게 되었다. 때때로 나에게서는 이곳에서 보내는 소대장의 한시간 한시간이 나라를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더 크게 기여할수 있는 귀중한 재부의 가슴 아픈 랑비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다만 너무도 엄격하다는것이 (이것을 결함이라고 할수 있다면!) 때때로 소대의 화제거리로 되곤 하였다. 《면도칼이야!》

한번은 강정희상등병이 이야기하다가 불쑥 응답처럼 《난 소대장동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소대장은 웃어 넘길 대신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소대장을 닮아서 뭘 하겠소?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오직 한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닮아야 하오.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강정희상등병은 얼굴이 붉어 처서 아무 말도 못했으나 소대장은 그의 무안한 마음을 풀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대장이 그 자리를 뜨자 분대장은 한바탕의 일장연설로써 강정희상등병의 말에 온 소대가 열렬히 공감하게 만들었다.

《그래 정희동무가 (이거 너자이름을 부르는것 같아 좀 별나기는 하지만) 소대장동지처럼 되고 싶다고 한게 틀린 말인가. 아니란 말이야! 이젠 결코 내가 우리 분대성원이래서 비호하는게 아니야. 방금 소대장동지도 말했지? 우리는 모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닮아야 한다구. 그런데 우리 소대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제일 잘 알구 최고사령관동지를 제일 닮은게 누구겠나? 소대장동지란 말이야! 일에서, 훈련에서, 생활에서! 그래서 바로 우리모두를 지휘하는것이구. 그러니 우리가 소대장동지를 닮는게 그른것이겠는가? 천만에! ... 난 언젠가 세면장에 갔다가 소대장동지가 군복을 빠느라고 꺼내놓은 수첩을 슬며시 본적이 있어. (이건 절대비밀이야!) 거기에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소대장으로 오면서 쓴 결의 같은 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아나? 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나는 이제는 조선인민군 군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

당의 군대의 지휘관이다. 내가 대원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 될수 있을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한가지만은 확신한다.> 그 다음은 소대장동지가 휘 돌아 보는 바람에 채 못보았지만 그래 어떤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소대장동지를 닮는게 웅당하지 않은가! 정희동무, 어때, 내 말이?》

강정희상등병의 눈에는 어느 사이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한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난 동무가 종단 말이야. 동무 이름이 너자이름이어서 좋은게 아니구!》

와- 하고 웃음이 터져 올랐다. 강정희상등병이 소대장 다음으로 분대장을 따르다싶이 하는것이 우연치 않았다.

그때 우리는 소대장이 《한가지만은 확신한다》고 한것이 무엇일가에 대하여 짐작해 보려고 하였다.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었으나 강정희상등병의 추측에 모두의 의견이 합쳐 졌다. 《죽으나사나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의 추측이었다. 그런데서는 전투소보원답게 머리가 번쩍번쩍했다.

그후부터 나는 소대장이 앞에 오면 눈길도 저절로 군복상의 주머니에 끌려 가며 《한가지만은 확신한다》의 뒤에 있는 그 《한가지》가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소대장이 나의 눈길을 보고 자기 옷차림을 내려다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은적이 한두번만 아니었다.

어떻든 소대장은 소대전체의 자랑이었고 궁지였다. 중대가 모인 앞에서 소대장이 대렬보고를 하려 정보로 걸어 나갈 때면 소대는 키가 더 커지고 가슴이 벌여 지는듯 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들 소대장을 닮아 갔다. 행동도 말투도 성격도...

우리 소대에서는 《때문에》라는 소대장의 전용어가 공용어처럼 되어 있었다. 나의 말투에도 어느 사이 《때문에》라는 말이 자주 끼여 들곤 한다. 나는 이것이 기쁘다...

오늘 우리 소대는 1m 30cm 밖에 굴진하지 못했다. 그대신 《찌그러 졌던》 막장은 네모반듯하게 《고와 졌다》.

7월 5일

오늘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차근차근 쓸수가 없다. 그 모든것이 오늘 하루동안 그것도 8시간 사이에 벌여 지고 끝났다는것이 믿어 지지 않는다. 오늘 작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군인은 다른 별은 다 몰라도 하나의 별만은 반드시 알아야 하오.》

아니, 이것은 아직 작업이 시작되기전 갱입구에 앉아 있을 때 소대장이 한 말이다. 우리는 갱입구에 앉아 교대를 인계 받으려 갱에 들어 간

소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문, 저 별이름이 뭔지 알아?》

강정희상등병이 나에게 물었었다.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갱도작업을 하면 바깥날씨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춥건 덥건 막장은 한가지 《날씨》이기 때문이다. 밤낮의 구별도 없다. 나는 교대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면 눈 부신 해살에 새삼스레 놀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강정희상등병에게도 별이 가득 실린 밤하늘이 새삼스러웠던 모양이다.

《오리온성좌야. 저건 직녀성이구 저기 저건 가시오페아성좌...》

그때 바로 갱에서 나온 소대장이 앞의 그 말을 했었다. 하나의 별만은 알아야 한다는...

《북두칠성 말입니까?》하는 강정희상등병의 말에 소대장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북두칠성은 우리 군인들에게 북극성을 찾게 해주는 친절한 안내자와도 같소. 노래에도 있지.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좋지 않소?》

나는 지금 소대장의 한마디한마디를 되새겨 보고 음미해 보고 싶다.

《북극성은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킬까요?》

강정희상등병의 말에 소대장은 손목시계를 보고 나서 말했다.

《군인에게는 왜가 아니라 그렇다는것이 중요하오... 소대 모였!》

전교대의 발파소리가 먼 포성처럼 울려 나왔다.

그것은 소리로서보다 땅의 진동으로 더 똑똑히 안겨 왔다. 분대장과 함께 갱으로 향하며 나는 소대장이 강정희상등병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북극성이 왜 항상 북쪽에 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만. 후에 천문학자들에게 물어 보오. 제대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오늘 작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전교대에서 공기호스를 잘 대피시키지 못하여서 발파에 세군데나 터져 있었다. 터진 부분을 잘라내고 런결해야 하였다. 그러다나니 어느 날보다 30분이나 늦어서야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천반구멍들을 다 뚫고 측벽구멍을 시작했을 때 압축공기가 끊어 졌다. 버럭 실은 광차가 탈선되면서 큰 돌이 쏟아져 배관과 공기호스 런결부분을 깨뜨려 놓은것이였다. 용접기를 끌어 들여 용접을 하고 공기호스를 런결하고... 또다시 한시간 반을 잃었다.

《아무래두 제 시간에 발파하기 바쁘겠는데?》

분대장이 떡심이 풀려 투덜거렸다. 내 생각도 같았다. 착암기란 힘 주어 들이민다고 하여 미는 만큼 압박을 뚫고 들어 가는것이 아니다. 압박도 역시 힘 주어 찌른다고 하여 더 빨리 뚫리우는 호박 같은것이 아니다. 시간,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2시간을 잃었다. 8시간중의 2시간을...

그러나 소대장은 조금도 에누리가 없었다.

《발파는 반드시 제 시간에 해야 하오.》

《착암 한대를 더 붙이면...》

하는 분대장의 말에 소대장은 압축공기배관을 턱으로 가리켰다.

《바람이 팔려서 안되오. 압축기능력이 이제 다니까.》

《5중대에 막장착암을 좀 중지해 달라고 합시다. 지금이야 막장착암이 기본 아닙니까?》

그 말이 옳았다. 100리물길굴의 관통은 막장착암에 달려 있다.

《제가 갔다 올가요? 지금 교대가 <력기>부소대장네 소덱니다. 거절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소대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명령을 받았소. 명령집행에서는 기본과 기본이 아닌것이 따로 없소!》

《에이 참! 그럼 어떻게 하갑니까?》

《동문 착암이나 하오. 최대한으로!》

얼마후 소대장이 수굴정대를 한아름 안아다가 와르르 내려 놓았다. 그는 착암과 함께 수굴작업을 하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수굴작업은 곧 시작되였다. 착암기소리, 함마소리.

함마질은 교대로 하였다. 교대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마질을 한것은 소대장뿐이였다. 그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조금도 차이 없었다. 한결 같은 속도, 한결 같은 타격, 차이 나는것이란 처음에는 땀이 흘렀고 마지막에는 땀이 흐르지 않는것이였다. 더 흘릴 땀이 없어서이리라. 허나 누구도 그를 교대해 줄수 없었다.

《소대장동지.》

나는 보다 못하여 말했다.

《교대합시다.》

《일 없소.》

《소대장동지!》

그는 나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동문 기억력이 나쁘구만.》

《예?》

《내 말하지 않았던가. 소대장은 소대전체의 힘만한 힘을 가진다구. 기억나지?》

《예.》

《그럼 됐어. 소대장은 지치지 않아!》

착암기소리와 함마소리, 가쁜 숨소리, 천반에서 떨어 지는 물방울은 땀방울처럼 느껴 졌다. 간 데라불빛에 번들거리는 암벽들도 석수가 아니라 땀에 젖은듯만 싶었다. 막장은 땀으로 포화되어 있었다.

《소대장동지!》

분대장이 착암기를 켜다. 문득 좋은 궁리가 떠오른 모양이였다.

《이제부터라도 좀 조절합시다.》

《조절?》

《천공깊이를 1m50씩 줍시다. 그러면 착암만으로도 다할수 있습니다.》

소대장은 착암기를 가리켰다.

《1m50이요?》

《예.》

《20을 더 뿜소.》

《소대장동지, 이런 경우에야 좀-》

소대장은 함마질을 다시 시작했다.

《더 뿜소!》

《소대장동지!》

《더 뿜소!》

《후-!》

발파시간이 되어 발파수가 폭약상자를 지고 나타났다. 때에야 천공작업이 끝났다.

소대장은 착암기를 떼는 분대장에게 물었다.

《1m70이 되오?》

분대장은 화가 동해 있었다.

《재여 보십시오!》

《그건 왜? 분대장의 자막대기와 소대장의 자막대기가 다를수 없겠는데?》

《에이 참, 소대장동진-》

《빨리 발파준비를 하오.》

소대장은 막장철수를 지휘하려고 우리곁을 떠났다. 발파시간이 막두하여 소대전체가 막장철수에 달라붙었던것이다. 분대장과 발파수가 마주 앉아 폭약에 퇴관을 련결하고 나는 그옆에 앉아서 충전물을 빚었다. 분대장은 주위를 둘러 보고는 발파수에게 말했다.

《여- 그 련대군의소 간호원 있지? 우리 갯에 자주 현장치료 나오느-》

발파수는 화약봉지안에 퇴관을 꽂아 넣었다.

《그런데?》

분대장의 화제에 오른것은 때로 버력을 나르던 날 우리와 함께 있던 그 간호원인것 같았다. 나의 귀가에는 그날에 들던 노래소리가 되살아 났고 맑은 눈동자와 물방울이 반짝이던 가름한 얼굴 그리고 우리 군복이 얼마나 맵시 있는가를 보여 주는듯 하던 호리호리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어제 단야칸에서 지레대를 하나 버려 들고 나 오다가 그 간호원을 만나지 않았겠나. 마당에서 갯입구를 바라보며 서 있더군. 그런데 내가 서너 걸음앞에 갔는데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 말이야. 젠장!》

발파수는 퇴관을 꽂아 넣은 화약봉지 아구리를 날랜 숨씨로 동여 댔다.

《전주대인줄 알았겠지.》

《화가 나더구만. 그래서 <간호원동무!> 하고 불렀지. 그제야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진짜 전주대를 보는것 같은 눈이 아니겠나? 잠시후에야

<왜 그러세요?> 하더구만. 그래서 <오늘 우리 소대 현장에 와서 노래를 하나 불러 주길 바랍니다. 소대전체의 요청입니다.> 하고 어물쩍 돌려 댔지. 그랬더니 글썽 <전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치료하러 다니는 간호원인데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구요.> 하질 않겠나?》

화약수가 짧게 웃었다.

《한फल 먹었군!》

《마져 들어 보기나 하라구. 그 말에 난 이렇게 대답했지. <너무 그러지 마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무야 학교때부터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중앙축전에도 해마다 참가하구.> 그러자 글썽 대뜸 눈이 이만큼해 지는게 아니겠나?》

분대장은 손가락을 둥그렇게 하여 눈에 대보이고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더니 <그건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하고 따져 묻는데 별수 있더라구? 소대장동지가 말하던대로 <그랬을것 같아서 해본 말ियो.> 하고 말했더니 아, 글썽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동무네 소대장동지가 말했지요?> 하는게 아니겠나? 나는 그만 뻥-해지고 말았네.》

나도 역시 뻥-해 졌다. 그러니 소대장의 말은 정말이었던것이 아닌가. 틀림 없었다. 그들은 입대전부터 아마 학교때부터 아는 사이였을것이다!

《난 한참 지나서야 겨우 이렇게 물었구만. <우리 소대장동지와 같은 학교를 다녔소?> 물어 보나마나한것이였지. 간호원은 내 말에 대답할 대신 혼자소리처럼 말했는데 귀를 기울여서야 겨우 알아 들을 정도였어. <그러니 소대장동진... 절 처음부터 알아 보았구만요... 그러고도 아직... 단 한번도...> 난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네. 진짜 전주대처럼 말이야. 그때 난 간호원이 왜 내가 곁에 오는것도 모르고 갱입구만 지켜 보았는지를 알았어. 갱입구에선 우리 소대장동지가 동발통우에 앉아 있더라 말일세. 작업조직을 짜고 있었지.》

《...》

발파수는 퇴관을 넣던것도 멈추고 서리서리 엉킨 도화선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분대장의 입만 지켜 보았다. 가장 감동적인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듯 했다.

《간호원은 나에게 <동무네 소대장동지한테 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더구만. 난 멍청해 있다가 그저 <그럼시다.> 하고 말았지...》

발파수는 책망하듯 쫓하고 혀를 찼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소대장동지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야 없잖은가 말이야. 무엇때문에...》

《쓸데 없는 소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나나 동무보다 소대장동지 자신이 더 잘 알게네.》

《그건 그래.》

다음은 말없이 화약에 퇴관을 꽂아 넣고 동여매기만 했다. 나도 충진물만 빚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소대장동지도 그 간호원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애써 모르는척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대장은 간호원의 군사복무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추억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않을것이다. 아마도 간호원이 령장과 모표를 떼고 부대를 떠날 때에야... 왜서인지 가슴이 조여 드는듯 했다. 간호원의 애수를 띤듯한 눈동자와 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혔던 얼굴이 떠올랐다. 동시에 소대장의 강직해 보이는 엄격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소대장에 대한 더 열렬한 존경과 애정을 느꼈다. 엄격한 지휘관, 허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소대장...

이런 생각을 하던 나는 분대장의 손이 굳어 진듯 움직이지 않는데 시선이 미쳐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분대장은 종이장처럼 창백해 진 얼굴을 갱바깥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예리한 웨침소리가 갱구쪽에서 울려 오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수 없는 《아-아-아-》 하는 지속음으로만 들려 오는 웨침이였다. 몇초 후에야 나는 그것이 《광차!- 광차!-》 하는 부르짖음을 깨달았다.

우뢰소리와도 같은 평음이 그 소리보다 더 빨리 막장으로 맹렬히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 평음속에서 결사적으로 울리는 《아-아-아-》 소리는 우리의 몸에 부딪쳐 무서운 전율을 일으켰다.

분대장의 입에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비행기다!》

그는 벌떡 일어 섰다. 발파수도 나도 뛰쳐 일어났다. 광차가 경사길로 자유질주하는것을 《바람이 났다》고 하고 더 짧게는 《비행기》라고 한다.

조차장에서 광차를 놓친것일가, 련결편이 빠졌는가, 쇠바줄이 끊어 졌는가. 허나 이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광차들이 그칠줄 모르는 우뢰소리 같은 평음을 지르며 육박해 오고 있었다. 그 속도는 각각으로 무섭게 높아 저 몇초후이면 전광석화와도 같이 막장에 들이닥칠것이였다.

《모두 벽에 붙으라!-》

소대장의 웨침에 모두들 본능적으로 벽에 붙어 섰다. 그는 막장에서 10m 남짓이 앞으로 나가 레루길에 서 있었다.

우뢰소리는 급격히 높아 지고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광차!-》 하는 부르짖음은 다만 《아-아-》 하는 절망적인 비명소리처럼 울릴뿐이었다.

소대장이 막장을 휘- 둘러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공포로 전율했다. 소대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보는 절망의 빛이었다. 막장은 좁다. 몇대일지 모르는 버력 실은 광차들이 번개처럼 날아 들어 와 막장벽에 부딪치면 막장은 마구 부서 지고 뭉그러 진 광차의 잔해와 버력으로 가득 찰것이다. 아무리 벽에 바싹 붙는다 해도 암반속으로 파고 들수 없는 한은 구원될수 없다. 게다가 회관을 련결해 놓은 스물한발의 폭약까지 있었다.

이때의 유일한 희망은 광차가 어디에든 걸러 탈선되는 천번에 한번이나 있음직한 우연이었다. 그러나 바람난 광차는 탈선되는 레가 거의 없다. 소대장은 왜서인지 벽에 붙어 서 있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 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사람한사람을 그리고 나에게서는 류달리 오래동안 시선을 멈추는것 같았다...

허나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느껴 졌을뿐이었다. 그것은 불과 한순간이었다. 분대장이 소대장의 의도를 알아 차리고 그쪽으로 한발자국도 채 나서지 못했을만한 순간이었을뿐이었다...

그때 나에게서는 시간이 갑자기 끝없이 길어져서 한초가 수십수백의 순간으로 나뉘고 그 매 순간들이 다시 한초한초로 되어 흘러 간듯 하였다. 모든 행동들이 고속도촬영한 필름을 저속으로 돌릴 때처럼 보였다...

공포때문이었을가. 아니,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매 순간 순간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집약되어 있었기때문이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앞으로도 결코 두번 다시는 볼수 없는, 두번째에는 나의것으로 되어야 하는 한 영웅의 최후를 영원히 기억시켜 주기 위하여 시간은 자기의 흐름을 멈춰 세운것이었다.

소대장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여느 때에 보던 밝은 미소가 아니었다. 우리를 위로하는듯 한, 하여 애수와도 같은것이 가슴을 찌르고 들게 하는 그런 미소였다. 영원히 리별하는 자식들을 미소로 바래울 때 어머니들의 미소가 그러할것이다.

소대장은 크게 한결을 내쉴더니 아름다리 동발을 넝름 쳐들었다. 입경할 때 6명이 달라붙어 겨우 끌어 들인 동발이었다. 소대장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해두 혼자서는 들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들어총을 했을 때처럼 두손으로 꼬누어 들었다. 마치 환상영화의 한장면 같았다. 그렇듯 모든것이 초인간적이였다.

소대장은 동발을 앞으로 꼬나드채 천둥처럼 가까와 오는 평음을 맞받아 나갔다.

《소-대-장-동-지!》

벽에서 떨어 져 나온 분대장의 목소리가 끝없

이 길게 울렸다. 시간은 천천히 더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소대장은 레루 복판에 동발 한끝을 박고 다른 쪽끝은 어깨에 댔다.

다음 순간 광차들이 벼락처럼 동발목에 날아와 부딪쳤다. 소대장은 흠칫 하였다. 그러나 깊이 뿌리 박은 거목처럼 버티고 있었다. 앞광차는 동발에 부딪쳐 버력을 휘뿌리며 곤두섰고 두번째 광차는 그우를 덮쳤다. 세번째 광차는 그에 부딪치고 모로 덩굴었다. 마침내 조용해 졌다...

그러자 나는 소대장이 서 있던 자리에 빠져 저 나온 동발과 광차에서 쏟아 진 버력만이 쌓여 있는것을 보았다. 버티고 서 있는 소대장은 나의 환각이었을뿐이었다.

《소대장동지!-》

우리는 와락 달려 가 정신없이 버력무지를 파헤집기 시작하였다.

《소대장동지, 조금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버력에 점점이 피방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후에는 제껴 놓은 큰돌도 작은 돌도 모두 피에 얼룩져 있었다.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돌과 버력은 붉게 물 들어 있었다. 아, 소대장동지의 몸에서 이처럼 많은 피가 흘렀단 말인가...

드디어 소대장의 잔등이 나타났다. 잔등은 메고있던 동발에 짓눌려 있었다. 동발을 들어 내고 반듯이 돌려 눕히자 입에서 후- 물려 나오는 숨소리가 들렸다.

《소대장동지!》

그의 얼굴에는 피자국이 없었다. 옷에도 없었다. 얼굴 한쪽에는 버력이 묻어 있었고 옷에도 물에 젖은 버력이 묻어 있었다. 옷의 여기저기에는 피에 젖은 손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피는 우리의 손에서 흐른것이였다. 버력을 파헤치느라 터지고 갈라 진 손끝마다들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소대장의 눈시울이 떨렸다. 드디어 눈이 떠졌다. 그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 보다가 분대장의 얼굴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왜... 발파를... 시간이...》

소대장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중대장이 (우리는 중대지휘관들이 언제 들어 왔는지를 몰랐다.) 탁 쉬어 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발파준비를... 하오. 소대장동무의...》

할 말을 잊은듯한 중대장의 목에서는 한동안 주먹같은 울구리뼈만 오르내리였다.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알았... 습니다.》

나에게는 중대장이 《마지막명령》이라고 하려다가 그저 《명령》이라고 한것으로 느껴 졌다. 장약을 하면서도 눈앞에서는 버력이 묻었던 소대장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소대장의 얼굴에

무엇이 묻은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물에 젖고
버력이 묻었던 옷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 역시
처음으로 보았다. 왜 그것을 씻어 주지 못했던
가...

《울긴 왜 울어? 소대장동진 죽지 않아!》

분대장이 나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볼에
서도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장악을 마치자
분대장은 나에게 불심지를 넘겨 주었다.

《점화!》

파란 연기가 막장에 가득 찼다. 그 연기속에서
또다시 버력이 묻었던 소대장의 얼굴과 옷이 떠
올랐다. 내가 왜 그 버력을...

《철수!- 귀가 먹었어?》

분대장이 어깨를 세차게 떠밀어서야 나는 대피
장소로 향했다.

발파수가 말했다.

《나가보라구. 발파결과야 내가 보고 나갈테니.》

우리는 입구쪽으로 나갔다. 거의 100m 달리기
를 하듯이 달려 나갔다. 침묵에 질려 비틀거리며,
동발에 머리를 짓조으며 마치 우리의 걸음에 소
대장의 생명이 달려 있기라도 한듯 달렸다.

그러나 조차장에 이르자 우리는 우뚝 서버렸다.
소대장은 담가에 누워 있었다. 머리옆에는 주머
니에서 꺼낸 수첩과 신분증 소지품들이 놓여 있
었다. 저것은 왜 꺼내 놓았을까.

소대장의 가슴우에 군의가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간호원이 소대장의 팔을 잡고 주사
를 놓으려고 허둥거리고 있었다. 《그 간호원》이
었다. 그는 소대장의 팔을 견고 주사를 놓으려고
혈관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혈관을 찾지 못한
듯 다른쪽팔을 거두었다. 그의 손이 화들화들 떨
리고 있었다.

군의가 소대장의 가슴에서 머리를 들었다.

《간호원동무... 그만... 두오.》

《?!》

간호원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 졌다. 썩그랑
주사기 깨여 지는 소리와 함께 간호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와 깨여 진 주사기의 조각들은 우
리의 심장으로 일시에 찌르고 들어 왔다.

《소대장동지!-》

그때 쿵 하는 첫 발파폭음이 울렸다. 쿵 쿵
쿵 온 강도가 흔들렸다. 스물한발의 《포성》이
울리고 있었다. 아, 저 《포성》이 오늘 소대장과
영결하는 조포소리로 되리라고 언제 상상한적이
나 있었던가.

담가우에 놓인 신분증에서는 엄격한 얼굴의 소
대장이 우리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이름 전호진, 생년월일 주체61(1972)년 3월 10

일... 23살. 아, 소대장이 그토록 젊은 나이였던가.

소대의 구대원들속에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
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소대의 좌상과도
같았다. 소대나이를 모두 합친것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진듯 존경을 받았다. 우리를 이끌었다.

소대장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분대장이 소
대장의 수첩을 펼쳐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
다. 그토록 소대의 관심사로 되었던 수첩, 소대장
이 자기 한생의 유일한 확신을 적어 놓은 수첩,
그가 유일하게 확신한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나는... 조선인민군... 군관이다.

나는... 한가지만은 확신한다. 나의 생명은 오
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
여...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것에 바치기 위하
여... 있다는것을...》

조국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은 가장 신성
하고 아름다운것, 조국을 위하여 바치기 위하여
있는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아, 그러니 그에게서는 우리가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것, 조국이었던 말인가. 버력물에 젖고
돌가루를 뒤집어 쓴 키다리 분대장이, 둥글둥글
한 말 주변 없는 강정희상등병이, 버력물에 얼룩
져 어스비슷해 보이는 구대원들이 그리고 내가...

정녕 가장 신성한것이었던 말인가. ... 조국, 조
국이었던말인가...

쿵하는 마지막폭음이 울렸다. 그 폭음은 강도
전체를 뒤흔드는듯 묵중했고 그 폭음의 무게는
그대로 심장에 실리는듯 했다. 천반에서 돌부스
레기들이 우수수 머리우에 떨어 저 내렸다.

그렇다. 병사는 곧 조국이였다!

소대장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에 병사
는 곧 조국이라는 그 자각을 새겨 주었다.

《소대장동지!》

발파가스가 천천히 흘러 나왔다. 그속에서는
스물한발의 발파폭음이 그냥 여운을 끌며 울리고
있는듯 했다. 그 장엄한 폭음이 어찌 그대로 사
라질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서는 그 우렁찬 폭음이
온 강도를 흔들고 강도를 품고 있는 산을 흔들
고 점점 그 진폭을 넓혀 가며 온 지구를 흔들고
창공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잡아 흔들며 북
극성이 빛나고 있는 먼 우주의 한끝까지 길이길
이 울려갈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우리에게 보내던 마지막미소도 떠올랐다.

스물한발의 《포성》, 그것은 결코 소대장을 떠
나 보내는 조포소리가 아니였다. 소대장처럼 억
세고 깨끗하고 강인하고 정열적인 군인으로 재탄
생하는 나를, 소대전체를 맞이하는 장엄한 페포
소리였다!...

북두칠성

석유균

1

난생 처음 맛 보는 류다른 가을의 신선한 정취에 취한 통일애국투사 지성구는 마음만이 아닌 육신까지도 하냥 부풀어 오르는듯 했다.

강반을 따라 수려하게 펼쳐진 산천경계가 도시중심의 웅건한 초고층건물들과 조화를 이루었으니 공원인지? 도시인지? ... 평양에 온지 한삭이 된 그는 지금도 문득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으나 어느새 정이 깊어 저 산책길은 멀어 저 갔다. 두 강줄기가 대동강에 흘러 들어 장쾌한 풍경을 이룬 함수목에 이르러서야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손에 든 흰 수건을 잡으면 금시 파아란 물이 들것만 같은 푸른 물결을 감돌며 유유히 노니는 살진 고기떼들... 《천고마비》(하늘은 높고 땅은 살찐다)의 뜻이 여기에도 어려 있다.

(꽃이 고와 화창한 봄을 아가씨들의 계절이라고 할진대 높아만 가는 맑은 하늘처럼 심신을 정화시켜 주는 이 가을에야말로 사색을 즐기는 사나이들의 기개가 그대로 깃든것이 아닌가!)

깊어 지는 정화에 끌려 천천히 걸음을 떼던 그는 아름 별게 자란 청청한 숲과 어울려 타는듯한 붉은 단풍에 시선을 모두었다.

(붉게 타는 단풍을 넘처럼 간직하고자 사람들은 이 계절을 단풍계절, 열정의 계절이라고 이름하며 노래 불러 자랑하지 않는가!)

생각을 더듬어 가던 지성구는 퍼덕이는 나뎡우에 혼연히 몸을 실은 채 즐거운 명상에 잠기며 저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그리었다.

《숙부님! 여기 계신걸 찾았구만요.》

문득 들려 오는 조카의 부름으로 하여 끊어진 상념이 아쉬웠다.

지성구의 그윽한 눈빛이 달라지는것을 언뜻 눈치 챈 조카는 (6.25때 마을이 해방되자 간호원으로 자진해 나섰던 누이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의대 특설반을 졸업한후 가정을 이루었다. 비둘기같이 남매조카를 키우며 지금껏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미안쩍어 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침부터 손님이 와서 기다립니다. 윤향민선생이...》

《윤향민? 뉘신데?》

어느새 눈길에 한곳으로 모이였다.

《향토시인으로 유명한 윤향민선생 말입니다.》

(시인이려면 재사인데 더우기 향토시인과는 여적 교제해 본 일이 없는데...)

저으기 난감해 진 그는 대답이 궁해 졌다.

《글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윤선생은 숙부님을 잘 아시던데요.》

조카는 자못 기뻐 하는 기색이다.

(고명한 시인과 안면이 깊은것도 하나의 궁지이지. 하지만 나를 안다는게 오해가 아닌지.)

《년세는 어떻게 됐더냐?》

《이젠 룡십이 됐을겁니다. 저는 학교때 배운 그 선생님의 시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삭막한 기억을 되살려 주려는 애모뿐 심정에서 조카는 시 한구절을 외웠다.

...고향의 맑은 하늘은
어머니의 밝은 눈동자

내 첫 자옥 때던
고향의 부드러운 대지는
다심한 손길로 이 손 잡아
인생의 끝은 길로 이끌어 준
어머니의 따뜻한 그 품이여라

...

손 저어 바래워 주는
어머니의 모습 가슴에 새기며
병사는 떠나갔어라
고향 지키는 성스러운 싸움길에...

《시가 좋구나...》

지성구는 혼자말처럼 뇌이며 생각을 더듬었다.

(반생을 령어의 몸으로 보낸 나로서는 나이로 보아도 퍼그나 아래인 문학지기와 교체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소꿉시절 친구들속에 누군가가?)

그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도 풀려 지지 않는 한가지 생각에 매달리였다.

예없이 빠른 걸음으로 서재에 들어선 지성구는 저으기 놀라왔다. 웃음을 담은채 두팔을 벌리며 반기는 시인이 가슴이 가지 않는 초면이었던 것이다.

룡십나이라고는 하지만 창작적열정이 빛발치는 열정적인 자세로 보아 50대장년이라고 해도 섭섭해 할것이라는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뜨겁게 흐드는 그에게 두손을 맡긴채 지성구는 자못 웅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반겨 맞던 시인의 목소리는 뜻 깊은 상봉의 격정처럼 열기를 풍기였다.

《성구동지, 정말 저를 알아 보지 못하겠습니까.》

《글쎄 안타까운 마음뿐이니 혹시 고향이 충주가 아니신지요?》

《충주야 성구동지 고향이 아닙니까? 대추나무가 울안에 선 초가집을 아직 가본 일이 없습니까 마는...》

그의 말을 듣는 지성구는 펄쩍 놀라 자리에서 일어 섰다. 그를 지켜 보며 뇌이는 시인의 말은 퍼그나 절절했다.

《찾아 갔으면 어머니는 성구동지가 좋아 하는 룡두지짐을 저에게도 지저... 주었으련만...》

(나의 녀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아는가? 고향친구도 아니고... 우리 고향에 한번도 찾아 가지 못했다는 시인이?...)

《선생이 어떻게 저를 잘 아는지...》

《성구동지, 말씀을 낮추십시오. 이전처럼 덕배라고 불러 주십시오.》

윤향민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서둘러 그의 말을 잘랐다.

《덕배? 아니 선생이 뭔가...》

지성구는 무너지듯 안락의자에 몸을 묻으며 고개를 저었다.

《코마루가 찜하게 내 코를 씻어 주던 그때처럼 덕배라고 불러 주십시오.》

(내가 코를 씻어 주던 소년? 그러면 마지막 그 밤에...)

어언듯 추억의 구름우에 몸을 실은 지성구는 머나먼 그 시절로 날아 갔다.

×

7명의 습격조가 숨소리마저 죽여 가며 적구로 스며 들던 그밤, 언 땅우에서도 등골을 땀으로 적시며 삼엄한 적진을 돌파했을 때 이미 날이 밝았다.

바위벼랑에 난 동굴에 몸을 숨긴 습격조는 건빵으로 때식을 에우고 잠시 눈을 붙였다. 소대장이 흔들려 깨워서야 정신 차린 지성구는 분대장과 함께 지형정찰을 나갔다. 지도에서 익힌 물방아간마을은 뜻밖에도 채터미로 되였었다. 인적은 물론 개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연기만 그물거리는 마을 잔해를 살살이 뒤져 보던 끝에 물방아간 흔적을 찾으려 내물줄기를 따라 올라 갔다.

타다 남은 물레방아옆에 죽었는지 잠 들었는지 모를 열서너살 난 소년을 발견한것은 정오가 펴 지나서였다.

흔들어 깨우니 소년은 인민군대임을 첫눈에 알아 보고 와락 품에 안겼다.

13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토끼가죽 몇장 지고 새벽에 떠나 장에 가 줍쌀 서너되를 바꿔 가지고 저물녘에 돌아 오니 마을은 온통 란장판이였다. 마을사람들을 짐짝처럼 미군트럭에 처

싣고 기총소사로 짐승마져 씹죽이고는 채등너머로 사라졌다. 오금이 질린 소년은 풀숲에 몸을 숨긴채 낱쌀을 씹으며 이틀밤을 지새웠다는것이다.

동굴로 데리고 왔을 때까지도 소년은 흐느끼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을 구원해 주세요. 술꿀에 가면 찾을거예요.》

소년의 다박머리를 쓰다듬던 소대장은 멈칫해 졌다.

《술꿀? 술꿀로 갓을것 같으나?》

《어제 밤에 채등너머로 땅크도 갔으니깐요.》

《땅크가?》

모두 놀라와 되물자 소년은 고개만 끄덕이며 불이 메이게 건빵을 먹었다.

눈빛이 날카로와 진 소대장이 술꿀정찰을 보냈다.

(마을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갔는지?)

8대의 땅크가 산턱에 은폐된것을 발견하였다. 모든것이 명백해 졌다.

런대는 퇴각하는 적들의 기갑부대를 앓은뱅이로 만들려고 연유창고를 습격할 임무를 주었다. 적들이 반공격을 시도하려 땅크까지 투입했으니 곧 기동할것이다. 뜻밖에 나타난 정황을 부대에 알리기에는 시간이 긴박하였다....

여럿이 달라붙어 어찌나 닥달질했는지 어느새 소년은 몰라 보게 달라 졌다.

어로공출신의 분대장 배낭에서 나온 면내의와 크긴 해도 보위색 아래도리에 지성구의 예비신발까지 신기고 보니 다박머리가 문제였다.

《부대에 돌아 가면 내 멀끔히 깎아 주지 않으리.》

부소대장의 말에 소년은 씹긋 웃었다. 그새 퍼그나 마음이 풀린것 같았다. 그럴수록 병사들은 무거워 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전투를 앞둔 소대장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연유창고만이 아닌 땅크부대까지 동시에 습격할 결심이다.

마음에 걸리는것은 소년이였다.

《형! 나도 따라 갈래. 난 밤눈이 밝아요.》

눈치 빠른 소년은 성구의 손을 꼭 쥐었다. (자기를 데려 와서인지 아니면 습격조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탓에 마음이 가까와 저서인지 모두를 《아저씨》라고 하면서도 성구만은 《형》이라 불렀다.) 그를 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릿해 진 성구는 대답을 피했다.

《코홀리게 같은게, 우릴 따라 가겠다구...》

성구는 소년의 코를 뺨- 씻어 주었다.

그 소년이 바로 덕배였다. 홀로 남겨 두고 떠났는데 이렇게 나타나다니...

×

《필경 덕배란 말이지. 물방아간마을...》

《형님, 이제야 알아 보셨군요.》

지성구는 그를 와락 껴안았다. 폭풍 같은 포옹이었다. 아니, 정겨운 웃음속에 나누는 마음은 끝이 없을상 싶었다.》

《고명 한 윤향민선생이 덕배라니 어찌된셈인가?》

《시를 쓰면서 향민이란 필명을 쓴게 말미가 됐지요.》

《허- 다박머리소년이 시인으로 환생했으니 모를수밖에... 하기가 장장 50년세월이 흘렀으니 까.》

《아무리 세월이 흐른들 그때 일을 제가 잊겠습니까.》

목소리마저 퍼그나 가라앉은 윤향민은 반세기 전 어린 마음속에 서리고 엉키었던 그때 일을 삼삼히 펼쳐 보았다.

2

《형, 나도 따라 갈래.》

《글쎄 안된대두...》

덕배가 또 간청했으나 대답은 한가지다.

《정 그러면 몰래 따라 갈래.》

덕배가 성화를 부릴수록 마음이 안타까와 진 지성구는 얼굴이 붉어 질뿐 더는 대답을 못한다.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목이 멘 덕배는 대뜸 눈물이 글썽해 진다.

《군대는 규율이 제일인데 맘대루 따라 나서면 안되지.》

어느새 끼여 든 분대장이 덕배를 제결에 앉힌다.

《자, 이번에 <단독임무>를 잘 수행하면 군대로 도 될수 있다. 잘 바라.》

분대장은 종이를 한장 펴 놓고 연필을 들었다.

《이제 영천으로 가거라. 고개 하나 넘으면 바다기슭에 쌍바위가 보인다. 쌍바위마을에 가서 영남이네 집을 찾으면 그게 바로 우리 집이다.》

은연중 덕배는 분대장의 진중한 말에 끌려 든다.

《우리 영남인 너보다 두살 아래여도 해염은 잘 친다.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울줄 아니? 바다를 못 봤지. 푸른 파도가 밀려 오는 기슭에는 흰 모래가 쭉 깔렸다. 저기 노루목보다 멀지 않게 바위섬이 우뚝 솟아 있다. 푸른 소나무를 머리에 잔뜩 이고서 말이다. 그 까치섬우에 갈매기들이 빙빙 날아 돌다가 앉곤 하지. 제 보금자리이니까...》

분대장의 말을 새겨 듣는 덕배는 공상 많은 소년의 생각으로 그 뜻을 생생히 펼쳐 보았다.

×

푸른 파도 출렁이는 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불우에 별에 탄 소년이 달려 간다.

《형 빨리 와.》 찾고는 또 달려 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뒤따라 나선 덕배는 소년을

따라 잡는다. 두 소년은 모래불에 한덩어리가 되어 덩군다. 유쾌한 웃음속에 소년은 제 먼저 바다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간다. 덕배도 뒤따라 바다에 뛰어들어 부지런히 물장구를 친다. 영남이는 해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물장구를 치지 않고서도 자꾸만 멀리 앞서 간다. 개해염이나마 갓 배운 덕배는 점점 더 멀어 저 가는 영남을 보고 그만 돌아 선다. 가까스로 기슭에 나와 보니 파도에 휩쓸려서인지 영남이가 보이지 않는다.

《영남아, 영남아.》

덕배는 손나팔로 안타까이 찾았으나 《끼룩-끼룩》 바다우에서 울어 예는 갈매기소리만 들릴 뿐이다. 두려운 생각에 가슴이 오주주해 진 덕배는 다시 물에 뛰어들다. 그때 넘실거리는 파도우에 영남이가 불쑥 솟구쳐 오른다.

《두고 보자. 날 놀리려구.》

화가 난 덕배는 종주먹을 휘두른다.

어느새 물에 오른 영남은 웃음을 담뱃 담고 있다.

《해해- 놀라긴. 이걸 캐려 들어 갔었는데...》

그의 랑손에는 큼직한 조개가 쥐여 저 있었다.

《놀리지 말어. 조개는 여기도 많은데...》

물가에 들어 선 덕배는 발끝으로 모래를 허빈다. 탄탄한것이 마주치자 집어 든것은 주먹만한 대합조개다.

《자, 봐라... 그래두 놀릴려구.》

《아니야. 이걸 맛 있는 밥조개구 이걸 전복이야. 이걸 먹으면 곱절로 힘이 나구 빨리 큰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자 가져.》

아직도 놀란 마음을 삭이지 못하는 덕배를 쳐다보며 영남이는 까치섬을 가리킨다.

《형, 괜한 걱정이야. 난 까치섬까지두 헤엄쳐 갔었는데 뭐.》

《형 거짓말 말어. 저기가 어디라구...》

《정말이야.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자- 내 보여 줄게.》

노여움이 풀린 덕배는 또 따라 나선다. 매생이를 저어 가는 두 소년의 마음은 사뭇 즐거웠다.

어쩌면 파도만 밀려 드는 바다가운데 저런 바위산이 우뚝 솟아 났을가. 바람에 날리고 파도에 씻기위 흙 한줌 있을상 싶지 않는 저 바위산 그것도 꼭대기에만 푸르청청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지? ...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방 가파롭게 치솟은 바위마다에 묘한 모양이 새겨 진것이 희한하다.

기슭에 올라 서니 더 놀랍다. 영남이가 불러대는 이름을 머리속에 새기며 덕배도 구력에 주어담는다. 미역, 다시마는 말할것도 없고 해삼, 갈매, 섭조개가 파도에 밀려 나와 모래터에 쭉 깔렸다. 잠간사이 구력이 넘치게 담아 넣은 두 소년은 벼랑에 가붙었다. 가파로운 벼랑을 오르는데서는 덕배가 앞장이다. 사방 벼랑턱에 모두

모둑 놓인 갈매기알에는 정신 팔 사이 없다. 꼭 대기에 먼저 오르고 싶은 생각뿐이다. 땀을 흘리며 오르고 보니 시원한 해풍이 가슴 한가득 불어온다. 이럴테라우야- 여기도 사방 갈매기알이 널려 있다. 덕배는 그것을 앞자락에 담기 시작했다.

《형, 그냥 뒤두어.》

뒤미처 올라 온 영남이는 눈살이 찡찡해 진다.

《이걸 다 가져 가면 갈매기가 썰어서 여길 떠난댔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 와 보고 섭섭해 할거야.》

또 아버지 말이다. 시무룩해 진 덕배는 갈매기알을 제 자리에 고스란히 가져다 놓는다. 덕배의 서운한 기색을 낚아 챈 영남이는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앞자락을 펼친다.

《됐어. 한알씩만 속아 내면 갈매기도 모를거야. 스톨네알만 가져 가 구어 먹자. 우리 나이 수만 큼...》

《싫어, 난 안 먹을래.》

영남이는 시뚱해서 자리에서 일어 나는 덕배의 옷자락을 잡는다.

《형, 그럼 우리 배를 타고 낚시질 하자.》

덕배는 또다시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 없다.

푸들찍거리며 물려 나오는 가재미 낚시질에 성수가 났다. 부지런히 낚아 내도 어째서인지 이물에 얹은 영남이 퍼그나 더 잡았다.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버지 낚시질이나 잡으셔. 뽕손에 낚시줄을 쥐고 낚으니깐.》

말끝마다 아버지 소리지만 저도 모르게 끌려든다.

《우리 가뜰 잡자. 이걸 아버지에게 보내주면 좋아 할거야.》

그 말에는 덕배도 고개를 끄덕인다.

덕배도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 지는것이다.

×

쌍바위마을... 까치섬, 바다와 갈매기... 아니 그보다 더 정겹게 그려 지는 영남이가 보고 싶었다.

《어떻냐?... 우리 집에 가지?》

분대장의 곡진한 권고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참 분대장동지두... 그 먼델 덕배 혼자 어떻게 간다구 그럼니까. 영천이야 이 애 걸음에 보름도 남아 될 수백리 길인데... 안됩니다.》

두줄배기 병사가 오금을 꺾으며 앉는다.

《차, 이런 오늘 밤 전선을 넘어 서면 후방으로 가는 차가 있어 양덕고개만 넘어 서면 사흘길인데 보름은 무슨 보름이야...》

분대장은 순박한 그답지 않게 어성을 높였다. 그래도 두줄배기 병사는 한사코 제 말을 앞세웠다.

《그 먼델 가느니 우리 집에 가는데 낫지요.》

그는 어느새 종이장을 꺼내 들었다.

《이봐라. 이 산줄기를 타고 사흘만 가면 마식령어귀에 있는 도덕리다. 거기서 밤나무굴을 찾아가면 돼. 집은 여라문채밖에 안되지만 골짜기엔 밤나무가 그득하거든. 너두 산골내기니까 밤청대를 해봤지. 그게 얼마나 맛 있냐. 어디 그뿐인줄 아니. 인척이 드물어서 그렇지 골개울엔 가재, 도롱뇽이 또 얼마나 많다구.》

참 우리 집에 16살짜리 순애가 있는데 네겐 누이야...》

어느덧 덕배는 그의 말에 한걸음 두걸음 끌려든다. 골짜기에 무성하게 펼쳐 진 밤나무숲, 계곡을 따라 흐르는 골개울물...

덕배는 개울물을 따라 오르고 또 오른다. 밤나무숲을 벗어 나자 소나무, 진나무들이 해빛을 가리우며 우중충 키돋움 한다. 숲은 얼마나 장관하게 펼쳐 졌는지 아직도 이 고장에 낮이 선 덕배로서는 숲에 빨려 들면 방향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래도 덕배는 오르고 또 오른다. 진보라색 머루며 다래, 빨강게 익은 오미자... 갖가지 산열매가 고유한 빛갈만이 아닌 들크무례한 향취로 그를 유혹하는듯 했다. 덕배는 어느때와 달리 거기에는 눈을 팔 경황이 없다. 산중턱까지 오른 덕배는 땀을 씻으며 사방에 대고 소리높이 찾는다.

《누나야-》

앞산에서 메아리만 들려 올뿐 대답이 없다. 필경 찾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었을텐데 누나는 엇그체처럼 아닌보살하고 있을것이다. 고까운 생각이 부끄부끄 고여 오른다. 덕배의 흰 옷저고리가 조금이라도 뒹으면 어느새 빨아 밤새 말리워 다림받까지 세워 준다. 다만 누나가 내주는 숙제가 골치거리다.

제가 불러 주다가 한글자만 틀리게 쓰면 밤이 늦었는데도 처음부터 다시 씌우군 하니 화가 돈다. 더우기 아리송한 사칙계산을 풀지 못해 속으로 앓는데도 한번만 튕겨 주면 좋으련만 한시간이건 두시간이건 지켜 서서 답을 받아 내고야만다.

매일 열가지도 넘는 숙제를 내주고는 그것을 하나라도 못하면 다음날 문밖출입은 물론 집안일에도 얼씬 못하게 《벌칙》을 주는것이 아예 질책이다. 하루는 가재잡이에 정신이 팔려 저녁 늦게 돌아 오면서 절반도 못해 놓은 숙제걱정으로 생각끝에 배가 아프다고 피병을 부렸더니 온 집안이 소동이다. 산골을 떠온다, 룽두물을 받는다 나중에는 침놓이까지 하겠다기에 덕배는 공상을 떨다 못해 제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 나고 말았다.

그다음부터는 숙제를 미처 하지 못해 낮색을 쥘프리며 밥술이 무거워 지는것을 낚아만 보이면 역빠른 누나는 《또 배가 아픈게로구나. 룽청대

는 잘해 먹고서도... 안돼.》

새침해 진 누나는 박우물에 끌고 나가 찬물 한 소꿉이를 덕배 머리에 다 끼얹어 주고는 책상에 마주 앉힌다. 역은 피도 누나의 껌같은 손탁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제 덧에 걸리곤 하니 피할 재간이 없다.

마지막수는 누나도 꿈쩍 못하는 할아버지의 응원을 받는것이다. 달구지를 끌고 전선원호길에 나섰다가 열흘만에 돌아 오시는 할아버지를 마주 나갔을 때다. 회초리를 흔들면서 소를 몰아 호기를 부리는것을 못내 만족해 하는 할아버지에게 은근히 집안걱정을 한다. 뒤끝 조는 손도 못 대고 강냉이만 겨우 절반나마 거둬 들었는데 샘골논 벼가을도 빨리 해서 동가리를 쌓고 산열매들도 손이 나는 족족 따들여야 하겠다고... 바쁜 일손때문에 온 집안이 쿵쿵 뛰여 다니는데 유독 누나만이 남달리 숙제만 많이 내주고 꿈쩍달작 못하게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분을 토한다. 히죽이 웃으며 마지막말까지 다 들어 주던 할아버지는 뜻밖에도 《우리 덕배가 험이 들었구나. 하지만 이 녀석아, 전쟁통에 밀린 네 공부를 따라 세워 보려는게 싫어? 그럼 쌍둥이네 코흘리개들과 한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좋겠냐. 키가 꺾두룩해 가지고... 꼴 좋다.》 하신다.

《우리 집에서 늦어 진걸 여기서 따라 잡겠나 요.》

《그게 뭐냐. 사내녀석이... 오늘 남보다 한걸음 뒤지면 래일은 두걸음 떨어 져. 네 누나를 보라. 안팎일을 다 하면서도 학교에선 제일이다. 기름(방등석유) 없어 지는걸 보면 밤을 패우며 공부하는걸 모르겠냐... 누나 말대로 해라.》

하는수 없이 오늘도 숙제를 꼬박꼬박 해놓고 나니 낮이 없어 졌다. 나무 하려 산에 간것 같아 산에 올라 왔으나 불려도 대답이 없다. 며칠전에 나무아지들을 낚으로 쳐놓은것이 이제는 퍼그나 말랐을것 같아 하는수 없이 덕배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때 《딱》 하는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끌려 걸음을 다그친다. 어느새 알았는지 덕배가 해놓은 마른 술가지들을 땃집 풍뎡단을 묶어 놓은 누나가 또 소나무에 올라 아지를 따고 있다.

《어서 내려 와. 너자가 나무잡이를 하면서...》

누나가 떨어 질가봐 조마조마해 진 덕배는 급해났다. 했으나 버들가지처럼 유연한 몸을 소나무줄기에 착 붙인채 해맑은 얼굴에 유표나게 까부장한 눈섭을 치며 보이며 정 많은 마음이 그대로 내비치는 크고 서늘러운 눈길에 웃음만 띠운다.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누나 말을 안 들겠어.》

《정말?》

《매 맞고 집에서 쫓겨 나두 숙제구 뭐구 공분더 안할래.》

누나는 저으기 놀란 기색이다.

《두고 보지. 빨리 내려 오지 않으면 나두 제맘대루야.》

불 부은 덕배의 투정에 못 이겨 누나는 미끄러지듯 내려 와 장난기어린 웃음을 짓는다.

《내가 오늘은 덕배한테 졌다.》

《흥. 지진? 이진진 누나야. 오늘 숙제는 벌써 다 했으니깐.》

《호호. 용쿠나. 덕배가 공부를 잘하는줄 알면 오빠가 기뻐할거야.》

따뜻한 기대가 담긴 그 말이 덕배의 가슴속에 그대로 흘러 든다.

《정말 그걸 알까?》

《알지 않으면. 오빠가 집에 올 땐 덕배 자랑두 커야지.》

《좋아. 난 공부도 제일이고 일두 다 내가 할테야.》

마음이 즐거워 진 덕배는 대뜸 나무를 타고 오른다.

×

으쓱해 진 덕배 마음과는 달리 누군가 통을 놓는다.

《그건 안되요. 차라리 이름 석자 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사람 찾는게 낫지. 말이야 바른대루.》 덕배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산골오지에 빠져 들면 어련도 초행길엔 방향을 잃는데 길 물어 볼 사람도 없는 그런 심심산골에 덕배 혼자 보냈다가 어쩔려구. 산귀신 될지도 몰라요.》

키 큰 병사가 노여운 눈총을 피해 슬며시 끼여 든다.

《덕배야, 사방이 탁 퇴운 열두삼천리벌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 가는게 나야. 우리 집은 대번에 찾을수 있다. 손바닥처럼 환한 길을 따라 창해면에 찾아 가서 킁작다리 명진이네 집을 찾으면 모를 사람 없어. 내가 씨름선수였으니까.》

군에까지 가서 큰 소는 못되어도 중소를 탔다는 말에 끌려 덕배는 그를 쳐다본다. 그러자 명진병사는 히죽이 웃으며 손시늬부터 했다.

《창해강 넓은 기슭에 (그는 두팔을 한껏 벌려 보여였다.) 밀려 온 나지막한 야산에는 감나무가 유별하다.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 세그루중에 하나는 늦서리를 맞아 잎이 다 떨어 저도 빨간감이 그대로 가지에 달려 있을제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말이다. 너두 맛을 보게 돼.》

어연듯 덕배는 키 큰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이름도 낯 설은 창해땅에 조심조심 찾아 간다.

×

폭격은 심해도 넓은 들에는 버이삭이 가을바람에 설렁거리고 넓은 들을 가로 질러 창해강이 용용히 흐른다. 찾아 드는 논고물에 모이는 고기잡이도 좋겠지만 강기슭에서 갈게잡이는 또 얼마나

신이 나라. 금빛으로 물 든 끝 없는 들판과 어울려 빨간 열매 주렁진 야산이며 검푸른 강줄기가 그림처럼 펼쳐 졌건만 덕배는 처음 맛 보는 천렵놀이재미에만 정신이 쏠린다...

한걸음 더 나서자 삿잡문이 활짝 열리며 흰 저고리를 입은 큰어머니(명진의 어머니)가 한손으로 치마꼬리를 전체 마주 달려 나온다.

《어디 보자. 우리 막내(명진)가 동생이 생겼다고 기뻐 하더니... 왜 인제야 왔냐.》

덕배의 잔등을 쓰다듬던 손이 눈곱을 찍는다.

그 반가움보다 더 좋은것은 어른대접이다.

순천에 살던 누님(명진의 누이)이 폭격에 가산을 잃고 계집애 셋을 데리고 와서 한집에서 살다 보니 식구가 일곱이나 되지만 때식마다 덕배는 큰아버지와 맞상을 차려 준다.

기름이 찰찰 도는 흰쌀밥에 붕어찜이며 메사구(메기)탕, 농달치출임과 갈게, 참계절임이 다 새롭고 별맛이다. 전선길로 뻗은 창해다리를 노리고 비행기가 하루에도 2~3차례씩 날아 와 끊어 놓으면 수송차들을 통과시키느라고 큰아버지가 다리복구장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이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덕배는 딴 상을 받곤 한다.

본래 파묵한분인 큰아버지는 모든것이 어려워진 전시여서인지 하루에 두세마디 말을 하는것이 고작이다. 만족할 때에는 수염이 꺼칠한 아래턱을 쓸지만 불만스러울 때에는 딱딱 소리를 내며 곱방대에 낀 대진을 던다.

소심부름을 시키거나 소를 먹이는 일을 덕배에게만 시키는걸 봐선 믿음이 생기는 모양이다. 하긴 작두질도 장단을 맞추어 가며 덕배하고만 한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황소도 큰어머니나 누님의 말보다 덕배를 더 따른다. 그럴 때면 덕배는 어른스레 여물을 푼푼히 주면서 고개를 주억거리는 소를 보며 말한다.

《많이 먹이라. 래년엔 나두 15살이니(덕배는 어른대접을 받으면서부터 한살 늘구곤 했다.) 같이 봄갈이를 해보자.》

하지만 어른구실도 못해 보고 하루아침에 집안기대에 어그러지게 동네망신을 하는통에 흐뭇이 쌓여 지던 소원이 줄지에 무너질줄이야...

마을어귀, 당나무에 튼 밀화부리둥지를 노리고 덕배는 나무오르기에는 제일이라고 동네아이들 앞에서 뽐내면서 발뽀발뽀 중등이까지 올라 간다.

한손에 장대를 받아 쥐고 몸을 솟구치는 순간이다. 장대 왼 손이 휘청-하면서 몸에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가까스로 발을 붙였던 나무가지가 꺾어지며 허공중에서 떨어 졌다. 일결에 장대에 몸을 실자 상대가 허리 부러지면서 당나무집 허청간 초가지붕우에 미끌며 떨어 졌다. 다행히 크게 상한데는 없었으나 한달도 못된 고무신이 꺾어진 가지에 걸려 손가락만큼 찢어 졌고(그건 몰래 기워신는다 해도) 장대를 꺾어 났으니(별방인 여

기에서는 장대가 귀한데다가 여러모로 요긴하게 쓴다.)참 화단이다. 그런데다 당나무집에서는 지붕우에 박당쿨과 때 이르게 넣어 놓았던 고추가 란장판이 되었다고 큰 일이나 난것처럼 소동을 피운다.

《무슨 애가 그렇게 벌찬지. 동네아이들을 다 휘동해 가지고 다니면서 못된짓만 골라 한다니까.

소싸움을 시켜 (전번에 소를 먹이려 갈밭에 나갔다가 아래마을 애들과 승벽내기를 하던 끝에 소싸움을 시킨것이 커져 어른들이 불망치를 가지고 와서야 겨우 떼놓았다.) 소뿔이 상한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번엔 새둥지야? 거기서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삽시에 소문이 퍼져 동네사람들이 모여 들자 덕배는 죽는 소리를 치며 집에 오자 아래목에 드러누웠다. 허벅다리에 진 멍을 보자 큰어머니는 천행중 다행이라고 혀를 차면서도 걱정을 앞 세운다.

물을 끓인다, 찜질을 한다, 닭알을 굴려 멍독을 뽑는다... 하지만 덕배의 걱정스러운 마음은 큰 아버지에게 쏠린다. 오늘 일이다 소싸움까지 합치면 육은 물론이려니와 회초리맛을 단단히 봐야 할것 같다.

밥이 이속해서 들어 온 큰아버지는 (벌써 동네에서 초벌소문을 들었는데다가 오늘은 일찍 자지도 않고 있던 조카계집애들이 재재거리며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치는 바람에 피할 틈도 없다.) 어쩔어쩔 기침부터 깃는다. 큰어머니가 두손을 내저으며 병어리시눔으로 령감의 마음을 녹았히려 했으나 그도 큰아버지의 엄한 눈총에 질려 부역으로 나간다. 방안에 서린 침묵을 녹여 보려는듯 큰어머니가 새문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 온다. 닭알죽을 쑤어 주었으나 엄살을 부리면서 덕배가 몇술 뜨다 말았던 그릇도 상우에 그대로 놓였다.

밥술을 들지 않고 잔기침만 하는 큰아버지의 기상에 놀려 덕배는 하는수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번에도 몇술 뜨다 말려고 했으나 큰아버지의 눈총에 질려 꾸벅꾸벅 다 먹지 않을수 없다.

담배를 피워 문 큰아버지는 한참만에 입을 연다.

《밥그릇을 비웠으니 이젠 됐다. 눈치만 살아서 속이 줄아 들면 그제야 단이지. 그만한 일에 의기가 꺾이면 무슨 사내냐...》

우리 명진이도 네 나이때 장난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 장독까지 깨먹었지.》

큰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던 큰어머니는 박이나 고추가 대수냐고 반죽을 친다. 우리 박이 익으면 절반씩 갈라 쓰고 고추농사가 잘됐으니 김장고추는 걱정도 아닌데 그 집에서 소동을 피웠다고...

《안할 소리. 이자 오면서 보니 그 집 적은이가

제 조카편에 응답을 부탁하던데... 흠.》
큰아버지의 음성은 높았으나 예없이 부드럽다.
속이 풀린 덕배는 자리를 털고 앉아 자세를 바로 한다. 그러는 모양을 이윽히 지켜 보던 큰아버지는 은근한 목소리로 묻는다.

《난 살 발은이가 없는 네가 눈치를 보며 정을 가릴가봐 소싸움은 말을 안했다. 승벽내기를 한다면 이겨야지.

그래 새둥지가 욕심 나드냐?》

대답이 없자 큰아버지는 조용히 말한다.

《그리운게 있으면 말해라.》

《그런건 없어요. 사실 밀화부리새끼가 다 컸는데 놀라서 날아 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래 새둥지에 넣어 키워 보려구요...》

《음 녀석두 참...》

덕배를 지켜 보던 큰아버지의 눈빛은 신중해진다.

《됐다. 면에 나가보니 폭격 맞은 학교 뒤산에 교실을 짓더라. 이제부터는 장난 말구 채심해서 공부를 잘해라. 사내란 배워야 주대가 선다.》

고개를 끄덕이는 덕배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 가는 첫날 큰아버지는 흰 줄이 간 곤색운동을 사다 준다....

×

《그 운동화는 정말 나한테 주는건가요?》

덕배는 기뻐서 물었다.

《운동화뿐이냐. 새까만 학생복까지 해줄게다.》

소대장아저씨의 말에 덕배는 그 모든것이 믿어졌다.

하지만 어데부터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저씨들의 고향에 모두 마음이 부쩍 끌린 덕배는 들뜬 기분으로 성구에게 물었다.

《형은 고향이 어디냐요?》

《충주란다. 와대마을이라고 시오리만 더 가면 된다. 놈들을 몰아 내고 나하고 같이 가자.》

마지막말에 덕배가 섭섭해 하자 성구는 은근히 달래인다.

《우리 집앞엔 대추나무가 있다. 참 같이 가면 우리 어머니 내가 좋아 하는 록두지짐을 지저 줄게다.》

그 고향들을 다 가고 싶은 생각에 덕배는 어깨가 으쓱해 진다.

3

윤향민의 말을 깊은 감회속에 듣고 있는 성구는 오랜 세월 무정하게 퇴색하고 사그라져 삭막해 졌던 그때 일이 신비로운 각광을 받은것처럼 하나 둘 선명한 색채를 띠며 본색으로 또렷이 떠올랐다. 아니 그때의 그 마음까지도 되살아 나는 듯 싶었다.

(그래. 나도 한마디했지. 그보다도 전우들의 그 고향이야기가 지금도 정겹게 그려 지누나. 그때

안타깝기만 하던 마음까지도 삼삼히 어리어 온다.)...

《그럼 난 어디로 갈가요?》

덕배의 순진한 물음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의용군출신 상등병은 긴 한숨만 내린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세 병사는 제 고향으로 가라고 제 나름의 주장으로 고집을 앞세웠다. 누구도 그들의 진정이 담긴 주장을 탓할수도 없거니와 선뜻 따르라고 할수도 없었다. 지어 소대장과 부소대장(함포탄에 온 가족이 몰살되었다.)까지도 근엄한 눈빛으로 큰 숨만 내쉴뿐 대답을 못했다.

날이 저물어 지자 한껏 부풀었던 덕배의 마음은 저으기 잦아 들었다.

어디로 가겠는지는 혼자서 어려운 길을 헤쳐 가야 할 덕배에게 《선택권》이 쥐여 졌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어린 그에게 따듯한 조언마저 변변히 주지 못하는 성구의 마음은 점점 더 안타까와 졌다.

어둠이 깃들어 부소대장이 책임진 연유탕크습격조와 재등에서 헤여질 때였다.

덕배는 금시 울상이 되었다.

《난 어디로 가면 좋아요?》

안타까이 발을 구르는 덕배를 보니 성구는 자신이 못내 민망스러워 저 고개를 돌렸다.

《울긴. 사내가...》

덕배의 눈물을 닦아 준 소대장은 그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 주며 조용히 타이른다.

《내 말을 채심해. 평양으로 가거라.》

《평양이요?》

놀라운 덕배는 사위를 둘러 본다. 하지만 그 말에 놀란것은 덕배만이 아닌 습격조원들모두였다. 하긴 놀랐다기보다는 숫구치는 걱정이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언제나 그리며 어디서건 달려 가 보리라던 평양은 고향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고향》이기에 그들은 따뜻한 눈길로 뜨겁게 고무해 주었다.

거울진 분대장이 그의 연약한 어깨를 다정히 껴안으며 퍼그나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양엔 우리 장군님께서 계신다.》

흐느김처럼 후더운 숨결을 온몸에 감싸안으며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성을 높이던 명진병사도 차분한 어조로 그를 일깨워 주었다.

《잘 봐라. 저기 하늘에 국자처럼 빛나는 별이 북두칠성이다.》

하나, 둘... 세여 봐라. 여기 7명의 아저씨처럼 별도 일곱이지. 잘 새겨 두거라.

저 별을 따라 가면 평양이다.》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는 북두칠성을 덕배만이 아닌 습격조원들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

보았다.

(저 별빛 바라보며 평양으로 가거라. 내 언제진 크나큰 기쁨속에 달려 가리라던 그 마음 안고 네 먼저 가거라.)

덕배의 머리를 쓰다듬는 성구의 손은 저으기 떨리었다.

《형,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덕배는 문득 품속에서 종이쪽지들을 꺼내들었다. 부소대장이 부드러운 말로 깨우쳐 주었다.

《음, 이답에 다 찾아 가거라. 그 고향에서도 저 별은 밝게 빛나거든...》

《자 이것도 간수해라.》

소대장이 품속에서 꺼낸 학교휘장을 덕배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 말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아직도 어린 덕배였으나 그와 헤어지는 습격조원들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믿음이 뿌리 내리었다.

×

밤 12시, 땅크습격조의 기습이 일격에 시작됐다. 성구가 두번째로 옷문을 열려고 땅크에 올라섰을 때 채등 너머 연유창쪽에서 솟구치는 화광을 보았다. 마지막땅크로 달려 가려는 성구에게서 소대장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반땅크수류탄을 나누어 줬다.

《성구, 엄호하라구.》 웃음을 날리며 탄우속으로 뛰어 든다.

맹사격을 하며 뒤따라 나서던 지성구는 무딘 몽둥이로 내려 치는듯한 타격에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혼몽해 지는 의식속에서도 지성구는 마지막폭음을 들었다...

×

(소대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그 행적을 알수 없어 생각을 더듬던 성구는 윤향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서야 소대장동지의 집을 찾았지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니 선생님들이 경상골에 있는 집을 찾아 주더군요.》

윤향민이 내미는것은 소대장이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쥐여 주던 《평양제1고급중학교》 휘장이었다.

《그래서?》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두눈에는 한가닥 기대가 담겨 있는 지성구를 지켜 보며 윤향민은 흐느끼듯 말했다.

《전쟁이 끝난지 3년이 지났으나 소대장동지는 돌아 오지 못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살아 온것처럼 반기는 어머니의 극진한 권고대로 그 집에서 1고등을 졸업했습니다.》

먼곳의 메아리처럼 들려 오는 윤향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지성구는 가슴이 아파남을 참기 어려웠다.

쌍바위마을과 밤나무골, 감나무 유정한 창해마을도 찾아 간 윤향민은 영웅들이 혈전의 그 밤에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 오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손바닥만한 철창으로 달빛이 스며 드는 밤이던 키돋움으로 복두칠성을 찾아 보면서 전우들을 그려 보던 아릿한 추억에 지성구는 눈곱이 젖어 들었다.

추연한 생각에 싸여 자리에서 일어 난 그는 자신을 다잡지 못해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단풍도 마지막계절에야 비로소 붉게 타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네들은...)

《이보게, 한생을 다 살고도 모자라 이 생을 또 다시 살고 싶어 하는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지만 그 길지 않은 인생의 첫 시절에 벌써 구만리 같은 인생길을 이어 갈 더운 피만이 아닌 심혼을 붉게 태운 영웅들의 장한 뜻을 어찌 자연의 리치에 비기겠나...》

잠시 말을 끊었던 성구는 가슴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웨침 그대로 열정에 넘쳤다.

《무릇 사람들이 한생이 아니라 두생을 살아도 오르기 힘든 인생의 봉우리에 솟구쳐 오른 그 의지와 힘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렵네.》

성구의 격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주려는듯 윤향민이 답답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영남이와 순애누나 그리고 큰아버지나 고향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뜻을 적으나마 깨달은것 같습니다. 고향보다 더 간절한, 그리움속에 평양을 안고 간 영웅들의 한결 같은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 장군님을 모실 간절한 마음으로 산천도 마을도 꾸러 나가는 고향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고향 또한 영웅들의 넋으로 피여 나고 있으니까요.》

(고향보다 더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산 영웅들이기에 죽음도 웃으며 맞받아 나갔지. 바로 내가 본 소대장의 최후처럼...)

지성구는 윤향민의 두손을 잡았다. 물기어린 그의 두눈에 비친 마음속 이야기를 읽으며 윤향민은 시인의 열정 그대로 호방하게 웃었다.

《옛 사람들은 시인은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지만 저는 <신>의 아들이 아닌 다박머리 덕배입니다. 하지만 영웅들의 그 뜻이 하도 소중해서 그네들의 넋이 피여 나는 고향땅을 자랑높이 웨치고 싶은 마음만을 오늘까지도 안고 삽니다.》

그를 사려 깊은 눈길로 지켜 보던 지성구는 숙연한 사색속에 싸여 들었다.

《이보게 시인선생!

영웅들의 넋이 피여 나는 그 땅을 나도 찾고 싶구만. 알겠나. 고향의 노래를 한수 지을지...》

지성구는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열망을 조용히 뇌이였다.

...

영웅들의 령전에

술 한잔 붓기전에
내 먼저 찾고 싶어라
혈전의 날에도 안고 산
그네들의 뗏이 어린 고향땅을...

...
복두칠성 우러르며
고향보다 더 간절히 그리던
고결한 그 뜻에 내 마음 더하고저

이모님은 오십니다

김명철

이른 아침 담장우에 까치가 와앉으면
그날은 해종일 큰 길쪽만 보는 마음
한밤에 토방에서 멍멍이가 짖어도
열른 문을 엽니다
오실가 하여

아, 지난해 6월 보름
헤어진 혈육들을 만나게 해주자고
우리 장군님 선언하신 그날부터
한해동안 내내
하루같이 기다리는 이모님이시여!-

아래마을 세복이네 삼촌
형님을 만나려 평양에 들어 오고
고개너머 분이 아버지
누이를 찾았다고 서울로 나갔는데
이모님이라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제 곧 잇는다는 림진강철교
그 개통을 기다리는것은 아닙니까
군사분계선을 들어 내고
개성까지 시원하게 큰 길을 뚫는다니
차를 타고 오시려는건 아닙니까

그래서 올봄엔
이모님 오신 날 친척들 다 모이게
벽을 터치고 더 넓은 우리 집
뜨락에 한가득
병아리도 깨우고

우리 장군님덕으로
이제는 실단을 만나보게 되었다고
잔주름 환히 퍼신 우리 어머니
이모님이 꽃마늘을 좋아 하신다고
지금도 저렇게 물을 주고 계시나니

오실겁니다
오고 계실겁니다
긴 치마저고리 꽃보라에 묻혀
북행렬차 승강대를 오르고 계시는
이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입니다

아, 우리 장군님
위대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낮이나 밤이나 심혈을 쏟으시기에
삼천리를 진동하는 통일열기를 타고
고향에 들어 서실 이모님이시여!-

나는 동구길만 바라볼수 없습니다
밤마다 집에 앉아 기다릴수 없습니다
내 쌀을 더 많이 내야
이모님 더빨리 오시고
우리 겨레 더 많이 열싸 안으려니

통일을 마중 가는 내 마음에 질푸르려
이랑과 이랑에 이삭들이 어우러지는 들로
이모님은 오십니다
쭈미 벌게 아지치는 그 실한 벼포기들이
이모님을 맞이하는 내 진정입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오광철

1

명옥은 강변에 가득찬 나직하고 웅글은 물소리와 수면에 부딪치며 얼굴을 간지럽히는 햇빛을 느끼며 늘 나와 앉던 빨래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빨래감이 담긴 소랭이와 오랜 세월 빨래질에 닳아 저 자그마해 진 빨래방치가 놓여 있었다.

지금 명옥은 자기 마음속을 아프게 헤살치는 사람, 잊어 버리자고 애 써도 자꾸만 살아 오르는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1년전 일이다. 그날 명옥이 일하는 주유치원에서는 경치 좋은 수양산으로 들놀이를 갔었다.

들놀이에 한껏 흥떴던 처녀교양원들의 웃음소리는 자동차적재함우에서도 가라앉을줄 몰랐다. 어찌나 웃고 떠들었는지 운전칸에서 나이 지숙한 운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는것으로 무슨 내기를 한다면 이 처녀들을 당할 사람들이 없겠군, 원!》 하고 혀를 찼다. 그들의 웃음을 싣고 차는 기세 좋게 달렸다.

그런데 이때 명옥의 하얀 채양모가 바람에 날려 떨어 졌다. 명옥이보다 동무들이 더 급해서 소리를 쳤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청년이 그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는 그 모자를 머리에 척 쓰고 자전거발디디개를 힘껏 밟아 자동차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아도 웃고 떠들 일을 찾지 못해 몸달아 하던 처녀들이 일시에 승벽이 나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빨리요! 빨리요!》

그러나 역시 자동차는 자동차여서 청년은 점점 떨어 지기 시작했다.

《야!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빨리요!》

차에 탄 처녀들은 응원을 할 때처럼 열을 올려 법석했다. 그러나 청년과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한 처녀가 운전칸지붕을 두드리며 세우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한 장난질로 치부한 운전사는 《조용해. 그 참새장난에 정신 팔새가 없어.》 하고는 더 속도를 높였다.

자동차가 한굽이를 돌아 서자 청년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처녀들은 금시에 시무룩해 졌다.

《야! 그 총각 기권했겠구나.》

《명옥이 모자가 아깝다 애.》

문득 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지며 점점 속도를 죽였다.

《왜 이러니?》

《야! 바퀴가 터졌다.》

《터졌다야!-》

처녀들은 손벽을 치며 쿵당쿵당 뛰기까지 했다. 운전사가 차문을 열고 내려 서며 조용하라고 짹소리쳤다. 그러거나말거나 처녀들은 지나온 뒤쪽에만 눈을 팔았다.

《올가?》

《글쎄...》

문득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자전거 발디디개를 정신없이 밟으며 달려 온다. 어지간히 지친 기색이었다. 처녀들속에서 환성이 터졌다. 모두가 입을 모아 소리쳤다.

《여기예요. 여기! 힘을 내요.》

청년이 웃는지 흰이가 병긋했다.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던 자전거가 다시 멋스럽게 달려 오기 시작했다.

문득 한 처녀가 꾀를 생각해 냈다.

《애들아! 우리모두 모자를 벗자. 저 청년이 모자주인을 알수 없게. 응?》

《그게 좋겠어.》

모두가 맞장구를 쳤다. 명옥은 어찌할바를 몰라 동무들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다.

처녀들은 일시에 모자를 벗어 감추었다. 다가온 청년이 그만 놀라 얼터름해 졌다.

《동무들! 이 모잔 누구거요?》

처녀들이 약속이나 한듯 손을 내밀며 합창했다.

《우리거예요.》

청년은 처녀들의 속심을 알아 찬듯 싱글싱글 웃었다. 그러더니 매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기 시작했다. 청년의 눈길이 명옥에게 멎었다. 명옥은 얼굴이 화끈해 허둥거렸다. 그러자 청년은 손에 쥐었던 모자를 자신 있게 명옥의 손에 쥐여 주었다.

《하아아!-》

처녀들이 탄성을 질렀다.

《기가 막히는구나 응?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니?》

《야! 난 눈이 마주칠 때 날 줄줄 알구 가슴이 다 화닥닥 했었는데...》

처녀들은 웃고 떠들며 입을 모아 소리쳤다.

《동무, 어디까지 가요? 타세요!》

처녀들은 손들을 내밀어 법석을 떨며 청년과 그의 자전거를 끌어 올렸다.

청년은 도일보사의 리문일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 맞혔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눈빛을 보고 알았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눈은 책처럼 읽기 쉽지요.》 하고 대답했다.

에비다이야를 갈아 댄 자동차는 쾌활한 처녀들과 총각을 싣고 살같이 달렸다.

바로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서로 알게 되었고 그후 우연한 기회들에 다시 만나서도 서먹서먹한 감이 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을수 있었다.

어느 날 문일은 명옥에게 어머니에 대하여 물었다. 명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20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그때 놀라서 눈이 둥그래 지던 문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말이 있지요.》

문일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나 문일의 아버지가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명옥의 집을 찾아 와 오구작작 떠드는 아이들이며 그 애들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놓고 앉아 있지 못하는 어머니와 명옥을 말없이 지켜 보던 문일의 아버지가 무겁게 자리를 일어 돌아 간 다음날부터였다.

《제 집 행복은 손해없이 다 챙기면서두 남의 집 힘겨움엔 눈을 감는짓이야 못하지요. 외아들 가진 우리 집 생각만 하면서 명옥이를 데려 오면 그 집은 어찌요? 당장 한사람의 손이라도 더해서 도와 주어야 할 집인데... 명옥이 어머니를 위해서 대학까지 그만둔 앤데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걸 멀리서두 아니구 곁에서 두구 보는 마음이 오죽하겠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슴 아프긴 매일반일테니...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명옥의 귀가에는 웅골찬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내물이 바로 그 목소리를 받아 외우고 있는듯 했다.

《어머니를 위하여 대학까지 그만둔 앤데...》

온 강변이 그 말을 수선수선 외우는듯 했다.

뒤따라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온다. 명옥과 문일 두 집사이를 오가며 혼사말을 내던 먼 친척벌 되는 녀인의 목소리였다. 그 녀인은 명옥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 아이들은 저렇게 자꾸만 크구... 언니의 힘에두 한도가 있는거구... 그래서 그 집에서두 그런 말을 내게 된게 아니예요. 언니! 제 자식 생각두 좀 하라구요. 예?! 내 어제 오늘 한 생각이 아닌데 좀 큰 아이들 10명을 학원에 보내자요. 그렇다구 누가 언니를 탓하지 않아요. 그럼 명옥

이두 마음이 편해서 시집을 갈거구... 언니! 언니가 정 딱하면 내가 10명을 데려다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들이 들어요. 다 큰 애들인데... 그런 상 처날 말은 하지 말아요. 난 그렇겐 못해요. 아마 명옥이두 내가 왜 이러는지 다 리해해 줄거예요. 리해해...》

그런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모습을 돌이켜 보는 명옥의 눈가에 따갑디 따거운 한줄기 물기가 핑 어렸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로 사랑했을 어머니!

《어머니!》

핑 흐려 지는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과 함께 어디선가 멀리서 빨래방치질소리가 아스런하니 들려왔다.

그것은 추억속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추억의 그 소리는 어딘가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점점 크게 울려 왔다.

...

명옥에게는 왜서인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손가에 축축한 물기와 한줄기 싱그러운 비누냄새 그리고 귀에 익은 빨래방치질소리가 먼저 떠올랐다.

깊은 밤 어머니의 애무속에 잠들었다가 문득 눈을 뜨면 집안은 부엌쪽에 켄 불빛때문에 어슴푸레한데 옆자리는 비어 있다. 불현듯 겁이 나서 꼼짝도 않고 누운채 《엄마!》 하고 불러 본다. 그래도 고요하다. 좀 더 크게 《엄마!》 하고 불러 본다. 그러면 우물가에서 토닥거리는 방치질소리가 들려온다. 마치도 《엄마 여기 있다.》 하는 대답인듯이...

귀에 익은 소리였다. 아까 낮에도 어머니는 명옥의 뒹은 옷을 벗기고 거의 발가벗다 싶이 한 그를 포도나무 그늘아래 앉힌채 빨래를 했다.

어머니는 깨끗한것을 좋아 하는 녀자였다. 부엌에서 쓰는 행주도 끼니마다 방치로 두드려 뻥다. 빨래감은 순간도 묵여 두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옷을 빨 때면 어머니는 오히려 즐거워 했다.

《명옥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해보자요.》

포도나무그늘아래 앉아 놀고 있는 딸애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린 딸은 포동포동한 두손을 옆구리에 척 올리고 고개를 가웃가웃 해가며 노래를 부른다. 어머니의 얼굴표정조차 어린 딸의 동심으로 돌아 가 그는 딸애처럼 고개를 가웃가웃 해가며 갓가지 형용을 함께 해보인다. 그러면서도 손은 숨씨 있게 빨래방치를 두드린다.

바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알려 주는 소리였다. 그러면 《어머니가 저기 있어.》 하고 생각하며 명옥은 다시 달콤하게 잠들곤 했다. 그 밤 명옥은 자기보다 더 큰 빨래방치를 들고 빨래를 하는 꿈을 꾸었다...

명옥이 14살나던 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육원에서 6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 왔다.

거리에서 길을 잃은 한 사내애의 집을 찾아 주다 보니 그 애는 애육원에 있는 애였다. 그때 애육원에는 6명의 아이들밖에 없었다. 그 6명의 아이들을 놓고 애육원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아버지의 등에 업혀 애육원까지 온 애가 《엄마! 나 집에 갈래.》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6명의 애들이 다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애들을 집으로 데려 오게 되었다.

《자, 동생들이다. 사이 좋게 놀아라. 응?》

눈이 동그래 서 있는 명옥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 명옥인 다 큰 애지.》 하고 말하는듯 한 그런 눈빛으로 명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명옥은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한옆으로 돌려 버렸다.

명옥은 그 애들이 싫었다. 행복하고 평온하던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가 독차지하던 어머니의 사랑속에 낯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애들이 불쑥 끼여 든것이 겁이 났고 싫었다.

아닐세라 그 다음날부터 명옥은 잠자리마저 어머니의 옆에서부터 옷방으로 옮겨 가야 했다. 저녁이면 그 6명의 아이들이 서로 어머니옆에 눕겠다고 싱갱이질을 했다. 그러다가 옆에 눕지 못한 아이들은 발만이라도 어머니에게 대고 자려고 서로 어머니에게 발을 올려 놓았다. 그래서 부채살모양으로 어머니를 빙 둘러 싸고 자곤 했다. 그런 애들을 볼 때면 명옥은 그 애들을 막 때려 주고 싶기까지 했다.

바로 그러한 속에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 왔다.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시련의 나날이었다. 그 나날속에 조국앞에 성실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기대앞에서 순직하기도 했다.

명옥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을 한명 한명 집으로 데려 왔다. 하여 명옥의 집에는 20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 애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그 20명이 속옷까지 다 벗어 놓으면 단번에 80여가지의 빨래감이 생긴다. 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제손으로 빨았다.

그때 명옥은 도교원대학에 갓 입학했었다. 명옥이 대학 오후시간을 어머니의 일을 돕는데 바

칠라치면 어머니는 사정하다 싫이 밀막곤 했다.

《봐뉘라. 내가 있지 않니. 넌 그저 공부를 잘하거라.》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독감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다. 빨래감을 순간도 목여 두지 않는 어머니였지만 그때에는 아이들의 빨래감이 세면장에 그득히 쌓여 지게 되었다.

아래목에 자리를 펴고 누운 어머니곁을 아이들이 성벽마냥 둘러 싸고 앉아 있었다. 이따금 자리다툼을 하는지 움쭉거리는 아이들의 소곤소곤 목소리가 들려 왔다. 어머니는 자기 머리맡을 걱정스레 지켜 선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 보다가 한 처녀애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예옥아! 너희 어머니얘기를 좀 들려 주렴.》

그 애는 20명 아이들중에 나이가 그중 많은 13살소녀애였다. 불과 몇달전에 어머니를 잃은 그 애는 벌써부터 목이 메여 올라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 돌아 간 다음 자꾸 앓았어요. 그래두 계속 직장에 나갔어요. 설계가 밀린다구 하면서... 며칠동안은 너무 아파서 직장두 못나가구 죽두 못 먹었어요. 그때 난 겁이 나서 학교에 안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걸 알구 날 더러 학교에 가라구... 그러면서 직장사람들이 어머니 죽을 썬 잡수라구 가져다 준 쌀루 밥을 지어서 나한테 점심을 싸주구... 내가 학교에 갈 때 어머니 문턱에서 손을 저어 주면서 자꾸 울었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보니까 어머니가 없었어요. 저녁에 어머니 직장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 그때 병원에 실려 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젠 내가 학교에서 돌아 왔겠으니 가서 그 애 저녁밥을 해주라구 그리구 숙제를 꼭 하라구 일러 주라구 했대요. 그런데 난 그것두 모르구 저녁을 먹구 숙제를 하구 엄마 죽을 아래목에 싸놓구 기다렸어요. 깊은 밤에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앓아서 사람들이 날 데리러 왔어요. 내가 엄마 죽하구 숙제장을 안구 달려 갔는데... 어머니 말두 못하구 숨도 쉬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왔어. 숙제를 다 했어. 오늘 5점두 맞았어. 엄마, 죽 먹어.> 하구 암만 말해두 엄마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죽었어요.》

그 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 애를 꼭 안아 주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이 애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들을 잊지 못할게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들이였지.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 자식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이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난 방금 내가 이 많은 애들을 꽤 아이

들 한둘 가진 집만큼 해내세울수 있을가 하구 생각했구나. 여긴 처녀애들도 많은데... 이 애들은 벌써 깨긋한것을 알구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다 아는 애들이다.》

어머니는 분연히 일어 나 세면장으로 나가 빨래감들을 물에 담그었다.

《어머니! 어찌려구...》

명옥이 만류했다.

《일 없다. 난 오히려 빨래를 할 때가 쉴 때란다. 넌 어서 네 공부를 해라. 어서!》

《?!》

어머니는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더운물에 비누칠을 해서는 찬 바람이 악을 쓰듯 부는 우물가로 날라 갔다. 모든것이 짱짱 얼어 붙은 대기속에서 귀에 익은 빨래방치질소리가 들려 오기 시작했다.

얼어 붙은 대기를 창창 두드려 흔들며 명옥의 마음을 모질게 흔들며 계속계속 들려 왔다. 명옥은 그만 귀를 꼭 막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도 빨래방치질소리는 계속 들려 왔다. 추위도 아픔도 누를수 없는 그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모습이 영화화면마냥 눈앞을 흘러 갔다.

...어머니가 자그마한 야산기슭 돌각담을 뛰지며 발을 일구고 있다. 아이들에게 콩나물을 떨구지 말고 먹이자고 콩을 심을 발을 일구고 있는것이다. 돌각담에서 나온 한마리의 커다란 뱀이 어머니의 발앞을 스쳐 지나간다. 기급한 어머니가 그만 산비탈에서 굴러 내린다. 피 흐르는 이마전, 굴러 내려 상한 아픔보다 뱀에 대한 무서움이 더해 다시 발을 일구려 그 돌각담을 헤칠 때 눈까지 감는 어머니모습, 그래도 여전히 돌각담을 들추며 발을 일군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첫물 앵두를 먹이려고 배낭안에 바게뜨를 넣고 친척집으로 떠난다. 30리길을 갔다 온 어머니는 더위를 먹어 민간료법인 구운 오이를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오구작작 앵두를 먹고 있다. 어머니는 구운 오이를 든채 아이들을 지켜 보다가 스르르 쓰러져 잠든다.

바로 그런 어머니에게 빨래는 오히려 휴식인것이다.

명옥은 끝내 벽에 걸어 놓은 자기의 대학교복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없이 울었다. 외로운 빨래방치질소리는 계속 들려 왔다.

명옥은 밖으로 달려 나갔다. 영악한 바람에 눈물 젖은 두볼이 당장 알알해 갔다.

그러나 우물가를 바라보던 그는 무춤 굳어지고 말았다. 우물가에는 동네의 여러 어머니들이 서 있었다. 집 대문이 소리내어 열리더니 또 한 어머니가 들어 선다. 그 어머니의 손에는 빨래방치가 쥐여 져 있었다.

《않는다는 소릴 듣구 찾아 오려던참인데 방치질 소리가 나더라니...》

동네에서 나이가 그중 많은 감나무집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옛날부터 베 짜는 소리하구 방치질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를 안다구 했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자네 그 정성을 옛말처럼 얘기할 때가 꼭 올걸세. 그 애들은 다 자넬 알아서 부지런하구 마음 고운 애들이 될거야. 암!》

문득 우물가에서 어머니들의 방치질소리가 합창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눈물겹도록 외롭고 힘겹게 들리던 그 방치질소리가 갑자기 살아 난듯 힘 있고 활기롭게 울려 오기 시작했다.

어둠이 통채로 창창 깨여 지고 추위에 얼어 붙었던 모든것이 흠칫흠칫 떨며 부서져 내리는듯했다. 캄캄한 밤의 어둠과 독한 추위를 맞받아 찌렁찌렁 소리지르는 어머니들의 신바람난 노래인듯도 했고 어디론가 다그쳐 가는 어머니들의 막을길 없는 발걸음소리인듯도 했다. 어머니는 언제 자리에 누워 있었던가 싶게 싱싱하고 활력에 넘쳐 웃으며 빨래를 한다.

명옥은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거의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지켜 보았다. 이 순간 세상은 통채로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이루어 진듯 싶었다. 예옥이가 방금 말해 준 그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이 순간 그 매 모습들이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들처럼 강해 진다면 이 세상에 피로운것도 해내지 못할것도 없다고 소리 쳐주는듯 했다.

명옥은 눈물에 젖었던 두볼을 닦았다.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 갔다. 자기도 저런 어머니들속에 뛰여 들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들을 지켜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학장선생님을 찾아 가 자기는 일하면서 대학을 마치겠다는것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 세울수가 없었다. 하여 우물가에서는 한쌍의 방치질소리가 나란히 울리기 시작했다.

...

그 모든것을 돌이켜 보는 이 시각 명옥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초기 결심조차도 잊게 했던 문일파의 사랑이 놀라왔고 죄스러웠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내 사랑만 쫓아 갈수는 없어. 안돼! 단념해야 해.)

모질게 되뇌이는 그의 마음의 고백처럼 방치질소리가 짱짱 여무지게 울렸다. 이마를 맞대듯 둘러 선 주변의 자그마한 산들이 그 소리를 흠칫흠칫 되받아 묻는듯 했다.

《단념한다?!》, 《단념한다?!》

그러자 도전하듯 한동안 세차게 울리던 그 방치질소리가 두려운듯 점점 수그러 들더니 이어 푹 멎어 버렸다.

명옥은 시내물우에 자꾸만 그러 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싱싱한 젊음과 열렬한 애정이 이글거리는 얼굴을 지워 버릴수가 없어 빨래방치로 시내물을 세차게 휘저어 놓고는 그만 얼굴을 싸쥐었다. 시내물이 놀란듯 일렁이자 거기에 비낀 얼굴이 조각조각 흩어 졌다. 그러나 마음 고운 시내물은 그 흩어 진 조각들을 다시 싣고 흘러 와 눈물에 젖었을망정 젊고 아름다운 기운을 잃지 않은 처녀의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 놓았다.

그앞에 앉아 처녀는 눈물 머금고 있었다.

2

《언니, 언니가 가지고 갔던 빨래감중에서… 네 아이 옷이 없어요. 암만 찾아 봐두…》

강가에서 돌아 온 명옥에게 빨래를 널던 예옥이 조심스레 다가 와 하는 말이었다.

명옥은 흠칫 놀랐다. 자기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딴 생각을 했다는것이 떠올랐고 그래서 십중팔구는 그 빨래를 떠내려 보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였다. 부끄러움과 당황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게 어떤 옷이라구… 당에서 이 어려운 때에 한벌씩 한벌씩 마련해 보내준 옷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알길 없는 설움으로 왈각 솟구쳐 올랐다. 명옥은 고개를 숙이고 시내가로 달려 나갔다. 기슭을 따라 끝없이 걸어 내려 갔다. 그렇게 건다 중소형발전소언제에 막혀 멎어 선 물과 함께 그도 멎어서 흐느껴 울었다.

그를 내내 뒤따라 온듯 어머니가 말없이 그옆에 와 섰다. 어머니의 손에는 명옥이 잃어 버렸던 그 네 아이의 옷이 들려 있었다. 그 어머니의 치마자락은 물에 푹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명옥의 손을 어린애마냥 이끌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다.

《명옥아, 넌 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아니예요. 어머니! 전 이미…》

《나두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렇다구 누구 말대루 10명을 학원에 데려다 주면… 난 자기 어머니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애들을 이치러지게 하고 싶진 않구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아름답지 못한 인간이 아름다워질수는 없지 않니.》

강변 자갈길을 걷는 어머니의 발자욱소리가 의미심장한 말소리마냥 명옥의 귀전에 울려 왔다.

《난 그저 어머니다. 내 하나 고생하면 20명 아이들이 다 홀룡해 지지 않니. 그게 어머니의 법도다. 모르고서는 어쩔수 없지만 알고선 깨닫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어머니는 그 누군가에게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엄숙하기까지 했다.

《나한테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 네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지.》

어머니는 명옥에게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 주었다.

…

아직은 사람들의 생활이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가하지 못했던 주체 43(1954)년의 그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였다.

외할머니가 살고 있던 북부 산간지대의 어느 군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전 군중적운동의 일환으로 군안의 녀성들에게 나라에 천을 짜서 바치는 사업을 호소했다. 그곳은 녀인들의 천냥이로 유명한 고장이였다.

녀성일군들이 마분지로 만든 메가폰을 쥐고 대오를 지어 골목들을 돌았다.

《우리의 희생된 영웅전사들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땀에 젖고 목고에 해지는 우리 복구건설자들의 옷을 위하여… 비록 단 한치 손수건만한 천이라도 조국해방전쟁을 이긴 녀성들과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하고 웨쳤다.

먹을것처럼 입는것도 귀하던 때였다.

그 열 띤 목소리들이 들려 올 때면 어머니는 시름 겨운 눈길로 기운 자리가 력력한 딸의 옷을 살펴 보곤 했다. 전사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정의 한 부분인 그 딸의 궁상이 흐르는 옷차림은 어머니의 가슴을 늘 아프게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군데군데 칠이 벗겨 지고 불에 그슬리기는 했어도 백철쇠테가 둘러 지고 큼직한 봉어 자물쇠까지 달린 어머니의 장농속에는 딸의 옷감을 짊 실이 들어 있었다.

마을길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실과 딸의 옷차림을 번갈아 보는 어머니의 표정도 착잡한것이였지만 그 모든것을 말끔히 알고 있는 7살짜이 어린 딸의 표정은 더욱 긴장한것이였다. 딸의 그 감질을 내는 시선을 외면하며 어머니는 자꾸만 실통구리들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제 한자식 해입혀 내 세우기두 힘이 든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입혀 내세워야 할 나라야 여복 힘이 들겠니, 뭉니뭉니 해두 술한 자식 말아 안은 큰 집이 일어 서야지.》

딸에게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말을 하는듯 한

어머니였다. 딸은 혀를 깨물고 서서 더 조를념을 못했다. 전쟁은 아이들을 일찍 칠 들게 했다.

《나라》, 《조국》 하는 그 말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전에 먼저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한 그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생각해 하는것으로 하여 신성화되었다. 그 저녁부터 어머니는 천을 짜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베틀소리는 어두운 공간속을 날아 지나 호박덩굴과 줄당콩덩굴에 덮인 집집의 작은 창가를 두드렸다. 그 소리를 지켜 주련듯 마을은 어디라 없이 고요했다. 영악한 몇집의 개가 쾅쾅 짖는 소리가 멎적은듯 잤아 들고 천길 수심의 밑바닥 같은 고요와 안식이 가라앉은 속에 어머니의 바디질소리는 계속 울렸다.

온 마을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듯 했다. 폭격에 깨여 진 유리를 종이테프로 수많은 십자 표식을 해서 붙인 그 창가들에 잠들지 못하는 불빛이 뻥하게 어렸다.

문득 마을의 어느 한 집에서 화답하듯 베틀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집, 또 한집...

따라 서는 어머니들의 모습인듯 며칠이 지나서는 마을의 집집마다에서 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 집집의 아이들의 옷은 대체로 기운 옷들이었다. 그 베틀아래 천이 필필이 쌓여 질수록 어머니와 자식들은 다같이 속을 태우는것이였다. 옷을 해주겠다는 말도 해달라는 말도 삼가할 줄 아는 마음들이 그 베틀소리와 함께 밤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발 고운 천을 쓸어 보고는 한숨을 쉬며 물려 나는 딸의 정상이 가엾어 끝내는 그 천에서 자그마한 치마감 하나만을 잘라 내었다.

7살짜리 처녀애의 치마감이 크면 얼마나 크라마는 그 천을 잘라 내는 어머니의 손은 떨렸다. 베어 낸 천을 도토리를 삶는 가마에 넣고 끓여 낸다음 까만 개흙이 있는 도랑속에 묻었다 꺼내면 까만색의 천이 된다. 그것으로 딸의 치마를 만들어 주며 어머니는 신신당부했다.

《옥란아, 아직은 입고 나다니지 말아라.》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까지 낮추는 소박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만든 치마는 짧아서 무릎위로 강뚱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기운 옷을 입고 다녀야 했고 자기에게 새옷이 있다는 자랑조차 삼가해야 했다.

하지만 딸은 자기에게 새 치마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던가? 집에 들어 오면 그 새 치마를 꺼내 입고는 보고 또 보았다. 그런 딸을 보며 어머니는 자기의 소박한 《리기주의》를 두려워 했다. 아마도 그것은 베틀소리가 울리는 집집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들의 천냥이운동이 끝나고 그 어머니들에게 나라에서는 감사와 함께 아이들의 옷을 안

겨 주었다. 하여 딸에게는 발 곱고 탄탄한 새 교복이 생겼다. 그 새 교복을 입은 딸은 무릎위로 강뚱하니 들리는 어머니가 만들어 준 치마를 잘 입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입고 놀다가 어지럽히면 옷방 한쪽 구석에 되대로 개여 놓고는 다시 돌아 보려 하지 않았다. 그 치마를 꺼내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어둡했다.

《이제 다시 하얗게 만들지도 못하고 어찌노? 나라에서 이걸 알면 얼마나 럼치 없는 년이라고 욕하겠니. 그러게 큰 집이 먼저 일어서면 이런 옷걱정, 먹을 걱정이 없는 법인걸 이 미련한게 공연히...》

어머니는 울듯이 컴컴한 얼굴로 그 치마를 들여다 보다가는 부엌으로 가지고 나가 오래도록 방치질을 하며 빨았다. 마치도 그 검은 물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다시 하얗게 만들려는듯이...

그리고는 그날부터 자기의 옷가지들을 팔아 실을 사서는 다시 천을 짜기 시작했다. 자기의 《리기주의》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라에 천을 짜서 바치려는것이였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자기가 아픈 마음을 건드렸다는것을 안 딸은 그 다음부터 그 강뚱한 치마도 정히 입었고 조금만 어지럽혀도 어머니 손이 갈세라 제가 빨았다. 그것으로 하여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빨래방치와 친하게 되었다.

...

《너희 외할머니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깨끗하게 사셨다.》

이야기를 마치며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가 어렸을적엔 너희 외할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에 기여했구 폐허에서 이 땅을 일떠세웠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행군>에서 남자들보다 연약하다구 생각했던 녀자들이 오히려 곳곳이 살아 나가는걸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 어머니들은 그 어머니들에게서 자랐구 그 어머니들보다 더높이 서 있다. 명옥아, 다음번엔 너희들 차례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어머니들처럼 살거라. 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의 본도만은 어지럽히지 못하는게다. 어느 책엔가 써여 있더라. 이 땅의 좋은 일에두 나쁜 일에두 다 어머니의 책임이 있다구...》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걸어 집으로 돌아 왔다.

그런데 그 밤 문득 한 아이가 눈을 뒤집고 까드라 지며 앓기 시작했다. 명옥이가 옷을 잃어버린 그 네아이들중의 한명인 심혁이였다.

평시에도 제일 약하고 활발하지 못해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아이였다. 어머니는 그 애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 갔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밤이 흘러 가고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 왔을 때 의사들마저 손맥을 놓고 물

러섰다. 아이는 마지막호흡을 하는듯 숨을 길게 들이 굶고는 한동안 잠잠했다가 가늘게 내쉬곤 하였다. 벌써 사지가 콧꽃해 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하듯 울음을 터뜨리며 그 애의 식어 가는 몸을 흔들었다.

《심혁아! 심혁아!》

그러던 어머니가 고개를 책 돌리며 의사들을 바라보았다. 그 어머니의 눈가에는 지금껏 명옥이 한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빛이 어찌면 인간의 것이 아닌듯 한 섬찍한 섬광이 일었다.

《왜, 왜 벌써 죽었다고 손을 놓는겁니까. 여기에 의사들과 어머니가 있구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과학이 있는데…》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나이 지숙한 한 의사가 괴롭게 중언부언했다.

《아니, 죽을수 없어요. 절대루! 이 애가 어떤 애라구…》

어머니는 마지막숨을 들이긋는 어린애의 입과 코에 자기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시키기 시작했다. 어린애의 입과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입으로 빨아 빨아 냈다. 거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자, 내 피를 뽑아 넣어 줘요. 그러면 삽니다. 어서요, 난 O 형이에요.》

어머니는 팔을 걷어 올렸다. 만류하던 의사들도 더 어찌지 못하고 주사기를 꺼내들었다.

어머니의 붉은 피가 아이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어머니는 자기의 입으로 계속 아이의 인공호흡을 시켰다. 그 모습에 감동된 의사들이 다시 힘을 내어 달라 붙었다.

동전에 붉은 해가 솟아 오르고 거리가 새날의 소음으로 들끓기 시작할 무렵 어린애의 두볼에 홍조가 피어 오르고 숨소리가 고르로와 졌다. 어린애의 입에서 가늘게 《엄…마…아…》 하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머니는 굳어 진듯 서서 그 모습을 정신없이 들여다 보았다. 그것이 다시 찾은 생의 확연한 표징임을 깨닫는 순간 어머니는 침대머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 앉으며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요. 내 지금껏 내 의술을 장담해 왔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는 당하지 못하겠구만.》

나이 지숙한 의사가 눈물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으며 말했다.

《저 어머니 약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와선 남편과 자식들두 모르게 자기 피를 뽑아 넣어 주곤 했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어머니를 도와 주는 동당비서의 목소리였다. 명옥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올적마다 별로 나른해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명옥은 두손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옆에 꿇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온 병원의료집단이 어린애를 살리기 위한 전투에 들어 가고 그것으로 하여 심혁이가 정신을 차리자 어머니와 명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 왔다.

그런데 집은 텅 비다 싶이 되어 있었다. 제일 나이가 어린 몇 아이만이 겁에 질린 울퉁한 눈길로 어머니와 명옥을 올려다 보며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참이나 얼리고 묻고 해서야 예옥이가 몇몇 녀자애들을 이끌고 강가로 빨래를 한다고 나갔는데 그 뒤를 따라 아이들이 모두 강가로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어머니와 명옥은 허둥지둥 강가로 나왔다. 그러나 그 강변에 펼쳐 진 광경앞에 그들은 무춤 굳어지고 말았다.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오구작작 강덕과 강물속에 들어 서 있었는데 그 애들의 손에는 저저마다 옷가지들이 들려 있었다.

예옥이가 그 가운데 앉아 빨래방치를 서툴게 휘두르고 있었다.

4월의 물은 아직 찼다. 옷동을 벗은 애들은 추운지 어깨들을 한껏 움송그렸다. 모두가 물참봉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뭐라고 소리치려고 했으나 영문 모를 목갈린 소리만이 새어 나왔다.

아이들이 어머니와 명옥을 발견하고 조용해 졌다. 예옥이가 울먹울먹 말한다.

《어머니! 언니! 우리가… 우리가 어머니랑 언니랑 힘껏 도울래요. 우린… 어머니랑 언니랑 같이 살고파요. 우릴… 보내지 말아 줘요.》

그 애의 얼굴과 옷 앞자락은 온통 물에 젖어 번들거린다. 일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자고 권고하는 친척집 녀인의 말을 듣고 울듯이 서 있던 그애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린… 우리 집이 좋아요.》

《우린 모두 함께 살구파요.》

《어머니! 우릴 진짜 보내나요. 예?! 아니지요?》

아이들이 다투어 소리친다. 아이들의 손에 들린 빨래감에서 물방울이 눈물인양 떨어 져 내린다. 겁에 질리고 당황해 저 벌써 물기가 어린 수십쌍의 눈동자들이 어머니의 얼굴만 살핀다. 어머니의 얼굴로 주르르 눈물이 흘러 내린다. 비틀어 찌는듯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어머니의 온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너희들이 이러면 어머니 힘 줄어서 더 일어

나지 못한다. 죽고 말아. 이젠 너희들이... 이 어머니를 믿지 않는구나. 응? 믿지 않아!》

목 갈린 어머니의 하소연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채 흐느껴 울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두손바닥으로 강변 자갈밭을 소리나게 헤집으며 일어서더니 저쪽으로 비칠비칠 걸어 갔다.

《어머니!》

명옥이 피 타게 불렀다.

《어머니!》

아이들도 겁 먹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래도 어머니는 비칠비칠 멀어 저 간다.

《누가 너희들 보구 이러라구 했니 응? 누가?! 너 어머니 가슴 터져 죽는걸 보자구 이러니 응?! 예익!》

명옥은 때릴듯 주먹을 쳐들고 예옥이앞에 달려 들었다. 그러나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애앞에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싸쥐었다.

흐느껴 우는 명옥의 앞에 선 예옥의 손에는 그애의 팔길이만한 빨래방치가 쥐여 저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거기서 아직도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 저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물도록 집에 돌아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 있을만한 곳을 다 찾아 보았으나 어머니는 없었다. 몇몇 아이들이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들어 섰다. 그동안 바쁜 사업때문에 집에 들어 오지 못하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에는 울망줄망한 아이들의 머리가 보였다. 명옥이도 아이들도 모두 눈이 둥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켜 보았다.

《얘들아! 너희들의 동생들이다. 우리 함께 살자. 보낸다구?! 이 어머니를 좀 보라. 너희들을 보내긴 어딜 보내겠니 응? 얘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마당은 한순간 고요해졌다. 놀라움과 걱정이 그리고 그 전후사연이 뜨겁게 인식되는 한순간이었다. 이어 온 집안을 통채로 들었다 놓는듯한 아이들의 부름소리가 동시에 터져 올랐다.

《어머니!》, 《엄마!》

그 다음은 무너져 내리듯이 아이들이 통채로 어머니에게 달려 들었다. 순식간에 어머니를 꼭 에워 쏜다. 미처 어머니곁에 가지 못한 그중 나 이 어린 한 애가 네발걸음으로 아이들의 다리짚을 새여 나간다. 덤비는 아이들의 발에 서로 채우면서도 필사적으로 어머니곁에 다가가려고 버둥거린다. 눈물과 코물, 흠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쳐들고 《어... 엄... 마...》 하고 부르짖는다. 어머니가 그 애를 띄여 보고 안아 들더니 얼굴을 닦아준다.

명옥의 눈에는 그 이상 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목놓아 웨치는 아이들의 부름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머니!》, 《엄마!》

그 목소리만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우렁우렁 하듯 싶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너희들이 다 나에겐 힘이다. 알겠느냐. 응?》

명옥은 얼굴을 싸쥐고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 갔다.

믿어 지지 않으리만치 강하고 뜨거운 저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바로 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일신상의 차그마한 곡절에도 울고 고민하며 그토록 귀중한 아이들의 옷까지 잃어버렸다. 나는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인가? 나는 제판에는 대학까지 그만두며 어머니를 따른다고 했지만 너무도 아득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할진대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날 명옥은 자기의 공민중에 네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올렸다. 자기가 강가에서 옷을 잃어버린 그 네 아이였다. 어머니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심혈이가 그의 말아들로 되었다.

그 순간 명옥은 자기의 한생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이 나라의 훌륭한 어머니들처럼 아름답고 빛나기를 빌었으며 또 굳게 믿었다. 그러자 사랑의 곡절이 더는 두렵지도 않았고 놀랍게도 자기의 인생길이 먼 지평선우의 길처럼 어렵듯이나마 보이는것이였다. 아마도 그것은 명옥이가 돌아보는 어머니들의 한생이 수천만 자식들이 믿고 전해 오는 그런 길우에서 언제나 하나로 흐른 그때문이라.

며칠후 명옥의 집을 찾아 와 30명으로 늘어 난 아이들과 명옥의 공민중에 오른 네 아이를 본 문일은 고개를 떨군채 까딱 앉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명옥을 처음이라도 보는듯 찬찬히 여겨 본다. 묻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 마음의 눈길들이 서로를 오래도록 지켜 보았다.

《어머니! 명옥동무! 정말... 해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할수 있는것을 한다면 왜 어머니사랑을 제일로 뜨겁다고 하겠나?》

문일은 번쩍이는 눈길로 어머니와 명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문일과 그의 아버지가 명옥의 집을 찾아 왔다.

《사돈님, 안사돈님. 외곬 생각만 한 날 육하시우. 내 판에 이 집을 생각해 준다는게 그만... 부끄러웠수다.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울수도 있וג 하구... 자, 우리 문일이두 나두 안사돈님을 돕겠수다. 우리 문일이를 이 집에 받아주시우다.》

모두가 울었다. 어머니도, 명옥이도, 문일이도 그리고 그 사연을 아는 아이들도...

바로 그 행복하고도 가슴 뜨거운 사연속에 명옥과 문일의 결혼식날이 정해 졌다.

×

결혼식을 하루 앞둔 명옥의 집에 경사가 났다.

명옥의 어머니의 소행을 보고 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를 두고 전해 갈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우리 당에는 바로 이런 어머니, 이런 당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친히 어머니를 조선로동당에 입당시킬데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경사를 맞이한 온 집안이 끓었다. 일시에 새옷을 갈아 입은 아이들이 집안이 좁다 하게 뛰여다녔다. 그 기쁨속에 결혼식의 아침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런데 그 밤 래일의 새색시가 문득 없어 졌다. 문일이 걱정스러워 슬그머니 찾기 시작하던 명옥을 온 집안이 발각 펼쳐 일어나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옥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와 문일이 찾다 보니 새옷을 갈아 입고 벗겨 놓은 아이들의 옷이 없었다. 그들은 꼭 같은 예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시내가로 달려 갔다. 빨래터가 저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다같이 걸음을 멈추었다.

달 밝은 5월의 밤, 두드리면 뚝뚝 소리가 날듯 싶은 둥근달이 하늘 공중에 걸려 있고 생명의 즙을 함뿍 머금은 만물이 번지르르하니 누워 있는 그 시내가 빨래터에서 그는 아이들의 옷을 빨고 있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손이 천지의 모든 것을 정 깊게 두드리려 흔드는듯 한 방치질소리가 시내가에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문일은 찾을 생각도 잊고 한쪽의 그림 같은 그 모습을 홀린듯 바라보았다. 언제 따라 왔는지 아이들도 그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명옥의 네 아이도 있었다. 그들도 눈을 빛내이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이제 그들도 자라 훌륭한 어머니가 될것이다.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전하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 명옥이 처녀의 몸으로 어머니가 됐듯이...

그렇게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더욱 아름다와 질것이다.

말없이 지켜 선 그들모두의 귀전에 달빛에 싸인 천지가 전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인양 그 방치질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어머니가 아름다우면 세상도 아름다와 진다고 소리쳐 알리듯이...

상식

건강상태의 자체검사법

건강상태를 자체로 간단히 검사해 볼수 있다.

-심장상태자체검사법

1분 30초내에 허리굽히기를 20번 한다. 허리를 굽힐 때에는 숨을 내쉬고 허리를 펼 때에는 숨을 들이 쉰다. 시작하기전에 맥박을 한번 쟀다. 운동이 끝난후 인차 맥박을 다시 쟀다. 그다음 1분후에 또다시 맥박을 쟀다. 이 세가지 맥박수를 합친 수에서 200을 덜고 나머지수를 다시 10으로 나눈다.

그다음 얻어 진 답을 분석한다.

0~3이면 심장이 대단히 좋은 상태이고 3~6면 그저 좋은 상태이며 6~9이면 일반상태이고 9~12이면 심장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12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계단을 오르는것은 자기의 체력상태를 가늠해 보고 다리와 호흡계통을 단련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한번에 두계단씩 빠른 속도로 5층까지 오를수 있으면 몸이 좋은 상태이고 한계단씩 5층까지 올라 가도 숨이 차지 않으면 몸이 꽤좋은 상태이다.

만약 숨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면 건강상태가 3

점박에 안된다는것이고 겨우 3층까지 올랐는데도 힘들고 숨이 찬 현상이 나타나면 몸이 쇠약해 진것이므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복부체조는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좋은 방법이다.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을 누르게 하고 두손을 서로 교차되게 가슴에 올려놓는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허리를 굽히면서 발끝에 손끝이 닿도록 팔을 앞으로 쭉 펴는 운동을 련속 1분간 진행한다. 1분동안에 몇번 할수 있는가를 계산한다. 20살나이에는 1분동안에 45~50번 하여야 하고 30살나이에는 40~45번, 40살나이에는 35~40번, 50살나이에는 25~30번, 60살나이에는 15~20번 하여야 한다.

-폐상태자체검사법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죽인다. 숨을 죽이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그다음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 시간은 3초남짓이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최대한도에서 숨 죽이는 시간이 20살때에는 1분 30초~2분, 50살때에는 30초정도에 달하여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다

한금란

이 땅 삼천리 끝에서 끝까지
신천땅을 프랑카드마냥 내들고
목구멍에서 단내가 나도록
절규하고 싶구나
자 여기에 미국이 있다

보라 신천을
화약고의 돌벽에 피로 찍힌
꽃잎같이 작은 손자국들에
대아메리카의 상관이 비쳐 있다
젖도 못 땀 아기들에게 엄마를 빼앗고
휘발유를 뿌리며 너털웃음치던 낮쪽에
미국이 있었다

자 보아라 신천을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여
짓밟아 뭉겐 그 피 묻은 군화발에
미국이 있었다
대낮에 너인의 알몸을 거꾸로 매달고
젖가슴을 도려 낸 그 피 묻은 손에
미국이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높은 곳에
살륙의 불길이 치솟는 곳에
패락을 즐기는 미국이 있었고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사람의 시체가 산처럼 쌓인 곳에
미국의 성조기가 나뭇기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다
자기의 기발에 하나하나의 별을
인간살륙의 피로 새긴 악마들
그 식인종들이 지구상에 있는 한
신천의 절규는 끝나지 않으리라
신천은 력사의 고발장이 되어
최후의 심판대에 미국을 끌어 내리라

보라 오늘의 신천을
천백배 복수를 다짐하는 절규의 대오속에
분노에 우는 병사의 총창마다
사지가 찢어 지는 미국이 있다
붉은 넥타이 저 어린 소년들의
작은 주먹안에도 숨통을 졸리우는
미국이 있다

오 강토 삼천리에
누가 신천을 외면할 권리가 있더냐
삼천리가 통채로 심판장이 되고
나의 절규가 7천만의
노호한 함성으로 솟구치는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숨을 튕는
최후의 미국을 나는 본다